현대불교

제 76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4년 1월 13일(음력 11월 29일) 수요일(주간)





문화재보호법 3등분 이유는?

문화재보호법 · 매장문화재 법률 · 문화재수리 법률로 분리… 2011년 시행

지난해 문화유산계는 조선왕릉과 <동의보감>, 강강술래 등이 잇따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고, 고종 황제 어새 등 해외반출문화재 일부가 반환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익산미륵사지 금제사리봉안기 등의 발견에는 불교학계와 고고학계뿐만 아니라 역사 · 미술학계 등이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반면, 새해맞이를 앞두고 순식간에 잿더미로 사라진 여수 향일암처럼 미흡한 문화재 보호 · 관리 대책은 문화재 행정의 여전한 난제이기도 하다.

분명한 사실은 세계문화유산등록과 매장문화재 발굴 등으로 소중한 성과가 이어지고, 향일암처럼 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재를 지켜보면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 관련 정책의 틀인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48년 만에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로 나뉘었다. 특히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조문이 새로 명시되면서 문화재 정책이 새 전기를 맞았다는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최근 "국회에서 문화재보호법을 3개로 분법한 제정안이 통과됨(구랍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문화재 관련 법제가 체계화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이후 34차례 개정만 해왔다. 개정이 거듭되는 동안 입법체계는 복잡 · 난해해졌고, 관련 법제간에 서로 모순 · 저촉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문화재수리만 해도 그동안 세 부규정이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해 왔지만 정작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12장 104조문으로 구성됐다.

법에는 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해, 수립되는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활용을 도모했다(제6 · 7조).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옮겨 문화재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공정화 · 객관화 시켰다(제8조). 또, 문화재 기초조사제도를 도입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까지도 국가가 현황을 파악해 멸실 · 훼손으로부터 사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제10조). 문화재별 화재대응지침서를 마련케 하는 등 방재 대책의 수립 · 시행도 명시했다(제14 · 85조).

특히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한 조문을 넣어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은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법률은 국가가 국외소재 문화재의 보호 · 환수에 나서거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연구를 하고, 관련단체를 지원 ·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제67~69조).

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7장 38조문으로 구성됐다.

법에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장문화재의 조사 · 발굴보다 보존 · 보호를 우선하도록 했다(제4 · 5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및 조사, 처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해당 건설지역의 문화재 매장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한 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제6~10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조사기관의 공신력을 담보했고(제24 · 25조),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근거규정 신설을 통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했다(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해왔던 문화재수리 관련 사항은 7장 62조문의 문화재수리법으로 제정됐다.

법은 문화재수리업자를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 도입과 문화재수리업의 도급 · 하도급 제도 정비,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 책임을 지워 부실 수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이번 분법을 두고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당장 4대강 개발사업 등을 앞두고 지표조사 축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문화재 등 문화유산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을 넘어 한 나라의 사회 · 문화적 정체성을 담보한 자산이다. 관련법 정비로 수준 높은 문화재 행정의 토대가 마련된 지금, 달라진 문화재 행정을 통해 국민적 자긍심과 국격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문화재 관련 3개 법률은 2010년 1월 공포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동섭 기자

"교육 · 포교로 사회와 소통하라"

조계종 신년하례법회 7일 해인사서 봉행… 종정 법전 스님 교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스님들이 신년하례법회에서 삼보전 통알을 하고 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새해를 맞아 교육과 포교를 통해 불교중흥의 전기를 마련하고 수행종풍의 확립과 사회적 소통을 실현할 것을 교시했다.

2010년 조계종 신년하례법회가 1월 7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법회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헌향, 총무원장 자승 스님 헌다에 이어 노전을 맡은 해인사 창선 스님의 창불에 맞춰 삼보전 통알이 진행됐다. 또 종정 예하 하례, 죽비삼정, 종정 교시, 총무원장 및 원로의원 하례, 신도대표단 하례, 총무원장 인사, 참석대중 맞절, 중앙신도회 회장단 삼배의 불교전통의식이 이어졌다.

법회에서 법전 스님은 "우리는 조계종 종지 선양을 통한 수행종풍의 확립과 함께 사회적 소통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고,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의 대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모든 일은 신심과 원력 그리고 능력을 갖춘 선재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며 "도제양성을 위한 교육과 일관성 있는 종책, 전종도 평생교육을 통해 범부를 성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스님은 끝으로 "불조께선 줄탁동시의 대선지식 역할을 항상 자처하셨다. 교육은 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작불사"라고 거듭 강조하며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교육과 포교를 종문의 양대 화두로 정진하며 희망찬 경인년을 열어 가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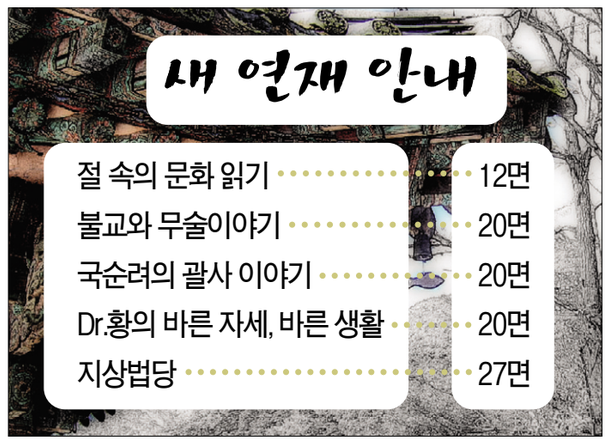
이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인사에서 "국민과 전 종도의 뜻을 모아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종단원로 스님들이 항상 법체 강녕하시길 기원한다. 또 중앙종회의장, 호계 · 교육 · 포교원장 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모든 스님들이 신년 하시는 일이 원만 성취되길 바란다"며 "제33대 집행부와 전종도는 종정 스님께서 하교하신 소통과 화합, 교육과 포교를 통한 종단중흥과 종풍진작, 그리고 사회소통을 위해 공심과 신심 · 원력으로 교시를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지혜, 차석부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동춘 원명 진제 스님 등 원로 스님 12명, 중앙종회의장 보선,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장 혜총 등 중앙종무기관장 스님, 불국사 주지 법타, 수덕사 주지 옹산,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 22명, 중앙신도회 백창기 명예회장, 김의정 회장 등 주요 신도직능단체장, 서만근 경남도부지사, 심의조 합천군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같은 날 오후 청주 보살사를 방문해 원로의장 종산 스님에게 신년하례를 올렸다.

종산 스님은 자승 스님에게 "여법히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와 제33대 총무원 구성이 잘돼 매우 기대된다"며 "용산참사 해결에 노력한 것처럼 불교계가 사회 약자를 돕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소통과 화합으로 불교미래를 열어가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덕담을 내렸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성보 관리, 사전예방이 '대안'

조계종 호법부, 전국사찰에 '성보 도난 및 훼손 예방 공문'

조계종 호법부(부장 덕문)가 1월 7일 조계종 산하 전국사찰에 '성보도난 및 훼손 예방 협조공문'을 보내 성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11월 19일 동절기 화재예방 협조문을 보낸 데에 이어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호법부의 이러한 조치는 화재예방을 당부한 공고 직후 여수 향일암 화재가 발생한데 대해 일선 사찰의 주의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조문은 △성보 도난 및 훼손 시 현장보존, 즉각 경찰신고 후 총무원 호법부 보고 △일몰 이후 및 폭설시 특별 순찰 전개 △경내 전각 시건장치와 CCTV 등 방범 보조기구 점검 △매일 아침예불 시 성보물 일일점검 △도난 가능성 높은 이동가능 성보물 별도 보관의 5개 수칙을 담았다.

협조문 발송에 앞선 5일, 호법부장 덕문 스님은 "폭설로 경내 순찰활동이 어려운 상황 등을 이용해 성보 도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지정 성보물에 대한 절도 가능성뿐만 아니라 종교적 관점이 다른 이유로 인한 성보 훼손 가능성도 있다"고 이번 공문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덕문 스님은 "한번 도난 당하거나 훼손당한 성보물은 원상회복이 대단히 어려운 이상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성보 도난 · 훼손에 대해 관련 종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2001년 제정된 '방범 · 방화에 관한 령'에서 사찰별로 소장된 지정문화재에 CCTV 등을 설치토록 했지만 일선 사찰에서는 재원 문제 등으로 경보시설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노덕현 기자

'붓다'의 선물! 물 없이 아낌없이 즐기는~
보리수 반신욕



4계절!!
사찰에서 · 거실에서
어디에서나~

온 식구가 평생 쓰는 반신욕! 산림욕!

상체는 차갑게, 하체는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두한족열로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웰빙 반신욕입니다.
물이 필요없이 아낌없이 즐기는 반신욕으로 심신을 맑고 밝게 더 향기롭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상품종류
· 순금붓다 반신욕 (규격 L 1000×W 580×H 710) '10대 한정'
· 보리수 반신욕 (규격 L 1000×W 580×H 710)
· 호동A 반신욕 (규격 L 900×W 530×H 700)
· 호동B 반신욕 (규격 L 910×W 630×H 770)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스트레스와 긴장이 많은 직업.
·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 노인 및 신체가 허약하신 분.
· 젊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
·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시는 분.
· 술,담배 등을 많이 하시는 분.
·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수험생 등.
·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

반신욕 체험사례
추위를 덜 탑니다…. (지은 스님)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현정 엄마)
불면증이 많았는데 잠을 달게 잡니다…. (예쁜 세상)
변을 보는 느낌이 좋아졌어요… ^^; (성은 아빠)
반신욕을 하고 나면 한 참 동안 가뿐하네요…. (새롬 언니)
밤에 신경통이 심했는데 정말 신통방통허다…. (지헌 할머니)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고나니 정결한 마음이 많아요…. (윤성 불자)

몸과 마음을 씻음으로 '성불'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조



[모델명 BM-1000]

규격

제품명	T.D.P 반신욕기
모델명	BM-1000, BP-2000
소비전력/전압	AC 220V / 60Hz / 770W
규 격	BM-1000 : L 1000×W 580×H 710 B P-2000 : L 900×W 530×H 700
중 량	(BM) 38kg, (BP) 30kg
구 성	적삼목 (북미산) 슈퍼블랙디스크 (TDP발열기) 원적외선조사기,황토판 등

적삼목



나무결이 부드러우면서 열과 습기에 강하고 수축, 팽창이 잘되, 갈라짐 · 뒤틀림 현사이 없고 썩지 않는 유일한 천연 방부목이며 공기정화와 살균력이 탁월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정과 심폐기능이 강화되며 향이 진하고 다량의 피톤치드를 방출하여 산림욕 효과가 탁월합니다.

설치 · 문의 02)418-1234 http://www.halfbath.kr ➔ 9일간 체험 후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단, 체험시엔 초기설치와 반환배송에 따른 비용이 10만원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社說

소통과 화합 교육과 포교

혁범성성(革凡成聖)이란 범부를 고쳐서 성인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이는 아무리 범부라도 부단한 노력에 의해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신년하례에서 "도제양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종책, 전종도 평생교육을 통해 범부를 성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따지고 보면 승가는 그 자체가 교육집단이다. 일상 의례나 참선 간경 등의 수행도 모두 교육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이란 것은 부단한 자기 계발이고 스스로 정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행자는 평생 교육받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신년하례 법회에서 강조한 것은 소통과 화합, 교육과 포교로 요약된다. 소통과 화합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덕이다. 정치인이나 불교계 지도자들이나 한결같이 소통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와 우리 사회의 소통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불교는 사회와 소통하는데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뭔가 엉성한 감이 없지 않다. 이유야 많겠지만 바로 교육이라는 내부적인 틀이 약한 데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포교가 중요한 것은 불교계 내부를 맑고 견고하게 한 다음 중생들에게 달려갈 때 진정한 사회적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종정 스님이 신년 벽두에 소통과 화합 교육과 포교를 주문한 뜻을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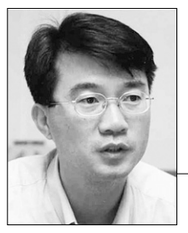
가족을 포교하라

종교의 자유는 신성한 것이다. 종교의 선택에 대한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종교든 포교(전도)에 소홀하려 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종교의 선택에 대한 자유는 얼마나 작용될 수 있을까?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가족 모두가 각각 다른 종교를 선택했다면 그 가족은 적어도 종교적 측면에서 가족이 아닐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종교에 영향 받아 선택의 여지없이 부모와 같은 종교를 갖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신심이 돈독하던 사람이 배우자의 종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의 영향으로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가족이란 개념이 개인의 종교적 의사 보다 소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 불자 가족 가운데 종교를 갖지 않는 경우가 부모 18% 배우자 33% 자녀 41%로 집계됐다. 배우자와 자녀를 불자로 만들지 않은 집안이 많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종교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거기에는 사찰의 책임도 있다.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법회도 중요하고 가족을 동참시키는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이제 포교 대상을 개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확대해야 할 때다.



불자 세상보기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

정체성 있는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요즘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이다.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자리는 부족한 탓이다. 기업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다보니 새로운 인력을 선발하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학교 도서관에 가면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 나와 취업 준비에 한창이다. 그들이 공부하는 책들을 보면 대개가 영어이다. 영어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탓이다.

기업만이 아니다. 대학 역시 교수를 임용할 때 영어 강의가 가능한지가 하나의 척도가 되었다. 어느 대학 임용공고에 국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영어가능이 선발의 한 조건이었다. 조만간 국문학도 영어 강의가 가능한 사람을 뽑을지 모른다. 실제로 국사학에서는 이미 영어로 강의하는 곳이 있으며, 외국인 교수를 뽑아 한국사를 강의하는 곳도 있다. 세계화 시대 한국학을 위한 방향이라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영어는 언어이다. 개인적 능력과 성향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다. 그들을 교육시켜 필요한 곳에 쓰면 된다.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모두 영어에 능통해야 하는 분위기는 국력의 낭비이다. 실제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가장 커 집집마다 걱정이 크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의 생활방식까지 변화시켰다.

한 예로 지금 인천지역 신도시로 설립되는 송도는 그 안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수도권에 거주하며 제법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송도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여 청약경쟁력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그 국제학교가 해외거주 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인 내국인만 입학할 수 있게 하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처음 입학 가능성을 믿고 이 지역 주택에 청약을 한 사람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과연 영어 공화국다운 모습이다.

그 일만이 아니다. 강북지역에 설립된 국제중학교는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교육,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제중학교 지정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 그렇지만 예정대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입학시험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여 부모들이 영어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었다.

영어에 대한 집착은 부유층의 만이 아니라 이미 서민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기유학생은 2002학년도에는 1만 명을 돌파하였고, 2005학년도에 2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2006학년도 2만9511명으로 증가하다가 경제사정 악화로 2007년에는 2만766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런 조기유학의 나라를 보면 미국이 1만4006명으로 가장 많고 동남아가 7421명으로 뒤를 이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층이 동남아로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노벨상은 서양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8년 노벨상 가운데 물리와 화학 등 기초과학분야를 수상한 일본학자가 여럿이었다. 그 가운데 영어에 몰입하지도 않고 해외에서 공부하지도 않았지만 세계적인 연구를 이루어낸 연구자가 있었다. 반면교사로 삼을 만 하다.

공부는 남이 시켜서는 못한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듯이, 공부 역시 책상에 앉아있게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하지 않는 한 성과가 없다. 공부하는 자가 재미를 느껴 지속될 수 있어야 세계적인 연구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영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4, 5세부터 유치원 골방에 갇혀 영어단어 외우고 수학공식을 푼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몇 개의 학원을 돌아다니며 외우기 바쁘니 무슨 창의력이 생기겠는가. 영어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체성 있는 교육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월의 테마-새출발

죽비소리 함께 시작하는 새해 새아침!

경인년의 힘찬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호랑이의 용맹으로 어려운 현실을 씩씩하게 이겨내겠습니다.

고요한 산사에 소복소복 눈이 쌓였습니다.

새해 아침의 절 도량에는"짝! 짝! 짝!" 죽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영산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숨죽이고 다가서면 거친 숨소리가 가슴을 뛰게 하며 들려옵니다.

고창군 복지관 식구들과 구랍 31일부터 1박2일간 1년의 피땀을 회향하며, 천배의 절로 새해의 소망과 염원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진이었습니다. 비록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절을 올리는 순간은 한순간이 만년인 듯 깊었습니다.

2년 전 고창군에서 개관한 복지관은 통합형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와 최근에 완공된 푸드 마켓으로 구성됐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들어섰을 때, 이곳에서 아무도 이 복지관이 크게 인기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이 대박 났습니다. 선운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불자가 많은 곳도 아닙니다. 1500년 역사를 지닌 도솔산 선운사였지만 무엇인가 불교를 세속과 접목하고자 하는 염원의 꽃이 이제서 피어난 것입니다.

복지관에 가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친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절은 "불친절"이라고 합니다. 우스게 소리인 듯하지만, 의미 있는 말입니다. 복지관이 절은 아니지만 "복된 만남을 아름다운 인연으로"를 테마로 전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어르신을 뵙고 있습니다.

둘째, 밥맛이 최고다. 매일 복지관에는 400명 이상의 지역 어르신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매일 어르신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을 고루 갖춘 새로운 식단으로 "영양만점! 건강만점!"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위해 멀리 상하면이나 해리면에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오실 정도로 경로식당은 당연 인기 최고입니다.

셋째, 깨끗하다. 2007년 개관 복지관은 최신 건물로 지역 주민과 어르신은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무엇인가 얻어오고, 배울 것이 많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은 문화교육과 이용시설 등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여가를 보낼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을 배울 기회가 없는 분들을 위한 한글교실과 어르신 건강을 위한 생활체조, 목욕탕 운영, 이미용실 운영 등 관심있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선택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실력은 작품전에 나가기도 하고, 발표회에 참여해 그 동안 배운 실력을 뽐내는 기회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관은 지역주민과 어르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2년 전 고창과 지금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 힘찬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공 스님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

현불만평 박구원



누구에겐 폭설 누구에겐 서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10학년도

동학사승가대학 신 · 편입생 모집안내

동학사승가대학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사미니과 00명, 사집과 0명
◆ 시험과목 : 면접, 염불실기,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 입학자격 :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통
(5) 증명사진 2매
(6) 건강진단서
◆ 준 비 물 : 만의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세면도구
◆ 원서접수 및 마감 : **2010년 1월 2일(음 11월 18일) ~ 2010년 2월 2일(음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 시험일시 : **2010년 2월 3일(음 12월 20일), 2월 2일 오후 4시**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문 의 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전화 042)825-2570 / 팩스 042)825-6068
◆ 교 통 편 : 고속버스 이용시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7번 버스 이용 → 종점 하차.
기차 이용시 대전역에서 107번 버스 이용 종점 하차. 동학사 입구
차량통제소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운행하는 동학사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학사승가대학 학장 법성

동학사 화엄학림 제2기 전문과정 학인모집

동학사 화엄학림에서 2010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전문과정 응시자격 : 기초교육기관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구니.
◆ 특 전 : 전문과정 2년 졸업자는 종단학림령에 의거해 불교학 관련 석사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자격이 부여됨.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졸업 후 중강(부교수) 자격부여.
◆ 모집인원 : 10인 이하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학림 소정양식) ……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통
(5) 승가대학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
(7) 수행이력서
(8) 학업계획서
(9) 사진 5장(3×4)
◆ 원서교부 : 동학사승가대학 종무소 및 동학사 홈페이지
◆ 원서접수 및 마감 : **2010년 1월 2일(음 11월 18일) ~ 2010년 2월 2일(음 12월 19일)**
※ 우편접수도 받으며 당일 오전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전형일시 : **2010년 2월 2일(음 12월 19일) 오후 1시**
◆ 전형방법 : 면접 및 구술시험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 문 의 처 : 동학사 종무소 ☎전화 042)825-2570 / 팩스 042)825-6068
기타 자세한 것은 동학사 홈페이지 화엄학림 청규 참조

동학사승가대학 화엄학림장 지환

호랑이의 기상으로 불법홍포하라

각 종단 시무식 갖고 새해 첫 업무 들어가… 각 단체도 4일 시무식

2010 새해를 맞아 불교계는 각 기관 · 단체별로 시무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 교역직 스님 및 종무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의 종단기조를 밝히는 시무식을 봉행했다.

자승 스님은 "2009년 10월 22일 출범한 제33대 집행부는 종도 여망과 불교사적 책임을 안고 있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종단을 중흥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으로 시대 중생들의 갈등과 괴로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공)도 1월 5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총무원장 인공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덕화 스님 등 중진 스님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 시무식을 봉행하고 종무를 시작했다.

인공 스님은 "대승보살의 대원력처럼 경인년은 모두가 주인이 되어 호랑이처럼 포효하는 기상으로 원대한 희망과 포부를 힘차게 펼쳐가자"고 기원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구정을 기점으로 시무식과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할 예정으로 1월 1일에는 영천 봉등사 백만독 입재법회를, 1월 5일에는 금강대학 신년하례법회 등 산하기관 신년법회 등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1월 5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태고종 시무식.

정산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자리이타의 사상을 비전으로 경인년에는 세상의 리더가 돼 범의 우렁찬 사자후를 떨치자"고 말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참회 실천과 사회통합을 최고 서원덕목으로 정하고 1월 4~10일 새해 대서원 불공 입재로 신년 불사를 시작했다. 진각종 서원덕목은 △평화공존 △국민생활안정 △사회통합 △도제양성 △참회실천 등이다.

혜정 정사는 "참회와 서원 그리고 수행과 회향으로 복지구족(福祉具足)한 한 해가 되길 서원한다"고 기원했다.

이밖에 불교 시민환경단체와 신행단체, 언론사 등도 4일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태고종은 12일 순천 선암사에서 종정 혜초 스님에게 신년하례를 올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1월 14일 서울 조계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불법홍포를 발원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국민의 은덕에 감사합니다"

9일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 봉행

불교계를 비롯한 4대 종단이 참여한 가운데 1월 9일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이 봉행됐다.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는 장례식 당일인 9일 오전 9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발인식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장충단공원 방향으로 운구행렬을 진행해 퇴계로를 거쳐 서울역 광장에 도착한 뒤 오후 12시에 영결식을 열고, 오후 3시에는 용산현장에서 노제를 열었다. 마지막으로 오후 6시에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하관식을 진행했다.

장례식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고문 청화 스님이 공동장례위원장을 맡고,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고문을 맡는 등 4대 종단 성직자들과 정치권, 시민사회 인사들이 동참했다.

장례위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마침내 책임을 시인해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 덕이다"며 "지난 1년간 억울하게 숨져간 고인들을 추모하고 애도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종교계와 시민들은 추모기간(5~9일) 중 용산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식을 가졌다. 박선주 기자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 논의해

조계종 총무원 본사주지 간담회서… 12일 계획 공개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 발표가 1월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7일 합천 해인사에서 총무원 · 교구본사 주지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발전계획 발표에 앞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각 지역불교계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번 간담회는 4개년 발전계획의 △3대 기조 △10대 핵심과제 △23대 주요과제 안을 보고드리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며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를 떠나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데 필요한 고견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말했다.

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법타 스님(불국사 주지)은 "총무원장 스님 이하 33대 집행부 스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본사 주지스님들을 비롯한 지역불교계는 종단 종책을 따라 불교중흥에 앞장 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종 확정된 발전계획은 1월 12일 조계종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개된다. 제33대 집행부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구랍 23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각 세부 핵심사업 윤곽을 도출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등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22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총무부장 영담 스님 등 제33대 집행부 교역직 스님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노덕현 기자

"다름 인정하고 공존해야 해"

불교환경연대, 지율 스님과 낙동강 답사

"요즘은 다름을 인정하라는 말이 크게 들립니다. 공존해야 하는 거지요, 공존하지 않을 수 없어요. 풀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4대강사업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1월 7~8일 지율 스님(사진)과 함께 낙동강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불교환경연대 교수와 전문가들은 이틀 동안 지율 스님과 함께 상주보와 낙단보, 강창보와 달성보, 함안보 등이 들어설 낙동강유역에서 현장체험 및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답사는 불교계 4대강 심포지엄(2월 예정)을 개최하기 앞서 보다 나은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었다.

7일 아침부터 동행한 지율 스님은 "강을 순례하다보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광경이 많은데 이 모습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하지만 우리의 외침이 절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절대 안 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정부가 요즘 들어서 끊임없이 공부를 시킨다. 강으로 오게 해 강의 소리를 듣고, 강에서 들은 소리를 전하게 하려고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한다"며 "우리가 생명들과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4대강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강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강을 먼저 알아야 한다. 답사를 통해 기획 · 분과위원들의 분과주제별 방향 설정을 도모하고 전체일원의 집중된 팀웍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죽비와 목탁

불자들이여! 본분사 밝히자

구랍 28일, 북한산 회룡사에서는 뜻깊은 법회가 열렸다. 탄허 스님이 토를 단 <대방광불화엄경> 점안식이 화엄학연구원장 각성 스님이 법주로 봉행된 것. 이날 회룡사 주지 성견 스님과 교림출판사 서우담 대표를 비롯한 사부대중은 해외 50여 개국 280개 대학도서관과 국내 600여 도서관에 이 경을 법보시하겠다고 발원해 새해 벽두부터 한국불교 세계화의 청신호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스님과 지성인 불자들, 불교언론들이 잇따라 문제제기 하고 있는 '천도재의 상업화'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 제1 교구본사이자 외국인들의 필수방문 코스가 된 성지가 49재를 일곱 번 지내는 343일 천도재 등으로 '기복불교의 온상'이란 비판에 직면한 것. 만성 부채 해결과 성역화 불사를 위한 재원 마련이란 명분을 주장하지만, 선종 본찰의 사격에 걸맞는 수행풍토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해를 맞으며 두 사찰의 '부처님 일'(佛事)을 볼 때, 우리 부처님 제자들의 본분사(本分事)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된다.

조주 선사는 "만약 사람들의 근기와 수준에 맞추어서 이치를 이야기하자면 불교에는 3승 12분교(三乘十二分敎)가 있다. 그러나 나는 다만 본분사로써 사람들을 만날 뿐이다"라고 했다.

본분사란 사람의 본래 성품인 불성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본분에 들어가게 하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의 불사이다. 한암 스님은 출가 사문의 본분사를 '참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의 5대 강목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마음 밝히는 본분사를 망각한다면 사찰도, 불교단체도, 불교언론도 존재 이유가 없다.

경인년에는 모든 불자들이 백호의 기상으로 본분사를 밝히는 데 매진하길 기원한다.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com

보광·정산·세영 스님 '선출'

조계종 선관위, 8일 제14대 직능직 의원으로



보광 스님.



정산 스님.



세영 스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1월 8일 직능직 종회의원 행정분야에 세영 스님(여주 신륵사 주지), 문화 분야에 정산 스님(부산 동명불원 주지), 선원 분야에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보광 스님은 1951년 출생,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1970년 분황사에서 동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대성사 주지와 대각회 이사를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와 정토사 주지를 맡고 있다. 재적본사는 조계사다.

정산 스님은 1958년 출생, 양익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1981년 통도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개운사, 모은암 주지, 총무원 호법부 정보국장, 범어사 사획국장,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명불원 주지로 재적본사는 범어사다.

세영 스님은 1955년 출생해 정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6년 용주사에서 정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제11 · 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여주 신륵사 주지로 있다. 재적본사는 용주사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능대표 율원분야의 진원 스님이 1월 7일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출을 다시 치를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실용신안특허의기술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안에
금강경 차곡차곡 !!!

법륜대 복장에 모실 금강경 수

지금 수미단 좌우 법륜대 안으로 금강경(1,080권)을 봉안하는데 줄이 연이어 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석문의범과 전생록에 기록된 개개인의 금강경 묵은 빚을 해탈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각각 다른 숫자로 복장하여 법륜대를 직접 돌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가족포교 가장 취약… 원력 有 · 방법 無

조계종 포교연구실 '2009 수도권 사찰 포교역량조사 세미나'서 드러나

부처님은 초전법륜을 시작한 이래 45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은 불제자의 의무이자 숙제로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포교 성과는 늘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가운데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포교대상인 가족 포교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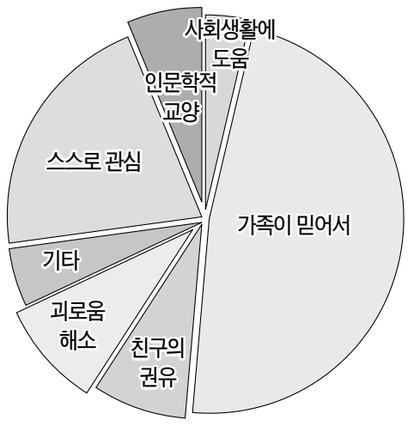
구랍 21일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연구실장 정호)이 개최한 '2009 수도권 사찰 포교역량조사 세미나'에서 '사찰신도의 신행의식과 포교연관성'을 주제 발표한 박경희 교수(수원과학대학 전자과)는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가족의 영향이 48%로 가장 높지만 불자의 가족 종교 현황에서 종교를 믿지 않고 있는 비율은 부모님 18%, 배우자 33%, 자녀 41%로 가족의 종교 영향이 줄어들었다"며 "각 사찰에서 가족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이나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포교 사업을 거창하게 구상하기 보다는 내 가족에 대한 포교, 이웃에 대한 포교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찰에서는 포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신도 스스로 포교 원력을 세울 수 있도록 신도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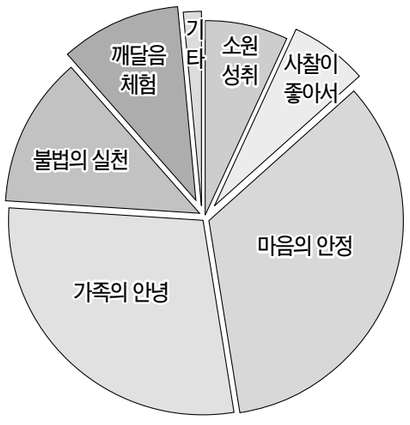
박 교수의 조사 내용 중 '주변 사람에게 불교를 믿도록 권해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90% 정도가 해봤다고 답했지만 실질적으로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서 주변의 권유에 의한 입문은 7% 내외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사찰 신도들이 포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시도는 해봤으나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며 "포교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포교를 굳건한 원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의 '2009 수도권 포교역량조사 및 종책방향 연구'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남전 스님(포교원 포교국장)은 "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등 온 가족이 참여하는 법회가 필요하다. 소규모 사찰을 위한 가족 법회 등에 대한 종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심지역의 사찰에서 실현 가능한 가정법회, 가족들 전체 상담 등 여러 측면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사찰 중에서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20% 수준으로 일부 대형 사찰을 제외하고 법회 참석 인원이 10~20명 수준에 불과하고 시험 때가 되면 참석인원은 5명 내외인 것이 일반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찰 신도의 연령이 대부분 4~50대가 70%로 많은 반면 20대는 불교에 대한 관심도와 수용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종교적 성향이나 선택에 있어 가족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가정법회가 계층 포교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



신행하는 이유

신행활동 역시 가족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경희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찰에 소속된 불자들은 '마음의 안정'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신행 생활을 한다는 답변이 63%를 차지했다. 그 밖에 '불법의 실천'이 12.5%,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의 체험이 10%를 차지했다.

김영일 포교원 차장은 토론에서 "건강한 신체와 편안한 마음, 화목한 가정은 불교 또는 종단, 스님, 불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를 과제로 던져준 조사결과"라며 "아주 사소해 보이는 듯 한 불자의 고민과 관심을 지극히 당위적인 논리나 고담준론의 교리적 권위로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행에 따른 포교 역량 또한 다르게 나와 눈길을 끈다.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수능, 백중기도와 염불 · 독경 · 주력이 각 19.6%, 예불 16.3%, 절 수행 14.2%인 반면 참선 명상은 7.2%로 낮게 나타났다. '염불, 독경, 주력'을 주로 하는 집단은 포교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컸다. 반면 참선 · 절 수행을 위주로 하는 그룹은 포교를 전혀 안했다는 대답을 가장 많이 했다. 그 밖에도 교육이 심화 될수록 교리적 지적 호기심에 매몰돼 포교 활동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발표돼 불교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경희 교수는 "근본적으로 종단의 신도 교육이 기본교육과정과 전문 과정에서 지나치게 교법에만 치중돼 있으며 각종 자격제도는 교육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문자반야와 교리에 집착하고 실천이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교육제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87%가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다'고 답했지만 '불법에 따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0%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응답해 불법을 삶에 적용 하는데 어려워 한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김영일 차장은 토론에서 "불교가 가장 친근하고 호감 있는 종교로 뽑히면서도 실제 불자 증가나 사회적 영향력과 일치하지 않는 불교의 현실을 나타낸다"며 "'포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종단의 모든 구조나 조직 체계는 포교를 중심으로 구성 돼 있는가? 주지 인사, 사찰의 재산관리, 논의와 결정 체계 등 모든 것이 '수행과 전법'을 위해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이상언 기자

새터민 100명 불자로 거듭나

포교사단 하나원서 수계식 봉행


안성 하나원 새터민 교육생들 전원이 한복을 입고 수계식을 봉행했다.

안성 하나원 새터민에서 100여 명이 불자로 거듭났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 통일분과 통일 2팀(팀장 홍성란)은 1월 3일 안성 하나원에서 천안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을 계사로 불자 교육생 수계식을 봉행했다.

마가 스님은 법문에서 "오계를 잘 지킬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 며 "날씨가 춥다고 겨울을 잘 견디지 못하면 봄에 꽃을 피우지 못하듯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교육생은 "아직 불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님 말씀처럼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진실되게 살 것" 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봉은사 신도회 발대식서 재정공개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는 1월 7일 보우당에서 불기 2554년 신임 신도회장 이 · 취임식 및 신도회 발대식을 봉행하고 봉은사 2009년 재정 등을 공개했다.

이날 취임한 송진 신도회장은 "봉은사는 3년간 재정공개와 주지 명진 스님의 천일기도 등으로 청정도량으로 거듭났다"며 "한국불교 중흥의 중심도량으로 더욱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명식에서 명진 스님은 "스님들은 수행과 기도에 전념, 신도와 종무원들이 행정을 전담하는 이상적 도량이 되도록 일치단결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봉은사는 2008년 대비 10.8% 증가한 116억 7000여만 원의 2009년 재정수입액을 공개했다.

노덕현 기자

100字 뉴스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신규사찰 접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월 11~19일 2010년 템플스테이 신규운영사찰 신청 접수를 받는다.

템플스테이 사업 운영 사찰은 20인 이상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당, 강의실, 숙소와 화장실, 세면장을 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02)2031-2022

조계종 포교원 포교사 고시 응시자 모집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월 20일까지 제15회 일반포교사 고시 응시자를 모집한다.

응시자는 1월 11~20일까지 응시원서, 수험표, 자기소개서 등 신도전문교육기관, 불교대학 교학처, 포교원 등에 접수하면 된다. 포교사 고시는 2월 21일 서울 동국대 등 전국 8곳에서 시행된다. (02)2011-1894

불교생명윤리위 "동대 약대 설립 재단 참여"

정부의 신설 약학대 발표가 1월에서 2월로 미뤄진 가운데 불교생명윤리연구소(소장 진관, 이하 연구소)가 "동국대의 약학대 유치에 동국대 재단(이사장 정련)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1월 6일 성명서에서 "동국대에 약학대학이 들어서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불교가 책임진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며 약사여래불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병무청 19일부터 불교 군종부사관·병 모집

병무청은 육해공군 불교 군종부사관과 군종병 모집일정을 발표했다. 육군 군종부사관은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능 하다. 육군 군종병은 3차례에 걸쳐 모집하며 2월 1일~16일 1분기 모집(6명 모집)을 시작으로 5월 3일~18일, 8월 2일~16일 총 1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공군 군종병은 2010년 1월 13일까지 총 4명을 모집하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포항불교사암련 16일 1080배 정진 법회 봉행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문)는 1월 16일 오후 2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포항지역 30여개 사찰과 10여개 신행단체 스님과 불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와 종교간 화합을 기원하는 '제5회 화합으로 하나되는 세상, 1080 정진 대법회'를 봉행한다.

종단협 한국불교 소개책자 '한국불교' 출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가 G20정상회의 등 세계인의 한국 방문을 예상해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안내책자 <한국불교(Korean Buddhism)>를 출간했다. 사진과 자료를 통해 한국불교의 수행과 의식 등을 담은 안내책자는 해외사찰 및 템플스테이 사찰을 중심으로 무료배포 될 예정이다. 종단협은 "한국불교에 생소한 영미권 독자들에게 간화선 등 수행과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 한국불교사 및 사찰 안내 등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동방불교대학 2010학년도

「역경학과」(2년제) 개설 및 신입생 모집 안내

본교는 한역불전의 올바른 번역과 이해를 통하여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기성 종도들의 재교육을 심화 · 활성화함은 물론 불교교리의 현대화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역경지도자를 양성한다는데 뜻을 모아 금번 2010학년도부터 「역경학과」(2년제)를 개설 · 운용합니다.

역경(譯經)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전, 즉 경 · 율 · 론 삼장(三藏)을 현대적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일컫습니다. 금번 본 대학의 「역경학과」 개설은 본 대학을 졸업한 동문을 비롯하여 본 종단의 기성종도와 그에 준하는 출 ·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불전번역의 진수를 배우고 익혀 졸업과 동시에 한역불전의 체계적인 번역과 불전사상의 집중적인 탐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근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태고종단은 물론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본 대학이 중점교육의 지표로 삼아 새롭게 개설한 「역경학과」의 첫 주역들을 선발하고 있는 바, 인연있는 분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다립니다.

Ⅰ. 모집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09. 12. 28(월) ~ 2010. 2. 18(목)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0. 2. 18(목) 18: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전형(필기 · 실기 · 면접)	2010. 2. 19(금) 10:00 ~ 17:00	• 본교 강당 및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10. 2. 22(월) 14: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Ⅱ. 지원자격

1. 모집대상은 출-재가불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단, 출가자는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자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재가불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이어야 한다.
2. 정규반과 통신반을 공히 함께 모집한다. 통신반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로 학습한다.

Ⅲ. 교육과정 ※ 전공필수과목은 1과목당 2강좌(200분) 연속 집중강의

과정 \ 학기	1-1	1-2	2-1	2-2
교양필수	불교학개론	종요	비교종교학	대승사상론
전공필수	한자학	불전한문법	역경강해	불전선독Ⅱ
	역경연습Ⅰ	역경연습Ⅱ	불전선독Ⅰ	조사어록 · 선시특강
신행공통 (월1회)	신행실수 · 출석교육	신행실수 · 출석교육	신행실수 · 출석교육	신행실수 · 출석교육

Ⅳ. 교과목해설 ※ 교양필수과목은 기존 교과목해설에 준함

한자학 한자의 생성원리와 형(形) · 음(音) · 의(意)의 변천을 연구하여 한문문장의 해독능력 등을 익혀 궁극적으로 불교한문을 이해하도록 한다.

역경연습Ⅰ,Ⅱ 한역문장의 어휘 · 용어 · 문법 · 구조 등을 중심으로 불전의 정확한 한글번역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관련문헌의 역경을 집중 연습한다.

불전한문법 불교한문의 일반상식과 한역경전의 독해력을 습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문법학습을 통해 불전읽기와 사상의 이해를 돕는다.

역경강해 한역불전을 선별하여 여러 번역본과 대조 탐독하면서 이를 통해 부처님 설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문원전에 대한 독해력을 향상시킨다.

불전선독Ⅰ,Ⅱ 한역불전을 선독하면서 한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독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불전이 갖는 사상과 철학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한글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조사어록 · 선시특강 한국과 중국의 조사어록 및 선시를 선별하여 강독 · 연구한다. 조사어록의 번역실습을 통해 출가수행자가 지녀야 할 근본정신과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바른 길을 이해하고 나아가 불교문학작품을 집중 강독하면서 그에 내재되어 있는 불교의 제요소들을 살펴본다.

Ⅴ. 교수진

한자학 : 안재철(제주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역경연습Ⅰ,Ⅱ : 김수암(제주대 철학과 · 중문과 외래교수/태고종 교육위원장)
불전한문법 : 안재철(제주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역경강해 : 김수암(제주대 철학과 · 중문과 외래교수/태고종 교육위원장)
불전선독Ⅰ,Ⅱ : 박상준(동국대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단 전임연구원)
조사어록 · 선시특강 : 박상준(동국대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단 전임연구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온 · 오프라인 공통)을 참조하거나 교학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02)745-2030~2 홈페이지 www.dongbang.org

동방불교대학 2010 신입생 모집요강

Ⅰ.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 · 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자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재가불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이어야 한다.
2. 불교학과 · 승가학과 · 역경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 지원할 수 있다.
3.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는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역경학과 제외)을 이수해야 구족계 수지자격(정식 승려증 발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4. 상기 3항의 의무사항을 충족한 본 종단의 기성승려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선덕 또는 중덕법계를 품수한다.
5. 모든 학과의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 기에 따라 후기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승가학과	0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역경학과	0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00명	3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09. 12. 28(월) ~ 2010. 2. 18(목)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0. 2. 18(목) 18: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전형(필기 · 실기 · 면접)	2010. 2. 19(금) 10:00 ~ 17:00	• 본교 강당 및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10. 2. 22(월) 14: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Ⅳ. 전형료

1. 불교학과 / 승가학과 / 역경학과 : 50,000원
2. 범패학과 / 불교미술학과 : 60,000원

Ⅴ. 특전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역경학과 제외)을 이수하면 구족계 수지자격(정식 승려증 발급자격)을 부여받는다.
2. 상기 1항의 의무사항을 충족한 본 종단의 기성승려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선덕 또는 중덕법계를 품수한다.
3. 불교학과 · 승가학과 졸업생에게는 학장이 발행하는 불학사(佛學士, 출가자) 또는 교학사(敎學士, 재가자)의 학위를, 역경학과 졸업생에게는 학장이 발행하는 역경사(譯經士, 출 · 재가자 구분 없음)의 학위를 수여한다.
4. 범패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5. 모든 학과 졸업생에게는 태고종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6. 범패학과 2학년생은 본교가 개설 · 운영하는 범패연수과정(1년)을 등록 · 수강할 수 있다.
7. 불교미술학과 재학생은 본교가 개설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국가고시) 등에 대비한 특강을 등록 · 수강할 수 있다.
8. 성적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자세한 모집요강은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02)745-2030~2 FAX:(02)744-3461
홈페이지 www.dongbang.org

산란 · 산만 떨쳐 '행복' 해지자

활인선원 청소년 선수련회 단기출가 현장



단기출가 학생 행자에게 참선 자세를 지도하고 있는 활인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

단식·묵언·108배 등 강도 높은 수행으로 '자신감' 얻어
먹는 양 줄이고 화두 드는 생활 다짐… "생활이 수행"

"수능을 마치고 살이 더 쪘어요. 식탐이 많았지만 스님 말씀과 죽염 위주로 단식수행을 해 보니 생각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삶의 1차 관문인 수능을 준비하며 힘들어 했던 이유도 알았어요. 삶의 바탕이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김수현, 창덕여고 3)

"둘째 날 월봉 거사님이 등을 두드려 주시는데 와락 눈물이 쏟아졌어요. 단식 보다 묵언이 힘들었지만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갔어요. 앞으로는 화두를 들어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상지, 김해외고 1)

"먹는 것이 건강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강조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 단식에 대한 거부감을 깼습니다. 잘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과도한 식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선자, 경남 진주)

"힘들게 생각했던 단식이 첫날 법문을 들으며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법문을 듣고 단식을 하루하루 진행하다보니 정신은 맑아져 오고 몸은 가뿐해졌습니다. 스스로 '단식체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절식을 하며 존리욕구에 맞는 절제된 식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만, 용인 수지)

행복제작소 안성 활인선원(선원장 대효, 1644-5266) 법당에서 눈물과 웃음이 터져 나온다. 구랍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진행된 '제2차 청소년 선 수련회 단기출가'에 참석한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새벽 3시 30분 기상, 새벽 4시 참가자 전원은 도량석을 돌며 비봉산의 새벽을 깨운다. 이어 새벽예불, 요가로 심신을 정리하고 지난 법회 때 녹취된 대효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좌선을 한다. 또한 108배, 산행정진, 헌공, 법회, 중단반조(中斷返照), 소참법문에 '단식'과 '묵언'이라는 엄격한 규칙이 포함된다. 결코 쉽지 않은 수행길이다. 법회 진행자들도 해병대 훈련보다 더 강도가 높은 수행이라고 말할 정도다.

행자들은 입방을 하고 단식 하루가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기운이 빠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하루 3끼, 때로는 4, 5끼의 식사로 삶을 지탱해 갔던 수행자들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반짝이는 목탁이 사과로 보이기도하고 나지도 않는 음식냄새를 맡기도 한다. 배고픔은 참겠는데 묵언하는 것은 더 힘들다고 느낄 때 즈음이면 대효 스님의 법문이 행자들을 일깨운다. 스님의 법문 범위는 고정돼 있지 않았다. 단식 3일째 새해가 밝았다.

"기운이 났는가? 났던 힘이 도로 들어갔는가?" 스님의 점검이 시작됐다.

자죽염(紫竹鹽)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눈빛은 가지각색이다. 초롱초롱한 눈빛, 의지를 불태우는 눈빛, 기운 빠져있는 눈빛,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본다. 스님도 학생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통찰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공부를 못 한다' '나는 무능력하다' 라며 자책하다가 성적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는 이유는 산란과 산만에 있다. 산란 · 산만은 자신의 능력을 망각시키고 송두리째 빼앗아버린다. 산란함은 허전, 허함을 부르고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삼매(samata, 三昧)에 있다. 삼매는 시공을 초월하는 지혜를 낳는다."

스님의 말씀이 모두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학생들은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었다.

활인선원에서 단식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수단이 아닌 확실한 수행의 일환이다. 밥 먹듯 생각하고, 느꼈던 '허함'과 '지침' '고달픔' '우울함' 등은 '밥을 먹지 않으니 배고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극명하게 밝혀준다. 하루 3끼를 넘어 4, 5끼의 식사가 나를 지탱해 준 것이 아니라 산란한 마음이었던 것이다. 희로애락도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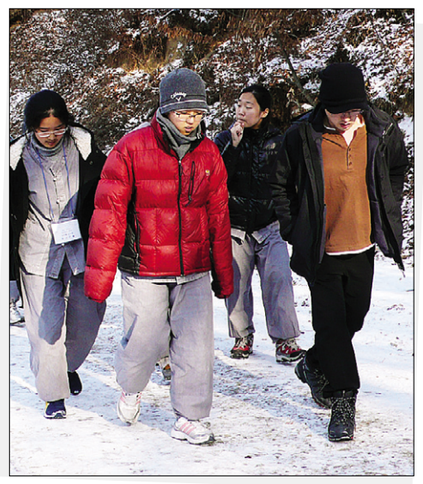
스님은 "우리는 위가 비어있는 것을 '배고프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배고프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배고프면 '기운이 빠진다' '기분 나쁘다' '먹고 싶다' '만사가 귀찮다' '짜증 난다' 는 마음을 일으킨다. '배고프다'를 '마음'으로 보지 않고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먹고 있다. '마음'은 고쳐먹으면 된다. 지혜는 밥을 못 먹은 것도 해결한다"는 법문으로 법회 때마다 참가자들을 일깨운다.

중단반조(中斷返照)는 단기 출가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스님은 "기는 사람이 기는 것을 중단하면 걷는 길이 열린다. 걷는 사람이 걷기를 중단하면 달리는 길이 열린다. 중단은 파멸, 절망, 좌절이 아니라 향상(向上)이자 삶의 도약이다. 중단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한다"고 말한다. 치열하게 때론 처절하게 경쟁하며 쉬지 않고 달려야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다고 생각해왔던 학생과 부모님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가는 중단반조다. 스님은 "실패가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다. 시행착오는 미래에 대한 예방 주사"라며 "인생의 기로에 서있는 청소년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수행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중단(中斷)'과 '반조(返照)'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등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하지는 못한 채 방황 해야만 했던 청소년들. 문제점만 알고 해결책을 줄 수 없었던 어른들 모두 조금씩 답을 찾아갔다. 오직 먹기 위한, 살기 위한 행군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기 시작했다.

회향 하루 전. 부모님과 학생들은 묵언과 단식이 익숙해져 있었다. 말을 안하면, 밥을 안먹으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산란한 마음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해 갔다. 마지막 날 스님은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주셨다. 대효 스님은 "화두를 참구할 때는 '잘 해야 한다'는 생각도 '안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하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할 것도 없는 것이 화두참구다. 나한테 다가온 사실로 받아들이면 아주 분명한 상태가 된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복잡하게 살았던가?' 를 보라. 의심하는 것을 구체화하라"고 끊임없이 주문한다.

스님은 화두참선을 긴 시간동안 진행하지 않았다. 짧게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학생들에게 묻는다. 아직은 낯선 듯해 보였지만 비교적 쉽게 접근했다. "해보니 어때?" 스님은 바로 물어보셨다. "잡념은 없어지고 화두만 들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바닥만 본 것 같아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첫 화두 참구에 대한 소감을 쏟았다. 이에 스님은 "생각 안하려고 하지 말라.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한 생각 의심만 하라"고 말한다. 말씀이 끝나자 학생은 "화두만 들고 의심했어요.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라고 대답한다. 대효 스님은 "어린애가 어른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같다. 더 가다 보면 된다. 힘든 제약조건에서 항상 지혜를 발휘하라. 절 안과 밖은 다르지 않다. 화두 참구를 반드시 생활화하라"고 당부했다. 스님의 법문은 부모의 마음자세, 행동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부모님들에게는 더 큰 혜명을 밝혀주곤 했다.

회향날이 되자 학생 행자, 부모님 행자들의 얼굴에 밝은 빛이 감돌았다. 생애 처음으로 해보는 묵언과 단식수행, 목탁을 쳐보고, 반가부좌의 자세로 10여 시간을 앉아 법문을 들었던 스스로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졌다. 4박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학생과 부모님들의 마음 모판에 우주를 품을 '살아있는 나'의 새 씨앗을 심었다.



학생 행자들이 산행 정진을 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대한불교 범종단 연합회

수석상임고문 **박법열** (대한불교 조계종 법황사 조실)

총 재 **도 산** (한국불교 태고종 수정사 조실)
부 총 재 **석 지** (선불조계종 종정)
회 장 **지 암** (해동불교 임제종 종정)
부 회 장 **화 담** (대한불교 불교종 종정)
부 회 장 **청 파**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부 회 장 **박도산** (대한불교 임제조계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해 광** (한국불교 자비종 총무원장)
감사원장 **위 산** (대한불교 위앙종 종정)
호법원장 **도 오** (한국불교 임제 조계종 총무원장)
문화원장 **법 광** (한국불교 대승조계종 총무원장)
복지원장 **효 주** (선불조계종 총무원장)

비구니회 법사회 범종회 전국신도회 청년회
봉사단체 자매 자비실천운동본부 (자비실천어머니회, 자비실천봉사단, 108자비문화예술단)
범종회 행사 영산대재 및 산신재 (국태민안경재발전기원대법회)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수계법회 및 문화행사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본부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3-4번지 청암사

사무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126번지 자비사
연수원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화사 (동양최대 아미타불 봉안도량)

이웃 종교 RELI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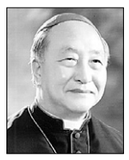
"참 신앙으로 봉사하세요"

가톨릭·원불교·개신교 지도자 신년메시지

경인년 새해를 맞아 가톨릭, 원불교, 개신교 등 이웃종교 지도자들이 신년메시지를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한결 같이 참다운 종교생활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할 것을 당부했다.

#정진석 추기경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면 행복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사진)은 서울대교구 주간 소식지인 '서울주보' 1월 1일자를 통해 신년메시지를 전했다.

정 추기경은 "희망찬 2010년 새해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문제는 행복이 아닌 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이들이 그릇된 욕심으로 화를 부르고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 추기경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마태오복음 5장3절)고 말씀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난한 삶이란 겸손한 자세로, 그릇된 욕심과 애착을 갖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비운 삶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행복하다고 가르친다"며 " 행복은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마음의 자세로 좌우되는 것이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위로와 희망도 발견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원 교정원장
법문과 생활 하나 되길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사진)은 새해를 맞이해 "재가 출가 전 교도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의 건강과 행복, 법력 증진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금 교단은 원불교백년성업을 6년 앞두고 있다. 종법사님을 위시해 전 재가 출가 이 일의 원만 성취를 위해 지심 기원하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교정원은 앞으로 3년의 교정을 자율과 책임, 공의와 협력의 정신이 교단 전체에 확장되고 대종사님의 교법정신에 입각한 교단의 제도운영으로 교화대불공·백년성업·교단혁신을 통해 튼실한 교단, 주세교단의 역할을 다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교화대불공은 종법사께서 경륜으로 제시하신 교단적 방향으로 교단 백년의 핵심적 의제다. 이를 위해서는 대종사께서 교화경륜으로 내놓으신 교화단과 훈련의 교법정신을 철저히 현장에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교정 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엄신형 목사
새 사명을 헌신과 열정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목사·사진)는 2010년 신년하례예배를 갖고 민족의 미래를 책임감과 헌신 그리고 열정으로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기총은 1월 4일 오전 여전도회관 2층 루이시홀에서 교계지도자와 한기총 임역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신년하례예배를 가졌다.

이용호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정금출 장로(공동회장)의 대표기도와 박홍자 장로(여성위원장)의 성경봉독으로 엄신형 목사가 '앞을 향하여'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엄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삶은 전쟁터이자 일터이며 경주장이다"라며 "전쟁터에서는 신앙으로 승리하고 일터에서는 충성하며 경주장에서는 앞서가 본을 보임으로써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2010년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사랑과 나눔 정신 되새겨요"

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년 추모행사 '다채'

故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다양한 추모행사를 마련했다.

서울대교구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주기인 2월 15일부터 예수부활 대축일을 한 주 앞둔 주님수난성지주일인 3월 28일까지를 공식 추모기간으로 지정했다.

추모기간 동안 서울대교구는 15일에는 명동대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을 주례로 추모미사를, 21일에는 용인공원묘원 성직자 묘역에서 추모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 추기경 생전의 다양한 활동을 담은 사진전, 유품전, 소장미술품전 등을 열어 김 추기경의 자취를 따라가보는 행사를 마련했다.

'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주기 준비위원회(위원장 안병철 신부)'는 "김 추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고 추기경께서 몸소 보여줬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미사와 다양한 추모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돈만 기부? 이제 기술도 기부 OK

'서울디딤돌 사업' 눈길… 불교계 옥수복지관 등 14곳 참여

돈이 아닌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기부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신개념 기부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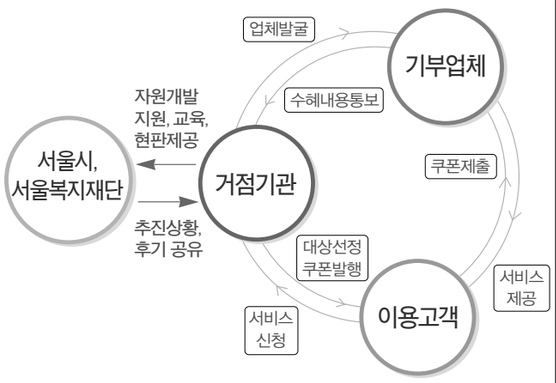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저소득층 주민과 각종 상점, 기업을 직접 연결해 실시중인 복지서비스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이하 서울디딤돌)'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는 2008년 8월 서울시내 87개 복지시설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125개의 기부업체와 함께 서울디딤돌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거점기관들이 병원, 약국, 학원, 극장, 음식점, 미용실, 목욕 탕 등 인근 중소규모 상점의 기부를 이끌어내 해당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과 인연을 맺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디딤돌사업은 시행한지 17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개 거점기관과 2333개 기부업체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 속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딤돌사업은 특정 거점기관이 지역주민들의 추천자나 자발적인 신청자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선정된 저소득층 시민, 홀몸 노인, 소년소녀 가장은 거점기관에서 발행한 쿠폰(바우처, 지불 보증 전표)을 수령해 해당 기부업체의 서비스와 물품을 무료나 싼값에 지원 받는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에는 '아름다운 이웃 ○○호점'을 알리는 현판이 붙으며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지역	기관명	연락처
강남구	능인종합사회복지관	(02)571-2988
광진구	광진노인종합복지관	(02)466-6242
광진구	자양노인복지관	(02)458-1664
구로구	궁동종합사회복지관	(02)2613-9367
구로구	구로종합사회복지관	(02)852-0525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7
도봉구	서원종합사회복지관	(02)3494-4755
동작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2)817-8052
성북구	성북장애인복지관	(02)915-9200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	(02)985-0161
성동구	옥수종합사회복지관	(02)2282-1100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	(02)421-6077
영등포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02)831-2755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02)742-9500

불교계에서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등 14곳이 참여 중이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김순덕(75세·서울 성동구)씨는 "복지관에서 받은 쿠폰을 이용해 자장면이나 갈비탕을 먹고 목욕탕과 미용실도 이용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을 챙겨주는 사람이 동네에 많아서 참 고맙다"고 말했다.

디딤돌사업의 특징은 사업에 참여한 자영업소들이 현금을 내거나 특별한 형식에 맞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예를 들면 '매월 5명에게 갈비탕 한 그릇씩 주기'나 '매월 2명에게 학원 수강권 제공하기'처럼 업체별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마음만 있으면 작은 정성을 주변에 나눌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디딤돌사업을 통해 월 100명 이상의 지역 내 어르신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해 온 '이상희 헤어팝'의 이상희 원장은 "처음에 디딤돌사업 홍보지를 보고 옥수복지관을 찾게 됐다. 내가 가진 기술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복지관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시간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배운 기술로 행복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다.

옥수종합복지관 관장 상덕 스님은 "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지역 내 기부업체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디딤돌 사업은 한정된 서비스제공이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서울디딤돌 홈페이지(didimdol.welfare.seoul.kr)에서 가까운 거점기관을 찾거나 서울시복지재단(02-2001-0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나은 기자

다문화 통합 기본법 제정·발의

다문화센터 자문위원장 진영 의원 밝혀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성(姓)과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언어를 존중하는 다문화 통합 기본법안이 발의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권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자문위원장인 국회 다문화포럼 대표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구랍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 중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제정·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영 의원은 "2009년 5월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10만 6884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섰다. '유엔 미래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이주민 숫자가 2050년에는 1000만 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부 등 공공기관은 헌법 제6조 및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감독하며, 인종차별 행위의 금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 및 행정시스템의 정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 정책의 실무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보호시설과 다문화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문화 통합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이런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대다수가 법안 제정 사실을 모르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다문화 찬성론자들끼리 법안을 만들고 발의를 한다'는 등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것도 법률 정착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광진노인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노인들의 정신안정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건강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을 모집한다.

복지관은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도우미, 사서도우미, 사랑나눔복지도우미, 교육강사, 엄마손간병도우미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월 15일~2월 10일이며 복지관에 내방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02)466-6242

이나은 기자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서울도량 개원법회 및 신입생 모집

우학스님 (불교대학 학장. '저거는맨날고기묵고' 저자) 직강 (동안거 해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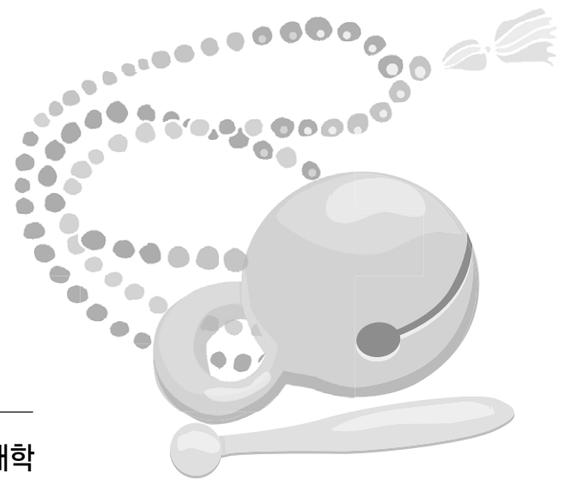
1.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2. 누구든 동참 환영

◆ 개원일시 : **2010년 1월 23일(토) 오후 2시**

◆ 위　　치 : 제기동 불로장생타워 4층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2번출구)

◆ **신입생모집 1기 –** 매주 화요일 오전반 1월 26일(화) 오전 11시
2기 – 매주 목요일 저녁반 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 문의 : 서울도량 02)6456-7228, 대구큰절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왜색불교는 빈약한 주체성의 결과"

한상길 연구교수, 日 '일본사상사'에 한국인 최초 논문 게재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반백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왜색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불교도 마찬가지. 근현대의 일부 선지식을 비롯해 불교의례 · 사상 · 문화 어느 분야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가운데 한상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일본의 대중학술지인 계간 <일본사상사>에 기고한 논문에서 근대 한국불교와 일본불교의 관계를 정리했다. 특히 한 연구교수의 논문은 한국인로는 처음으로 계간<일본사상사>(제75집)에 논문이 게재됐다.

한상길 연구교수는 기고논문 '근대 한국불교에 미친 일본불교의 영향(近代韓國仏教に与えた日本仏教の影響)에서 "근대에서 일본불교가 한국불교에 깊숙이 침투해 자주적 민족불교 수립을 저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정략적이고 적극적인 포교와 한국불교의 빈약한 주체성이 빚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 국 불 교 사 에 서 근 대 는 1870~1945년까지를 가리킨다. 19세기말은 내적으로 조선후기 불교의 새로운 부흥 기운이 싹트고 외적으로는 개항을 계기로 일본불교가 해외포교를 시작한 시기이다.

근대불교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지난 10여 년간 일본 종파의 포교와 불교계의 변화, 사찰령의 실체와 의미, 제국주의 불교정책 등 근대불교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시도됐지만 결국 '친일과 항일' 문제로 귀결됐다.

한상길 연구교수의 논문은 친일과 항일의 이분법적 입장에서 보면 '친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대로 친일 · 항일의 분별을 떠나 역사를 현상 그 자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이다.





한상길 연구교수(오른쪽)와 논문이 게재된 <일본사상사> 제75집.

한 연구교수는 논문에서 '친일'이 근대불교 형성과정에 어떤 작용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주목했다. 한상길 연구교수는 1911년 사찰령을 기준으로 1877~1910년까지의 개화기와 사찰령 제정 이후 식민지불교가 고착화되다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1920년대를 나눠 분석했다.

일본불교의 최초 한국상륙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이듬해인 1877년 일본 정토진종 본원사의 오쿠무라엔신(奧村圓心)이 부산의 일본 영사관 관사에 본원사 부산별원을 운영하면서 부터이다.

오쿠무라는 한국 근대불교의 전개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가 남긴 <조선국포교일지>는 개화승 이동인, 탁정식 등을 연구하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본원사 부산별원은 개원부터 한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매일 5~10명의 한국인이 별원을 찾았을 만큼 포교거점으로는 성공적이었다.

한상길 연구교수는 "일본 종파가 포교를 시작하면서 공통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자국민들을 포교 · 교화한다는 이유였다"면서 "이는 허울뿐으로 실제로는 국가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연구교수는 "한국불교가 근대불교로의 전환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불교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접근에 쉽게 동화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오랜 억불정책의 결과 교단은 사라졌고, 승가는 종교인으로서의 위상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상길 연구교수는 "도성출입마저 금지됐던 암울한 현실에서 일본불교의 조직적인 교단체제와 승려의 공적 신분, 자유로운 종교활동 등은 선망의 대상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연구교수는 "당시 한국인의 눈에 비친 일본불교는 종교적 사명을 지니고 선의를 베푸는 고마운 시혜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동인, 탁정식 등 정토진종의 승려가 된 개화승이 생겨나면서 1896년 7월에는 한국과 일본 승려가 경성에서 무차대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법회를 참관한 이능화는 "간혹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뻐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승려는 수백년 동안 문외한의 신세였는데 오늘에 와서 비로소 구름을 타고서 하늘을 바라보게 됐으니 이로써 불일(佛日)이 다시 빛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한상길 연구교수는 "'불교근대화노선'은 암울했던 근대불교의 현실을 긍정적 역사발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고뇌의 산물"이라면서 "학계는 근대불교 연구에 앞서 '근대불교'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길 연구교수는 "근대화 격동기에 종단건립과 교육기관 정비, 포교소 설립 등 한국불교의 근대화는 총독부의 인정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근대 한국불교의 성격을 친일과 항일의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면 이미 그 연구의 방향과 의미가 고착화돼 다양한 시대상과 가치들을 조명하는 학문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근대불교를 친일불교라는 평가절하된 개념으로 규정하는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연구교수는 "근대화의 명목으로 반민족행위가 모두 용인돼서는 안된다"면서 "불교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과 가치에 대한 정당한 조명이 전제될 때, 한국 근대불교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해인사 교구 문화재 모음집 발간

조계종 최초… 성보문화재 관리 '새 전형'

조계종 최초로 특정교구의 문화재가 한 권의 책자로 정리돼, 성보문화재 관리의 새로운 전형이 되고 있다.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해인사 본 · 말사 국가 및 지방 지정 문화재 모음집> 中.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관암)은 최근 해인사 본 · 말사의 성보목록에 기재된 유물 중 국가 및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을 모은 책, <해인사 본 · 말사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 모음집>을 펴냈다.

책에는 교구본사인 해인사(합천지역)를 비롯해 청곡사(진주지역), 벽송사(함양지역), 대원사(산청지역), 심우사(거창지역), 장춘사(함안지역) 등 조계종 제12교구 내 30개 본 · 말사에 소장된 문화재 104건이 지역별 · 사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 수록됐다.

관암 스님은 "모두가 소중한 자연 · 문화유산이지만 그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합천군의 지원을 받아 해인사 본말사가 소장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도록을 편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반출문화재 환수 네트워크 구성

이천5층석탑환수위 '민간환수위 교류회' 열어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이 프랑스 행정법원에서 기각된 날,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시민활동가와 민간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이천5층석탑환수위원회는 1월 6일 이천 설봉공원 내 월전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민간환수위원회 교류 ·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천5층석탑환수위원회를 비롯해 진주 연지사 동종 반환 국민행동,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강희맹(姜希孟)의 독조도(獨釣圖)' 환수운동을 벌이는 시흥문화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천 출신 재일교포 김창진(67)씨가 1915년 일본으로 약탈돼 도쿄 오쿠라 호텔 내 방치된 이천 5층석탑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일본이 약탈해 갔던 중요 문화재가 최근까지 국외에 반환된 사례가 25건에 이른다"면서 "국민의 힘을 모아 국보급 가치를 지닌 이천5층석탑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진왜란 당시 수탈당한 경남 진주 연지사종과 조선왕실의궤, 독조도 등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각 단체의 활동이 소개됐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해 국내 · 외 단체와 네크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9월경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문화연대(공동위원장 강내희 · 중앙대 교수, 김명신 ·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국립도서관 소유 재산은 국가재산이므로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문화연대 황평우 유산위원장은 "항소를 검토 중이나 개인 모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민간 차원서 소송이 진행중일 때 정부가 나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신흥사 동종 등 도문화재 지정

전남도 구랍 31일 발표

전남도(도지사 박준영)는 "장흥 신흥사 소장 정방사명 동종 등 유형문화재 2건과 유형문화재 1건 등을 새로 지정했다"고 구랍 31일 발표했다.

전남도 문화재 제304호로 지정된 신흥사 소장 '해남 정방사명 동종'은 1751년(영조 27)에 조성됐다. 조선후기 문화재이지만 고려시대 걸작인 보물 제88호 탑산사종과 상당한 친연성이 느껴진다. 다만, 신흥사 동종은 고려 종에 비해 구경이 넓고 상대와 유곽사이에 범자문이 있으며 유곽사이에 보살입상이 있다. 특히 단아한 몸체와 정교한 문양 등은 조선종으로서는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된다.

종을 제작한 도편수 윤취오와 윤광형 등은 사장(私匠) 계열의 주종장으로서 17~18세기에 여러 종을 만들었던 집안의 장인으로 보인다. 이들은 장흥 장평면과 장동면 지역에서 17~18세기 무렵 꾸준히 주조물을 조성해 수준 높은 동종과 금고 등을 생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흥 신흥사 동종은 작품으로 한국 금속공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써 가치가 높아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전통문화연수원 교육생 모집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원장 임덕수)은 문화재 수리 · 복원 전문인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대학(대학원) 관련학과 전공 졸업생(20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문화재 수리 기술 및 기능자격 소유자 또는 문화재 수리 등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이다.

모집은 '전통회화 모사 및 지류 · 섬유 문화재 수리 · 복원'과 '전통목칠공예' 분야로 나뉘어 1월 18~22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생 모집요강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tctc.nuch.ac.kr) 참조.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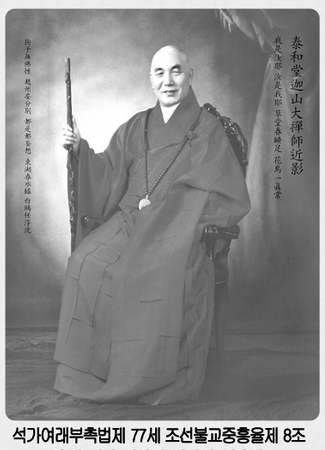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공 고

본 종 종정예하 석가산대종사께서는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인 용성조사의 은, 법, 강, 율 상좌이며 11.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학생대표였던 봉암선사로 부터 유일하게 은, 법, 강, 율을 이어받은 상수제자이시며 가야산해인사와 금강산장안사의 양대 강맥을 전강한 대강백입니다.

또한 대은율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불교율맥의 원조인 조선불교중흥률 제6조인 용성조사로부터 유일하게 전계율연원계법을 전수받은 제7조 봉암선사에게 제8조로 전계율연원계법을 전수받은 한국불교율맥의 전통계승자이시기도 하며 가산대종사께서는 특히 600여년전에 단절되었던 점찰참회법을 중흥해 모악산금산사, 팔공산동화사, 속리산법주사에 전수해 점찰중흥조가 되어 이 시대의 선지식이라 하겠습니다.

본 종 임원 종도 들은 종정예하 중심으로 전통법맥과 율맥을 잇고자 아래와 같이 종도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 본 종은 종정예하의 전통 법맥을 유지 계승하여 종도화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종에 입종하시는 스님께서는 재적종단의 승납과법계를 인정하겠습니다.
- 본 종에 입종하여 건당하실 스님께서는 법계증서를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본 종에 입종하시는 법사님과 불교대학 2년이상 수료하신 분의 법사 신청을 받습니다.
- 본 종에서는 개인사찰의 사유재산을 종법에 의거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찰등록시 1년 분담금 없음)
- 본 종 종정예하 추대식에 동참해주신 각 종단 종정예하 및 총무원장 큰스님들께 지면으로 통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석가여래부촉법제 77세 조선불교중흥율제 8조
총정 예하 태화당 석가산 대종사

**본 종도들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중흥에 앞장서서 불조의 원맥을
이어 나갈 것을 불타전에 기원 드립니다.**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임원 및 종도일동

■ 종정예하주석사찰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원융사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1122번지 대승사
■ 접수문의 : 053)325-5288. 053)325-0400 / 팩스 053)325-4848

大覺教團 僧伽大學院 開設
승정(宗師)학과 학인모집

본 원에서 제1기 승정(大宗師, 宗師) 風光教育을 실시하게 됨을 공고하오며 교육기간 동안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僧正學科

1. 僧正之 儀法(전법게송, 오도송, 등)
2. 僧正之 法行(종사의 행주좌와, 등)
3. 儀式之 法行(점안, 천도, 수계, 건당, 등)
4. 僧正之 法物(불자, 여의, 무척, 주장자, 등)
5. 点察懺悔法 傳授 (600年間 단절된 점찰법 再現)
6. 宗務行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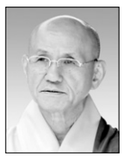
僧正學은 宗師가 지녀야 할 禪과 教와 儀式行政, 品行 등 高度의 법상을 宣揚하고자 하는데 있음.

1.입학자격 :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및 대승정(대종사) 승정(종사)
2.구비서류 : 본원 소정의 입학 신청서 1통, 법계증사본 1매, 사진 2매.
※3개월 후 졸업시 종사법물 증정 및 졸업장수여.
※법계증 없는 분은 각 종단 총무원장 발행 재직증명서 1통

▶수강기간 : 3개월 기간 중 5회만 실시(1일 5시간 교육)
▶개강일시 : 불기 2554년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개원 입교식 및 1차 교육 (항시 점심공양제공)
▶수강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94번지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중앙연수원 ☎ 043)233-0924
▶접 수 처 : ☎ 053)325-5288, 053)325-0400 대승사 불교대학
팩스 053)325-4848, 핸드폰 010-3900-3050

大覺教團 僧伽大學院 院長 圓堂 大宗師

일주문



자랑스러운 전북인 상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은 1월 7일 재경전북도민회 등이 주최한 '자랑스러운 전북인 상'을 수상했다.



포교원 어린이 신도증 발급

조계종 포교원 혜총 스님은 2월 1일까지 어린이청소년 신도증 발급 접수를 받는다. (02)2011-1903



태허스님 제12주기 추모재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1월 13일 대웅보전에서 태허 스님 제12주기 추모재와 연곡 금곡 태허 스님 부도 제막식을 봉행한다.



대중결사뇌과학-불교주제 아카데미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대표 진오 스님은 1월 11일 대전 만불선원에서 뇌과학전문가 박문호 박사를 초청해 '뇌와 의식 그리고 불교' 강좌를 개최했다.



무등 스님 문단 등단

광주 천룡사 주지 무등 스님은 월간 <한국시>(12월호)에 '도량석' 등 3편의 시가 당선돼 문단에 등단했다.



태고종 강원교구 신년하례법회

태고종 강원교구종무원장 백운 스님(춘천 석왕사 주지)은 1월 6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박정이 장군 제8대 군불총회장 취임

합참 전력발전본부장 박정이 육군중장은 1월 10일 제8대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불교아카데미 신임 이사장 취임

신성기 불교아카데미 신임이사장은 1월 11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제3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인사 박기련 좋은벗 대표 조계종 종책특보에



박기련 좋은벗 대표는 최근 조계종 종책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종책특보의 재가불자 임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기련 신임 종책특보는 한국외대 이란어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불교신문 기자와 거제 마하병원 원무국장을 거쳐 현재 거제도에서 (사)좋은벗 대표로 활동 중에 있다.

선후배 유대관계로 실업도 해결

박경호 대불련 신임회장… "지회점검해 지원체계 마련"

"법우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이며 부처님 · 법우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제48차 신임회장에 박경호 전 대불회 회장(27, 대불회 02학번)이 선출됐다.

박경호 회장은 KBUF 홈페이지, 멘토사업, 온 · 오프라인 공간 활용, 문화포교의 활성화를 통한 소통과 화합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박경호 회장은 "캠퍼스 포교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각 대학의 불교학생회 지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법우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존 지회장, 지부장 중심의 단계적 연락망을 벗어나 평면적이고 다면적인 연락망을 구축하고 지회와 지회 간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공간인 법우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불련의 장학사업도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구랍 27일 개최된 '제47년차 정기총회'에서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장이 올해 1억을 목표로 매년 20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줄 것을 약속한



박경호 대불련신임회장.

가운데 박경호 회장은 "졸업생과 재학생 법우로 구성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장학재단을 만들 것"이라며 " 외부 장학 사업이 아닌 대불련 내적인 장학사업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불련은 청년실업 해결에도 나선다. 박 회장은 "대불련 졸업생 중 전문인으로 구성된 지부, 지회의 역할을 세분화해 멘토 그룹을 형성, 재학생들의 취업고민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청년 실업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남대학교 음악학부 국악과에서 대금을 전공하고 있는 만큼 박 회장은 문화로써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부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박 회장은 "율동을 전문으로 하는 연희단과 연극, 밴드 등의 분야로 세분화와 전문성을 강화해 군 포교, 사찰 공연 등의 외부 공연에도 참여할 계획"이라며 "법우들에게는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대불련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그밖에도 KBUF 홈페이지에 불교 전문 컨텐츠를 구축하고,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목탁 실수나 법회 후기 등을 올리고, 전 지회 법우들과 공유하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졸업 후에도 불교계에서 (퓨전)국악단 활동을 하고 싶다는 박 회장은 2002년 대구 경북예고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음악학부 국악과에 입학했다.

2007년 대불련 대경지부 대불회 회장, 2009년 대불련 문화부 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야구공 실밥도 108개, 우리생각도 108번뇌

불심으로 경기하는 월정사 '만월야구단'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과 불자들이 '만월 야구단'을 만들었다. 야구단의 이름인 '만월'은 월정사 대법륜전 뒤편에 있는 만월산을 본 따 정념 스님이 직접 지은 것이다.



월정사 만월야구단은 총23명으로 구성된 사회인야구단이다. 만월야구단은 앞으로 야구뿐아니라 야구를 통한 불법포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념 스님이 구단주를, 비구니 지명 스님이 단장을 맡아 이끄는 만월야구단에는 월정사 복지재단 소속 강릉장애인복지관 직원들과 강릉 원주대 교수, 한의사, 프로골퍼, 기업인 등 다양한 재가자 23명이 등록했다. 선수들은 월정사를 중심으로 강릉 · 평창 등에서 생활하는 불자들로 '불심을 바탕으로 야구 하는 팀'을 나타내기 위해 구단 유니폼에도 월정사 상징 '월정사지 9층탑'을 새겼다.

단장 지명 스님은 "야구공 108개의 실밥이 중생의 108번뇌와 연관되듯 두뇌와 집중이 요구되는 스포츠 야구와 불교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야구단 활동을 통해 불자 간에 화합 단결하는 것은 물론 포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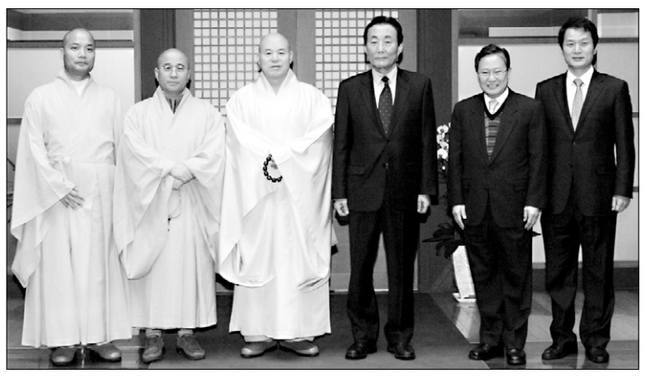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2기를 인연으로 만월야구단 감독을 맡은 박기일 전 경남고교 야구감독(법명 자각)은 "종교계 최초의 사회인 야구단으로 만월 야구단이 생활불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월 중 강릉 KBS 등에서 연습경기 등을 녹화하고 3월 경 강릉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 할 예정에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한편, 만월야구단은 2009년 11월 28일 창단식을 거행했으며 올 3월 강릉에서 KBS 예능프로그램인 '천하무적야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주 기자

"소통으로 사회 통합 이룰터"

고건 위원장, 조계종 총무원 찾아 비전 공유



자승 스님(왼쪽에서 세번째)과 고건 위원장(왼쪽 네번째)은 이날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5일 고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구랍 23일 발족해 2010년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불교계에서는 법등 스님(조계종 호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건 위원장은 "사회통합위원회 출범에 총무원장 스님이 격려해주셔 감사드린다. 새해 좋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 왔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고 위원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취임하시며 말씀한 '소통과 화합'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이러한 가르침이 사회통합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어려운 시기, 위원장이라는 큰일을 맡으셨다. 지도력 등을 미루어 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건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이 많지만 종교간 갈등은 없다. 이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화답하며 "위원회 활동에 종교계 지도자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승 스님과 고 위원장은 자승 스님의 은사이신 정대 스님의 회고로 대화를 이어갔다.

고 위원장은 "자승 스님의 은사이신 정대 스님은 저에게 죽마고우와 마찬가지로 마음으로는 스승과도 같았다"며 "서울시장 부임 당시 사적 정비 등에 더 도움을 주려 했지만 임기가 끝나 못내 아쉽다"고 인연을 떠올렸다.

자승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 고 위원장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신년인사 차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으며, 총무원에서는 총무부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 등이 배석했다.

노덕현 기자

'새해맞이 청소년 축제한마당'

자비실천운동본부, 대덕소년원에서 개최

자비실천운동본부(대표 해광)는 1월 4~6일 대전 대덕소년원에서 '2010년 불교 겨울 수련회 및 청소년 축제한마당'을 개최했다.

소년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교 겨울 수련회'는 4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첫째 날에는 해광 스님의 불교기초교육, 광명 스님과 이명자, 박정화 지도위원의 인성교육, 둘째 날에는 송미자 선생의 웃음치료, 자비원 미혼모센터 원장 혜전 스님 · 대전여상 차천식 선생 등의 인성교육과 체력단련 교육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오전에 법요식이 있었고 점심에 자비실천어머니회 회원들의 정성으로 자장면 파티가 열려 일부 교육생들이 세 그릇씩 먹을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

해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사는 수가 많지만 부모는 한시도 자식 생각을 안 하는 때가 없다"며 "부모한테 효도할 다섯 가지 도리를 명심하고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이므로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C766-91904.2.152:7PM페이지1(1,1)

인재육성 위한 장학금 쾌척

불국사, 1억원 東大 경주캠퍼스에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오른쪽)과 손동진 총장.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불국사(주지 성타)에서 장학금 1억원을 쾌척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전달된 장학금은 불국사가 동국대의 불교 인재육성을 위해 조성한 '불국사장학금'으로 불자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성타 스님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동국대의 한 가족으로서 이 기금이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불교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우수 인재 양성에 동국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손동진 총장은 "불국사에서는 불교인재 세계화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석림원 학인스님, 인근 군부대 후원 등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다"면서 "불교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동섭 기자

힘겨웠던 고난의 삶, 절에서 쉬소서

은해사 · 통도사, 종군위안부할머니와 이주노동자에 안식처 제공




은해사는 일본군 위안부 생활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산 김순악 할머니(왼쪽)를 은해사 수림장에 무료 안치했으며, 통도사는 외국인 노동자 바하드 샵 구릉씨의 다비식을 거행했다(오른쪽).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와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가 평생을 종군위안부 피해의 고통 속에 살다간 할머니와 머나먼 이국에서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 안식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봉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월 2일 작고한 김순악 할머니를 경내 수림장에 안치하고 지장전에서 반혼재를 봉행했다"고 4일 밝혔다.

80평생을 일본군 '위안부'의 멍에를 짊어지다 영면에 든 김순악 할머니는 영천 은해사 수림장에 안치됐다. 김 할머니의 49재도 영천 은해사서 봉행된다.

김 할머니는 취업을 시켜준다는 일본군에게 속아 만주에서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했다. 20여 년간 시민단체 등과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대장암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으나 만 82세로 1월 2일 새벽 심장마비로 운명했다.

돈관 스님은 "일본군에 의해 평생을 고통받아온 할머니가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한 오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보지 못한 채 운명하고 말았다"며 "고인의 뜻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은해사 수림장에 무료로 안치하고 49재 또한 은해사에서 봉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의 작고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는 88명만 남게 됐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구랍 27일 서산의 여관 화재로 사망한 네팔 외국인 노동자 바하드 샵 구릉(남, 35)씨의 다비식을 1월 2일 봉행했다.

바하드 샵 구릉씨는 네팔에 딸을 둔 가장으로 2002년에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1월 초 네팔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월세로 거주하던 여관방이 불타면서 바하드 샵 구릉씨의 '코리안 드림'도 한줌의 재가 됐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과 바하드 샵 구릉씨 유가족과의 인연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우 스님은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타라 구릉(바하드 샵 구릉 씨의 누나)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영가를 모셨다. 동생 바하드 샵 구릉씨까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스님은 주저없이 통도사 다비장 사용을 제안했다.

정우 스님은 "한국의 대표사찰이며 불가의 종가인 만큼 산중의 좋은 시설과 아름다운 가풍을 모든 국민과 함께 공용하고 나눠야 한다"며 "향후에도 자비의 마음으로 다비장을 사회와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도사 다비장은 그동안 스님들의 다비를 위해 사용돼 왔다. 일반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사찰의 다비장이 개방된 경우는 이번이 최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새해엔 건강 되찾길…

생명나눔, 박도현 환자에 치료비 전달



구랍 29일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박도현군이 생명나눔 실천본부로 부터 치료비를 전달받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본부장 박종명)는 구랍 29일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박도현(19세)군과 상세불명의 편마비로 치료중인 정문진(45세)씨에게 각각 100만원씩 치료비를 전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는 부처님의 생명공양 정신을 실천하는 장기기증운동과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달 창립해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053)945-0009

손법천 대구지사장

말없이 보리행 실천하는 학교

화엄불교대학 노숙자 · 독거노인 무료급식 실시


대구 화엄불교대학 사부대중이 대구 망우공원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모습.

대구 화엄불교대학(학장 진귀)이 6년째 말없이 자비 · 보리행을 실천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화엄불교대학은 노숙자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대구 망우공원에서 금요일마다 무료급식을 해왔다.

다른 무료급식소와는 달리 정부 · 지역후원단체 지원 없이 순수하게 불자들의 보시만으로 운영되는 것도 화엄불교대학 무료급식의 특징이다. 매주 화엄불교대학의 무료급식 봉사가 있을 때면 500여 대중이 대구 망우공원을 찾는다.

6년간 무료급식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오신날 등 연등접수금 전액을 희사한 진귀 스님의 원력이 컸다.

진귀 스님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통해 이웃에게 회향하는 보리행이야말로 참다운 불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라며 "새해부터 매주 토요일은 대구 신행단체별 불자들의 봉사신청을 받아 새로운 봉사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모두 회향하는 불자되길"

대구경북 불교리더 신년교례회 열려



1월 6일 대구경북불교리더 신년교례회 모습. 왼쪽부터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2010 대구경북 불교리더 신년교례회가 1월 6일 대구불교방송 7층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장인 호성 스님(의성 고운사 주지), 대구불교방송 사장 허운 스님(대구 동화사 주지) 등 지역 주요 사찰스님과 신행단체 대표자 150여 명이 참석해 신년 인사를 나누고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졌다.

호성 스님은 신년 덕담을 통해 "자신이 닦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회향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말"이라면서 "올해는 우리 모두 회향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허운 스님은 "사부대중의 욕망을 끊임없이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위안받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대구불교방송이 경인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희망찬 새해를 축하하는 덕담과 불자 음악인 음성공양, 만찬 등으로 진행되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촛불에 소원 담아 새해맞이

영천 은해사 새해 맞이 타종식 등 개최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월 1일 새해맞이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돈관 스님을 비롯한 은해사 대중스님, 신도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구랍 31일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도 함께 진행됐다. 템플스테이 참가 대중들은 저녁예불과 108배와 가족에게 편지쓰기, 발원문 적기 등을 통해 지난해를 되돌아봤다. 또, 새해 건강, 행복 등 각자 소원을 발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대중들은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촛불을 들고 각자의 소원을 비는 탑돌이를 했다. 이어 일출 전 떡국을 나눠 먹은 대중들은 팔공산 산내암자인 중암암에 올라 만년송 바위 인근에서 떠오르는 경인년 새해를 맞이 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최초로 '직지' 전시관 설립

독일 라이프치히 박물관서 제의

독일의 인쇄 관련 박물관에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전시관이 설립된다.

청주 고인쇄박물관(관장 이철희)은 "<직지심체요절>의 세계화를 위해 독일 라이프치히 박물관에 '직지 전시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1월 6일 발표했다. '직지' 전시관이 들어설 라이프치히 박물관은 인쇄 관련 박물관으로, 고인쇄박물관은 이 곳에 '직지'의 역사적 의미 등 각종 자료를 담은 패널과 '직지' 영인본, '직지' 금속활자본, 금속활자를 만드는 밀랍주조법 관련 기기 등을 갖춘 직지전시관을 세운다.

고인쇄박물관 관계자는 "1997년부터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교류해온 라이프치히 박물관이 전시관 설치를 제의해 왔다"며 "'직지'의 세계화를 위해 전시관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우수 청소년 시설 달서구 수련관 선정

대구 달서구 청소년수련관(관장 선지)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 청소년 시설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053)629-9500

손법천 대구지사장

회장 이 · 취임식 운불련 지역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는 1월 5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조계종 대구시신도회 류병선 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김주본 신임회장의 취임과 서상준 前 회장의 이임을 축하했다.

김주본 신임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법을 홍포하고 일본 MK택시와 같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 체제를 갖추는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나만봐 부처님 법회 옥천 대성사서

중매사찰인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1월 22일 오전 10시 '나만봐 관세음보살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혜철 스님은 "전국 최초로 사람의 동선을 따라가며 바라보는 '나만봐 부처님' 500분을 모시고 점안 법회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043)732-5560

혜철 충청지사장

송년후원의 밤 개최 '함께하는 세상' 주최

'함께하는 세상(회장 법광, 파계사 주지)'은 구랍 27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국제복지구호와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송년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법광 스님은 "주변마다 힘들다고 말하는 이럴 때일수록 상호부조와 우호협력은 서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사장 지성 스님(前 동화사 주지)도 "대립과 반복이 심한 이때에 대중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인류재난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홍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C766-101904.2.152:8PM페이지1(1,1)

"청정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자"

부산 교계 2010 새해맞이 행사 다채롭게 열려

부산의 대표사찰의 하나인 금정산 범어사 제야의 타종식을 시작으로 부산 불교계 곳곳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2010년 새해를 맞은 부산시민과 불자들은 산사에서 장엄한 범종 소리와 함께 새해벽두를 열었다.

범어사(주지 정여)는 12월 31일~1월 1일 개최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의 일환으로 제야의 108타종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주지 정여 스님과 범어사 스님들, 템플스테이 참가자 및 부산시민 등 800 여 사부대중이 강원종각 앞마당에 모여 새해 축원기도를 올리고, 직접 타종에도 참여해 산사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부터 2010년 대입수험생이 된 예비 고3 등 800여 명의 시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을 친 뒤, 선방에서 따뜻한 떡국을 먹고 참선수행을 하면서 새해 첫 아침을 맞았다.

부산을 대표하는 출 · 재가단체인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범어사 주지)와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



범어사 제야의 종 타종식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범종을 치며 2010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는 1월 6일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10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 승 · 재가 신년하례, 2010부산불교 사업계획 발표, 화산 스님 신년사(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설동근 회장의 봉행사, 축사, 정여 스님의 신년법어, 정각 스님의 축원(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미룡사 회주), 축하떡나눔 및 건배 제창,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의 축가 등의 순으로 2시간 여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것이 물질문명으로 이뤄져 욕망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고통과 괴로움이 쌓이게 되는데 누구나 갖고 있는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 가운데 신 · 구 · 의 삼업으로 스스로 업을 지어 고통 받고 있다. 경인년 새해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조해서 잘못 물들여진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 본래 청정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법문했다.

신년하례에서는 2010년 부산불교 주요 사업계획으로 사명대사 열반 400주년 기념사업과 연등축제 및 팔관회의 활성화가 연중 핵심 추진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포교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사업으로는 제2회 부산불교연합세미나, 제2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부산불교연합신문의 창간을 제시했고, 부산-후쿠오카간 불교결연 및 동남아 불교국가 지원사업 등 해외교류사업도 힘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산지역 불자기업인들의 모임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 영광도서 대표)도 신년하례회를 열고, 기업인으로서의 새해 각오를 다졌다.

1월 7일 묘광선원에서 열린 이번 신년하례법회에는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前 해인사 강주)을 법사로 초청해 '새해를 맞이하는 불자기업인들의 자세'에 관해 감로법문을 들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2010도심포교 전진대법회'

부산불교신도회, 전법선언문 발표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의 '2010 도심포교 전진대법회' 첫 번째 법사로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사진)이 법석에 올라 감로법문을 펼쳤다.



1월 4일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열린 이번 법회에는 류진수 명예회장 추대식 및 배태순 신도회장 취임식, 2010전법선언문 낭독 등이 함께 마련됐다.

법륜 스님은 "혹자는 기독교는 전도의 종교,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일컫지만, 사실 불교야말로 전법과 포교의 종교다. 불교는 여느 이웃종교처럼 힘의 논리로 총, 칼로서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불법을 전하는 착하고 부드러운 종교다. 부처님은 수행을 6년간 하고, 전법은 무려 45년을 다녔던 만큼, 깨달음을 얻은 후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전법에 애쓰셨다"며 불법홍포와 수행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법회는 앞으로도 2월 2일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3월 16일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제주 남국선원장), 4월 6일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 5월 4일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등의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병수 회장의 직전회장을 역임한 류진수 전 신도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법계정사 초대 신도회장으로 배태순 회장이 추대돼 각각 임명장과 감사패를 수상했다. 참가비는 8만원이다. (051)362-0339

박지원 기자

범어사 '선불교문화체험특구' 변신

2021년 목표로 향후 12년 종합정비계획 발표

천년고찰 범어사(주지 정여)에 455억원이 투입돼 선불교문화체험특구로 거듭난다.

범어사는 1월 6일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 의뢰한 종합정비계획의 최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정비계획의 주요사항으로 총 4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템플스테이관, 선문화체험타운 등을 조성해 범어사를 부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게 된다.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1단계(2009년 8월~2011년)는 192억여 원을 들여 산문 신축, 대광장 조성, 일제 잔재 청산 등으로 전통 가람의 재정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2단계(2012~2016년)에는 168억여 원 규모의 템플스테이관과 선문화체험타운, 불교문화기념관 등을 조성한다.

3단계(2017~2021년)에는 예산 94억여원을 배정해 대설법전, 요사채 등을 조성해 경내 시설물을 증축, 개축할 예정이다.

특히, 선문화체험타운과 템플스테이관이 완공되면 범어사는 선불교문화체험특구를 지정해 선불교문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범어사가 속한 금정구와 금정산 일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어사와 산내 암자, 사하촌, 금정산성 등을 묶어 선불교문화체험특구로 지정된다. 상마마을 진입로를 기점으로 동쪽에는 불교문화기념관, 서쪽에는 선불교문화체험타운이 배치되며, 각각 45억원과 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앞선 2006년 범어사는 금정산 일대에 2천억원을 들인 대규모 선문화체험타운을 추진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절한 부지 선정과 불투명한 사업추진으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사업 추진을 포기한 바 있다.

박지원 기자

박종철 23주기 추모제 개최

13일 오후 7시부터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서

민주열사 박종철 23주기 추모제가 1월 13일 오후 7시부터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추모제는 부산박종철기념사업회 주최, 부산경남울산열사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지회, 혜광고교 총동창회가 공동주관한다.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경과보고, 여는 노래, 1987년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친구들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추모사 및 추모글을 낭독한다. 이어 박종철 열사가 학창시절 즐겨 부르던 '꽃상여타고'와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와 부모님께 남긴 편지글이 읽힐 예정이다. 편지글에는 당시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의 진지한 고민과 삶의 의지 등이 진솔하게 담겨있다.

특히, 이번 추모제에서는 박종철 인권상 시상식도 마련된다. 2003년 불교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해, 작년 12월에는 도한영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사무처장이 받은바 있다. 유족들은 추모제에 앞서 통도사 성전암에서 제사를 지낼 예정이다.

한편, 박종철 열사는 1964년 부산 서구 아미동에서 태어나 1984년 서울대 언어학과에 입학한 뒤, 1986년 4월 11일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었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월 13일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돼 고문폭행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현재 고인은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돼 있다.

박지원 기자

새싹불자에 불성 심어요

통도사, 어린이 · 청소년 겨울캠프 접수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어린이 · 청소년 겨울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어린이 ·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목을 갖추고, 예의바르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1차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월 17~22일(5박6일간) 진행되며, 기본적인 사찰예절과 좌선법 실참을 통한 불교명상의 이해, 마음을 밝히는 노래 선법가, 사성제로 자기문제 해결하기, 수계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2차와 3차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월 24~29일, 2월 23~28일 열린다. 기본적인 사찰예절을 통해 일상에서 지켜야할 예의범절을 배우고, 놀이주머니, 고구마 구워먹기, 연 만들기, 우리 춤, 등산과 자연관찰 등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겨울캠프가 될 예정이다.

강사진으로는 통도사 포교국장 선혜 스님이 진행지도를 맡고, 캠프 마지막 날 수계식에는 율원의 여러 스님들이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불교교육에는 연수과장 혜법 스님, 음악교육 및 공연은 작곡가 김건우, 전통예술 교육은 국악인 이정순 등이 직접 나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055)384-7085

박지원 기자

社告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을 모십니다

제출서류 및 기한 :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10년 1월 30일(토)
- 제출방법: 우편(30일까지 도착분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활동분야 :
지역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제출처 :
(우)110-734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6층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지원팀(02)2004-8200 팩스: (02)737-0697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C766-111904.2.152:14PM페이지1(1,1)

‘호남 지역포교 원년의 해’ 발원

불교계 단체들 알찬 포교계획으로 새해 시작

경인년 새해를 맞아 호남지역 불교단체들이 신년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2010년을 호남포교의 원년으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1월 13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성도재일기념 묘허 스님 초청법회를 시작으로 첫 행사를 시작한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스님들의 모임인 승보회의 장학금 전달과 문화공연이 함께 열린다.

이어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5월 열리는 빛고을연등축제와 연합방생, 빛고을불교아카데미 등의 행사와 각 신행단체와의 연대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성오 스님은 “광주불교가 발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법이 전해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여러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 승가의 화합과 정진을 실천해 나가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공무원불자모임인 **전남도청불자회**(회장 홍석태)는 △도청불자회 월례법회 정례화 △도청산하 시군 불자회와 유대관계 정립 △공무원 수련회 개최 △불교관련 단체행사 참여를 신년계획으로 발표했다.

한 때 100여 회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50여 회원에 불과한 불자회를 재정비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도 내세웠다.

홍석태 회장은 “도청이 목포청사로 옮기면서 많은 종교모임이 위축됐다. 하지만 많은 회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법회를 만들고 도청 산하 시군 불자회와의 연합법회 등을 진행해 회원참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재가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복지와 교육을 두 축으로 2010년 계획을 세웠다.

자비신행회는 복지분야에서는 노인복지, 호스피스, 청소년상담, 차문화나눔 등 기존에 실시해 온 복지사업의 전문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불교교육과 차문화교육, 호스피스교육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섭 사무처장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체 재정사업의 모색과 회원 배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지역불자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봉사)와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열린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본사 후원으로 열렸던 빛고을 아카데미 행사장 모습. 호남 불자들은 2010년을 포교원년의 해로 삼아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을 주제로 사업계획서를 발표했다.

가족복지사업은 가정문제 종합상담, 가족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지역사회조직사업은 주민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 장애인 문화탐방,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 의료지원 등을 확대 실시해 지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문화사업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 영어교실을 비롯해 성인을 위한 댄스스포츠, 미용, 건강교실 등을 운영한다.

도제 스님은 “광주지역에서 불교계가 지역사회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불교와 복지를 접목해 많은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은 구랍 봉행된 신임 단장 취임식에 이어 제6기 임원조직을 개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했다.

광주전남지역단은 2010년을 시작으로 지역별(광주 목포 무안 강진 장흥 영광), 직능별(군부대 교도소 염불봉사 사찰안내 어린이팀 등) 조직정비를 통한 포교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교구본사와 불교대학과 연대를 확대해 지역불교내 포교사 역할을 확립하고, 포교사 개인의 신앙심과 소속사찰에서의 활동을 통해 승가와의 유기적 관계를 정립한다는 각오다. 또,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엽)과 함께 남도의 섬 포교사업에 참여해 불교가 사라져버린 섬지역 포교활성화에 큰 바람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정영균 단장은 “호남지역 곳곳에서 올곧게 부처님 정법의 홍포와 자신의 수행을 묵묵히 진력해온 포교사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나눔의 실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불교문화대학과 대학원을 운영 중인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이순규)은 ‘불교의식습의’와 ‘불교입문’을 주제로 무료강좌를 여는 것으로 올해 첫 교육사업을 시작한다.

혜광 스님(담양 정토사 주지)과 이순규 원장이 진행하는 불교입문 강좌는 2월 18일 ~ 3월 11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순규 원장은 “경인년은 불교의 대중화 · 생활화 · 현대화를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공부하고, 불교가 생활의 지침이 되고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헌혈은행 등 지속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환우정서지원사업을 통해 무등산 옛길 걷기대회, 환자 완치기원 1080배 정진, 콜럼버스 시네마 자선음악회 등을 개최한다.

현지스님은 “올해는 호랑이해인 만큼 활기가 넘치고 당당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한해가 될 것”이라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베풀면서 사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법일)는 동남아시아 불교권 국가를 탐방하는 선재역사문화탐방을 1월 20~27일 갖는 것으로 한 해를 연다. 탐방 기간 중 환경연대는 씨엠립의 현지 마을 등을 방문해 학용품, 생필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창립2주년 기념 후원 한마당을 열고, 어린이 여름 생태학교 및 선재역사문화탐방과 환경법회 등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새해에도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 우리사회에 안정된 정착으로 자리 잡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방송 개국 추진”

금산사, 신년하례법회



1월 2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열린 금산사 본말사 신년하례모습.

금산사 본말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새해를 맞아 포부와 원력을 세워 보살행을 다짐하고 전북지역 불교중흥과 지역발전을 다짐하는 경인년 신년하례법회가 1월 2일 전북불교회관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등 100여 본 · 말사 스님과 김백호 전라북도 불교신도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희수 전북도의회의장, 송하진 전주시장, 유기상 전북문화체육관광국장 등 400여 불자가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월주 스님은 법어에서 “한국경제의 큰 시련을 지혜로 극복해가고 있어 2010년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와 자비의 실천을 통해 선진국가 기반을 조성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2010년은 신도수련교육과 복지불교를 위한 조직화에 힘쓰고 전북지역 불교방송 개국 추진과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전북지역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원력과 지혜를 모아 원만히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은 “일자리가 많은 전북, 아들 딸 취직 잘되는 전북,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일하는 사회, 용서와 이해 감사와 걱정을 함께 나누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린 불자들 불심 키우기

나주 삼향사 어린이 템플스테이 행사



나누 심향사 어린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들어 보이며 웃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은 초 · 중 · 고교생 불자를 위한 겨울학교가 잇따라 마련됐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 061-334-2880)는 겨울 어린이 템플스테이 행사를 열고 있다.

올바른 청소년 인격향상 및 이주민 아동을 위해 열리는 심향사 어린이 템플스테이는 ‘청련비천-푸른 마음 바른행동 배움터’를 주제로 구랍 29일부터 2월 7일까지 4차에 걸쳐 개최된다. 구랍 29일 열린 1차 행사에는 불자학생 20명이 참가해 원광 스님의 <부모은중경> 강의, 구연동화, 박정자 단청장 후보의 불화강좌, 부처님 관련 시낭송, 발우공양, 전남도전 초대작가 기경숙 작가의 사군자 그리기, 한지공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원광 스님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만일의 근원”이라며 “좋은 품성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는 ‘내 마음속 부처님을 향하여’를 주제로 1월 8~10일 겨울 불교학교를 개최했다.

경담 스님은 “짧은 시간 산사에 머물며 자신의 본성을 찾고, 지난해의 원만한 회향과 더불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안전기원 법회 봉행

3일 호국군성사서

군산지역 유일의 군법당인 공군제38전대 호국군성사(주지법사 도각)는 새해를 맞아 ‘무사고 안전 기원 및 경인년 신년하례’ 법회를 1월 3일 군산사암연합회(회장 재훈) 후원으로 군산 지역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행사에는 관음사 재곤 스님, 동국사 종걸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 내원암 자인 스님, 정안사 정안 스님, 수도암 무진 · 보화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전대장 최재훈 대령, 공군 군종계획계장 윤종령 법사를 비롯한 군법사단, 허양 군산신도연합회장 등 지역불자와 공군 장병이 자리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부대의 무사고 안전을 기원하는 송월 스님의 축원문 낭독, 최재훈 전대장 내외의 헌화, 재곤 스님의 법어, 하례 순으로 진행됐다.

재곤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모처럼 독실한 불자인 최재훈 전대장이 부임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를 부대 상징으로 삼는 공군 제38전대 전대장을 비롯한 전 장병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새해에도 호랑이처럼 열심히 수행정진해 군법당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쑥뜸과 지압을 간편하게

신개념

쑥뜸 지압봉 (특허 및 디자인 출원)

황토재질의 금도금 수제명품! 뜸 자국, 화상 걱정 없는...



일반형 99,000원 고급형(음각) 128,000원 고급형(양각) 148,000원



쑥뜸목



쑥(30개입)



일체형 쑥뜸지압봉

■구성
쑥뜸 지압봉 (16.5cm)
휴대용쑥 (2개입) +
쑥뜸 목 + 쑥 (30개입)
쑥 - 추가 별도구매 가능



이런 분께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수행 정진할 때 또는 경전 읽을 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
- 무릎통증, 허리통증이 있으신 분.
- 노안이 시작되었거나 진행중이신 분.
- 시력저하로 고민이신 분.
- 손발이 차신 분.
- 코가 자주 막혀 고생하시는 분

쑥뜸지압봉은 휴대가 간편하여 여행이나 출장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온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물용으로 구입하실 때는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 14001인증업체
다 우 정 밀 서울시 중구 입정동 168-1
구입문의 02)2263-6853 / 011-348-6853

C766-121904.2.152:19PM페이지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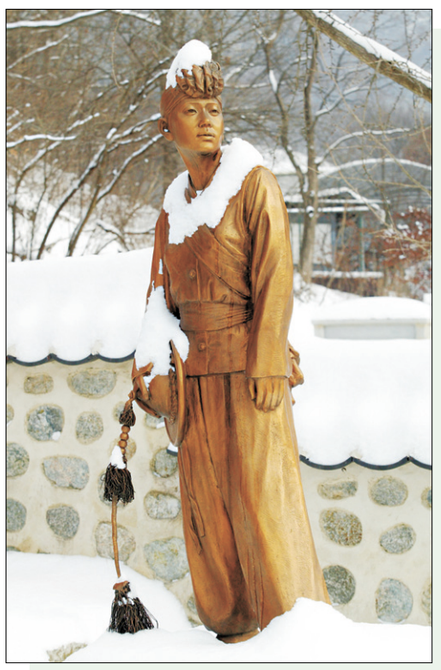
다섯 살 바우덕이가 땅에 금을 긋고 줄을 타던
❶ 안성 청룡사(靑龍寺)

숨 막히던 시대를 살던 그들이 꿈꾼 미륵의 땅



보물 제824호인 대웅전과 명본 스님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삼층석탑(왼쪽)이 함박눈에 덮혀있다.

사당에 위치한 바우덕이의 동상(아래).



중부지방에 새벽부터 내린 폭설은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세상엔 눈과 눈이 아닌 것 두 가지밖에 없었고, 그 세상으로 나온 순간 눈앞엔 가야만 하는 길이 바라만 보고 싶은 길이 되어 하얗게 휘날리고 있었다. 청룡사로 가는 길은 그렇게 나서야 했다.

안성 땅에 들어서서도 눈발은 여전했다. 서운산자락을 붙잡을 때쯤 눈발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쉼 없이 내리는 눈발이 세상 풍경을 남김없이 지워가고 있을 때, 그 하얀 풍경 마지막에 청룡사가 남아 있었다. 바람이 흔들고 지나간 풍경 소리와 마당에 쓰러진 석탑의 그림자가 도량이 있음을 알려줬다.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에서 운부대사와 장길산은 이곳에서 미륵의 세상을 꿈꿨다. 숨 막히던 시대에 숨죽여 살았던 그들이 꿈꿨던 미륵의 땅은 자동차를 끌고도 가기 힘든 곳이었다. 눈발이 잦아들었다.

청룡사는 고려 원종 6년인 1265년에 명본 스님이 창건하여 대장암(大藏庵)이라고 부르다가, 공민왕 13년인 1364년에 나옹 스님이 중창하고 이름을 청룡사로 개칭했다. 청룡사라는 이름은 절터를 찾아다니던 나옹 스님이 이곳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청룡을 보고 지었다고 한다.

멀리 서운산이 눈 속에 서있다. 아득한 그 옛날 나옹 스님이 바라보던 청산과 창공은 스님에게 말없이, 티없이,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고 했고, 스님은 '말없이 살라하네'로 시작해서 '말없이 가라하네'로 끝나는 시를 짓고 강같이 구름같이 말없이 가시었다.

하얀 마당 끝에 대웅전이 서있다. 균형미와 굴곡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대웅전은 보물(824호)이다. 청룡사에는 대웅전 외에도 명본 스님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삼층석탑과 청룡사영산회괘불탱(보물 제1257호), 동종(보물11-4호), 청룡사감로탱(보물 제1302호) 등의 문화재가 더 있다.

청룡사가 있는 청룡리는 남사당의 마을이었다. 청룡사 위에 불당골이 그들의 마당이었고 청룡사 또한 그들의 마당이었다. 청룡사는 사당패의 그늘이었고 사당패는 그런 청룡사를 도우며 함께 살아왔다. 청룡사 입구에 있는 사적비 오른쪽으로 계곡을 따라 불당골로 오르다보면 조선 남사당의 최초이자 마지막 여자 꼭두쇠였던 바우덕이 사당이 있다.

난전을 떠돌던 어린 바우덕이를 사당패가 거두고 다섯 살 바우덕이는 땅에 금을 긋고 줄을 타기 시작한다.

바람이 여닫는 사당 대문 뒤로 상모를 든 그녀의 동상이 브로마이드처럼 걸려있다.

바우덕이는 그 시대의 '스타'였다. "안성 청룡 바우덕이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로 시작하는 바우덕이 노래가 당시를 말해주며, 소설 '장길산'에서는 '묘옥'이라는 여인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시인 김윤배는 그의 시 '여사당 바우덕이'에서 바우덕이의 일생을 시로 풀어 썼다. 타고난 미색과 총기로 사당패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던 그녀의 불꽃같은 삶과 숨 가빴던 상민들의 한을 노래하고 있다.

안성 난장 물화 많고 사람 많아
은근짜 다방모리 화랑유녀 웃음 질펀하고
거간꾼 장돌뱅이 싸움질로 날 저무는
홍청거리는 난장마당 가을걷이 끝낸 장마당
풍성한 인심 돋우어 펼치는 안성 청룡 남사당패 풍성한 놀이판…

뜬쇠 상쇠 바우덕이 신들린 쇠가락
상것들 얼쑤얼쑤 신명 부르고
뜬쇠 어름산이 바우덕이 시원스런 아니리 사설
상것들 응어리진 마음 풀어내리고
뜬쇠 덧뵈기쇠 바우덕이 불길 일으켜 타오르는 세상

바우덕이는 폐병에 걸려 스물 세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청룡사 아래 골짜기에 그녀의 묘가 있다. 바우덕이가 눈을 감은 때도 겨울이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이 파지지 않아 흙을 모아다 덮었다. 100년이 넘게 세월이 흘러 그 무덤을 찾을 수 있었다. 안성남사당풍물놀이보존회에서 묘비를 세웠다. 눈 덮인 그녀의 무덤 위로 겨울바람이 지나갔다.

안성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해마다 조선 최초이자 최후의 여자 꼭두쇠 바우덕이를 기리고 남사당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로 전승 발전시키고자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운부대사와 장길산이 꿈꿨던 미륵의 세상도 바우덕이가 일으켜 타오르던 세상도 다 지나간 세상이 되었다. 각자가 꿈꾸는 세상은 각자의 가슴 속에 있을 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닐까.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미륵불의 정토도 지금 각자의 가슴 속에 이미 존재하는 세상이 아닐까. 내 가슴 속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생각하며 청룡사를 나섰다.

청룡사 가는 길에는 포도밭이 많다. 안성 포도마을이다. 포도마을을 지나면 바우덕이의 묘가 나오고 서운산이 보이는 입구에 시원한 청룡 저수지 있는데 여름엔 수상스키, 보트 등 여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바우덕이 사당 옆 골짜기에는 아늑한 카페도 하나 있다. 법당의 오래된 단청과 역사 깊은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도 사찰 여행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사찰을 지나간 이야기를 따라 '그 곳'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청룡사 부도밭을 지나 불당골에 위치한 바우덕이 사당.



청룡사 진입로 약 1km 전에 위치한 청룡저수지.

청룡사 가는 길

안성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339번 지방도(서운방면)로 11Km 쯤 가면 34번 국도와 만나는 산평 삼거리에서 진천쪽으로 좌회전 하여 2.2Km 정도가면 오른 쪽에 주유소, 왼쪽에 청룡저수지가 있는데 좌회전하여 저수지제방으로 부터 1.3Km 더 들어가면 청룡사다.

대중교통은 안성시에서 청룡사까지 군내버스 1일 13회운행, 30분 소요. 청룡리 버스정류장에서 200m.

■ 제품 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氣giban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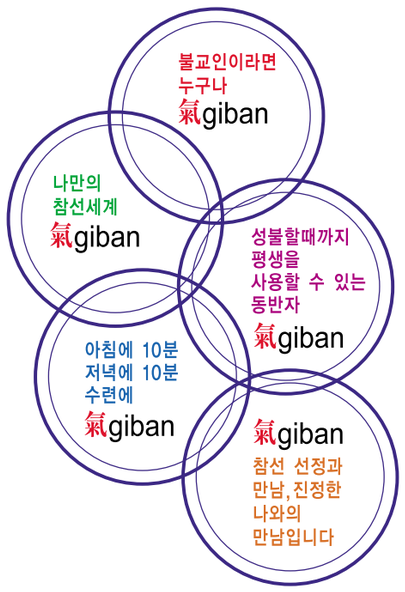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의 할인 해택 을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8

청정하고 광대무변한 것은 법신뿐

[원문]
보화비진료망연 법신청정광무변
(報化非眞了妄緣 法身淸淨廣無邊)
천강유수천강월 만리무운만리천
(千江有水千江月 萬里無雲萬里天)
삼계유여급정윤 백천만겁역미진
(三界猶如汲井輪 百千萬劫歷微塵)
차신불향금생도 갱대하생도차신
(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
–태화산 광덕사 보화문

[번역]
보신과 화신은 허망한 인연이요
법신은 청정하여 광대무변하네.
천강에 물이 있으니 달그림자 천 개요.
만 리에 구름이 없으니 만 리 하늘이네
삼계는 우물의 두레박처럼 돌고 도는 것과 같이
백천만겁의 많은 세월을 지내도다
이제 이 몸 금생에 제도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선해(禪解)]

훌륭한 삶은 죽은 뒤 천년 동안 원망 듣지 않는 것
공양의 크고 작음 보다 정성스런 마음이 더 중요

날이 춥고 세차게 바람이 부는 날, 법당에 들어서면 향내는 더욱 짙고 향기롭다.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산승(山僧)의 마음도 때 없이 초연(超然)해진다. 칠십 평생 맡아 온 향이지만 어제와 오늘, 그 향취가 다른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향내는 똑 같은 향이면서도 날씨와 기온의 차이, 혹은 향불을 붙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향내는 지극하고 향기롭지만 불심이 깊지 못하고 그저 절에 왔으니 향불이라도 올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지핀 향은 오래 타지 못하고 독(毒)하다.

향은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정중동(靜中動)을 의미하는데 등, 꽃, 과일, 차, 쌀과 함께 불교의 대표적인 육법공양 (六法供養)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각각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절에서 향을 피우는 의미는 자신을 태워 주위를 맑게 하는 희생을 뜻하고 화합과 공덕을 상징한다. 그래서 해탈향(解脫香)이라 부르기도 한다. 등(燈)은 반야등(般若燈)이라고 하여 지혜와 희생 · 광명 · 찬탄을 상징하고 꽃은 만행화(萬行花)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고 해서 수행을 뜻하기도 하고 때론 장엄 · 찬탄을 상징한다. 과일은 보리과(菩提果)로 깨달음을, 차는 감로다(甘露茶)라고 해서 부처님의 법문이 만족스럽고 청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쌀은 선열미(禪悅米)로서 기쁨과 환희를 상징한다.

무턱대고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과일을 올리는 것보다 내가 올리는 공양의 의미를 안다면 그 기쁨은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으로 향에 불을 지피고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담아 과일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덕은 그 어떤 공덕보다도 크다. 많은 것을 공양한다고 해서 더 큰 공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에 있다는 뜻이다.

'생미백년(生未百年)이요, 사후천년(死後千年)'이라는 말이 있다. 비록 사람이 백년을 못 살아도 천년의 흔적을 남기라는 이야기인데,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죽은 뒤에 천년 동안 남에게 원망 듣지 않는 삶이다. 공덕 또한 그렇다. 천년 동안 남에게 원망을 듣지 않고 아주 덕(德)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려면 공덕을 쌓아야 한다. 자주 법당을 찾아 비록 작은 것을 공양하더라도 그 어떤 재화나 물질보다 더 귀하며, 작다하여 부끄러워하거나 크다 하여 공고심(貢高心)을 내지 말고 진심으로 공양을 올리라는 말이다.

절이라는 곳은 그냥 설법을 해주고 기도해 주고 불공 올려 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자신과 가족, 세상 등 많은 것을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한 개의 향불을 사르듯 다녀야 한다.

오늘의 주련여행은 태화산 광덕사이다. 충남 천안시 광덕면(廣德面) 광덕산 남쪽 기슭에 있는 천년 사찰이다. 652년(진덕여왕 6) 자장(慈藏)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불치(佛齒) 1과와 사리 10과, 금은자(金銀字) <화엄경>, <법화경>, <은중경(恩重經)> 각 2부 등을 승려 진산(珍山)에게 주어 새 도량(道場)을 열었다고 되어 있다.

1464년(세조 10) 세조가 이곳에 거동하였을 때 한계희(韓繼禧)에게 명하여 전지(傳旨)를 써 내렸는데, 위전(位田)를 바치고 각종 요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 28방(房)에 부속암자가 약 89개, 9개의 금당(金堂), 80칸의 만장각(萬藏閣), 3층으로 된 천불전(千佛殿)은 불교도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번창하여, 경기 · 충청 일대는 물론 전국에서도 손꼽는 대찰이 되었다. 그러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탄 후 대웅전 · 천불전만 중건되어 큰 절의 명맥만을 유지하였고, 1981년 대웅전 · 천불전 등을 신 · 증축하였다. 고려사경인 보물 제390호 <금은자 법화경>(6책)과, 천불전의 대형 후불탱화 3점, <금자사적기(金字事蹟記)>, <세조어첩(世祖御帖)> 등 문화재가 있다.

그런데 1680년(숙종 6)에 안명로(安命老)가 쓴 <사적기>는, 이 절의 개창을 신라 흥덕왕7년(832)으로 적고 있는데, 자장을 흥덕왕 때 사람으로 착각한 듯하다. 또 <태종실록>(28권)에 따르면, 1414년(태종 14) 가을에 왕명으로 <대반야경(大般若經)>(전부)을 일본의 승려 규도(奎籌)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화비진료망연 법신청정광무변: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은 마침내 허망한 인연이요 법신(法身)은 청정(淸淨)하여 광대무변(廣大無邊)하네'

보화는 보신불 · 화신불의 준말로써 삼신불(三身佛)의 하나인데 선행 공덕을 쌓은 결과로 나타난 덕(德)이 원만(圓滿)한 불(佛)을 이르며 화신불은 부처님이 중생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응신불이다. 그런데 이 보화마저 허망한 인연이며 오직 청정하고 광대무변한 것은 법신뿐이라는 말씀이다.

'천강유수천강월 만리무운만리천: 천강에 물이 있으니 천강의 달그림자도 천 개요.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 만리 하늘이네.'

법신은 곧 변화하지 않는 달의 모습이며 구름 없는 만리 밖의 하늘도 오직 똑같은 법신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부처님의 법신은 그 어디서도 항시 중생을 살피고 있다.

'삼계유여급정륜 백천만겁역미진: 삼계는 마치 우물의 두레박처럼 돌고 도는 것과 같이 백천만겁의 많은 세월을 지내도다.'

중생이 생사에 유전하는 미혹의 세계를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라고 한다. 중생들은 우물의 두레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백천만겁의 세월을 끝없이 흘러 다닌다. 여기에서 미진이란 물질의 아주 작은 극미의 7배를 말하는데 헤아릴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차신불향금생도 갱대하생도차신: 이제 이 몸 금생에서 제도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다. 이때 열심히 수행하여 성불을 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자신을 제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보화문에 담긴 주련의 뜻은 생사의 윤회를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닦고 수행하라는 경구(警句)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3

착한 법은 깨달음이 근본

[원문]
十地經云 衆生身中 有金剛佛性 猶如日輪 體明圓滿 廣大無邊 只爲五陰 黑雲所覆 猶如甁內燈光不能顯現. 又涅槃經云 一切衆生 皆有佛性 無明覆故 不得解脫. 佛性自 覺也 但能自覺 覺智明了 離其所覆 則名解脫 故知一切諸善 以覺爲根 因其覺根 遂能顯現諸功德樹 涅槃之菓 由此而成 如是觀心 可名爲.

<십지경>에 이르시길 "중생의 몸 안에 금강 같은 불성이 있는데 해와 같이 밝고, 원만하고, 크고, 끝이 없는데 오음(오온)의 먹구름에 덮여 있으므로 병 속의 등불 빛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셨고, <열반경>에서 이르시길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는데 무명에 덮이어 해탈하지 못한다" 하셨느니라. 불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다. 스스로 깨달아 깨달은 지혜가 분명하여 덮이었던 것을 벗어나면 해탈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일체의 선은 깨달음이 그 근본임을 알 수 있느니라. 깨달음의 뿌리에 의하여 모든 공덕의 나무가 드러날 수 있으며 구경(열반)의 열매가 이루어지니, 이와 같이 마음을 관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하느니라.


중국 소림사의 달마상.

[해설]
진실한 마음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말하는데 무명(無明)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명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말이죠.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본다면 우주는 마음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쓸 수 만 있다면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부터 본래마음을 쓰지 못하고 육체 위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번뇌에 의해 불성(佛性)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만 녹이면 본래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번뇌를 녹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래 불성을 찾지 못한다면 괴로움에서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몸 안에 금강 같은 불성이 있다' 고 했는데,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다른 물질로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성을 다이아몬드로 비유한 것입니다. 볼 수는 없지만 본래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볼 수가 없으니 깨뜨릴 수도 없고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주의 근본실상인 하나의 마음자리를 확신하고 그 자리를 깨치고자 여러분이 정진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자님들께서 우리 본래 마음자리,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진여자성은 무량광불(無量光佛),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 했습니다. 빛이요 무한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광명체라 하였지만 마음이 우리의 여섯 기관을 통해 색(色: 물질) 수(受: 감수 작용) 상(想: 표상 작용) 행(行: 정신적 행위) 식(識: 알음알이)이란 오온(五蘊)의 작용에 끄달려 우리의 본래 실상인 진여자성이 가려져 있어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둘이 아닌 하나의 도리를 우리가 쓰지 못하는 것을 무명(無明)이라고 그립니다. 그런 능력이 있지만 불성이 분별하는 마음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불성을 가리고 있는 그 번뇌를 녹여 불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37가지 수행입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볼 때 불성이라고 합니다. 경계에 끄달려 가며 쓰는 마음은 번뇌이지 불성은 아닙니다. 근본 불성자리에서는 생사도 없고, 오고 감도 끊어지고, 좋고 나쁜 것도 아름답고 추한 것도 끊어진 무념(無念) 경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으로 보는 경지를 불성 또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의 도리를 확실히 깨달아 하나로 써야 되는데,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習) 때문에 하나로 쓰지를 못합니다. 늘 나누어 보고, 시비분별하는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습기(習氣)라는 것은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습을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일체의 선이라는 것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 해야 업에서도 벗어나고 해탈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깨달음의 뿌리에 의해 모든 공덕의 나무가 드러날 수 있으며 구경(열반)의 열매가 이루어진다' 고 했습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는 마음을 깨달았을 때 능력을 쓸 수 있고 불성이 드러나는데, 하나의 마음을 두고 정진하면 깨닫고 해탈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출강 및 통신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9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 (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 · 팩스 · 메일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팩스 02)737-5305

전과장님~~
법보 이번주 신문에 나가는
'동산불교대학' 광고...
요기에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



‘근본’에 대한 믿음 없으면 평등한 진여 못 만난다

정원 스님은 ...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하여 파주 고령산 도솔암으로 출가 했다. 통도사 강원에서 공부 했으며 군대를 다녀 온 후 독학으로 경전을 연구했다. 포교 현장에서 청년법회를 이끌기도 하고 봉선사 총무국장 등 소임을 맡았다. 도솔암과 불암산 석천암에서 정진했다. 2002년 봉선사 능엄학림에 입학하여 과정을 마치고 학감을 거쳐 현재 강사를 맡고 있다.

경전 공부는 원전 보면서 외우고 반복해야 지혜 생겨

교종본찰 봉선사 경학 수행도량으로 발전할 것 확신

봉선사 능엄학림 강사 정원 스님

세상이 온통 눈에 덮였다. 산과 들, 집과 길이 눈을 덮어쓰고 사금파리에 반사되듯 차가운 겨울 햇살을 쬐고 있었다. 온기를 잃어버린 겨울 햇살을 비집으며 조심조심 달리는 차들이 ‘문명의 이기’라는 오만한 이름에 대한 반성문을 쓰는 중이었다.

광릉 가는 길, 제설차가 올 겨를이 없는 수목원 길은 설국(雪國)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통로 같았다. 수목원 초입에서 좌측으로 차를 돌리면 곧바로 나타나는 봉선사 주차장. 눈이 수북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일주문에 닿으니 누군가 얌전하게 길을 쓸어두었다.

정갈하게 열린 길에 서니 주변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부도와 탑비들, 연꽃 유치원건물 그리고 고목들은 팔을 벌려 눈을 받아들고 있었다. 연꽃이 만발했던 못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눈만 덮여 있다. 그 속에 마른 연줄기와 달그락거리는 연밥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전통찻집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절 안으로 들어서는데 청풍루와 회랑채 사이의 좁은 문에서 스님 한 분이 나오셨다. 봉선사능엄학림 강사 정원(淨圓 · 64) 스님이었다. 허리 숙여 합장 인사를 올렸다.

“저는 스님을 뵈러 왔는데 스님은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나는 내 방에 가는데, 눈길에 시간을 잘 맞춰오셨군요.”

스님의 방은 정갈했다. 그리 밝지 않은 조명 속에 원전 경전들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 두 개의 책상위에도 원전들이 펼쳐져 있는데 까만 글씨들이 종이에서 튀어 오르는 듯 했다.

“원래부터 경학을 하셨습니까?”

여쭙고 보니 우문(愚問)이다.

“원래부터가 어디 있나요? 그저 인연이 닿았을 뿐이지요. 어찌어찌 그렇게 됐어요.”

우문에 현답(賢答)이 벼락같이 떨어진다.

어느 날 정원 스님은 어느 노스님의 부름을 받았다. 토굴을 하나 짓는데 일을 거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거절할 입장이 아니라서 바랑을 챙겨 노스님께 갔다. 이런저런 일을 도와드리고 이윽고 토굴이 다 지어졌다. 그리고 그 토굴에서 지내게 됐다. 노스님이 법당에 경전 한 질을 모셨는데 <화엄경>이었다. 구체적으로 ‘80화엄’이었다. 경전을 보는 순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냥 읽었다.

“80화엄의 현담이 모두 8권인데 그걸 읽으면서 나 스스로 번역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과연 내가 이걸 번역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조차 할 틈 없이 읽고 번역하는 일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경문을 적고 번역을 하고 주석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재미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현담을 번역해 보았는데 손으로 글씨를 쓴 A4 용지가 1000장이었고 각주를 1000여 개나 달았더군요. 아차, 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중처소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뜻이 있는 곳엔 길도 있다. 스님은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봉선사에서 ‘본사(本寺)가 있는데 굳이 다른 곳에서 공부하느냐?’는 말이 들렸다. 그래서 봉선사 능엄학림에 학인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됐다. 속가 나이 55세 때다.

“그 연세에 학인으로 학림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시 우문이다.

“아니지. 내 스스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학림을 마치는 6년 동안 즐겁게 공부했어요. 결국 공부는 대중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학인으로는 배우는데 매진하고 학감으로는 학감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봉선사의 한 축을 지킨 정원 스님은 ‘대중과 함께 하는 공부’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홀로 하는 공부는 진전도 느리고 자칫 나태해지기 쉽지만 대중이 함께 하면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태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강의를 준비하고 가서 학인들과 마주 앉아 공부를 하다보면 내가 모르는 것을 학인들이 알아 오기도 해요. 또 학인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하려면 내가 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문반 4명 연구반 5명. 9명의 학인이 수학 중인 능엄학림에서는 4교(전문반)와 <화엄경>(연구반)을 주로 공부한다. 정원 스님은 4교를 강의한다. 봉선사 능엄학림은 가르치고 배우는 도량이기도 하지만 경전에 대한 깊은 연구로 튼실한 결실을 내놓기도 한다. <대승기신론> <능엄경> <서장> <선요> <금강경오가해> <금강경간정기> 등의 사기(私記)를 완역하여 조계종교육원에서 출간했다.

사기란 경전을 연구하는 스님들이 경문이나 선대 연구자의 주석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따로 써 둔 메모다. 그래서 해서나 행서로 흘려 쓴 글씨의 판독이 어렵지만 경전 본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 18세기의 호남지방을 대표하던 강백 연담유일(1720~1799) 스님과 영남지방의 대강백 인악의소(1746~1796) 스님의 것이 대표적인 사기다.

정원 스님은 요즘 <원각경>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보통 <원각경> 연구자들은 함허(1376~1433) 스님의 주석서를 보는데 정원 스님은 규봉종밀(780~841)스님의 주석서와 사기들을 함께 대조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다. 책상에 펼쳐진 몇 권의 경서와 참고서적들이 <원각경>관련 자료들이었다.

“여러 자료들을 대조하고 내용을 꼼꼼이 살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공부가 짧은 제가 다 할 수 없으니 수시로 조실스님께 여쭈러 가야 해요. 조실스님께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명쾌합니다.”

오늘의 봉선사가 교종본찰인 것은 월초 스님에서 운허 스님으로 운허 스님에서 월운 스님으로 내려오는 대강백들의 굳은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봉선사의 어른들이 아니면 오늘날 동국역경원의 성과도 없었을지 모른다. 교학 발흥에 대한 선대(先代)의 유지를 일생토록 지켜 온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3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2월 26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011-743-5167

황토삼백초는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신종 플루가 걱정되는 지금
황토삼백초가 내 곁에 있어 좋다!!
삼백초는 항암과 성인병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멸종의 수난을 겪은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식물 177호입니다.
(주)천등소리에서 국내 최초로
대량 재배에 성공한 귀한 식물입니다.


◆ 황토삼백초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습니다.
◆ 황토삼백초 제품은 발효대사과정에서 중금속, 독성물질, 잔류농약 등을 무력화시켜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황토삼백초 제품이나 차를 꾸준히 드시면 힘이 넘칩니다.
(차, 환, 추출액, 발효원액 등)
참고문헌 : 삼백초 건강법, 삼백초 효소건강법, 증약대사전, 당본초, 영남채약록
☎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 본사 (055)945-2976, 2676, 2679
· 대구지사 010-2531-4785 / 인천지사 011-336-5843
· 서울지사 010-3119-1911
황토삼백초는 (주)천등소리의 등록상표입니다.

대중과 함께 공부해야 '힘' 생겨



조실 월운 스님이 역경과 후학양성에 남다른 열정을 갖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봉선사 능엄학림도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분의 선지식이 한 도량의 꽃을 피우고 한 종단의 향기를 드높게 하는 것이다.

"조실스님께 여쭈면 해결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 높고 넓은 공부를 후학들이 다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요. 조실스님께서도 늘 더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경원(經院)'을 설립해 평생 경전 연구에 매진하는 스님들이 배출되길 바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졸업을 해야 하고 졸업하면 배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얽매여 학문을 놓쳐버리는 것이 지금의 세태 아닙니까? 그러니 조계종에 일생을 아무 걱정 없이 경학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설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원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종본찰 봉선사의 위의가 그냥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스님, 현담을 번역하신 원고는 어찌하셨습니까?"

"그거? 학림에서 공부를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어설프기 작이 없는 것이어서 불살라 버렸어요."

다시 우문을 여쭌 것은 분위기를 전화하기 위해서였다.

"출타도 별로 안하시고 공부만 하시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요란 떨 일도 없어요. 아침에 잠이 깨면(3시) 누운 채로 두 발의 안쪽 면을 열심히 부닥칩니다. 팔굽혀 펴기를 200회 하고 아령들기, 발바닥으로 봉 굴리기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2000보 이상 포행을 해요. 이 정도면 건강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다 말다 하면 성취할 수 없잖아요."

경전을 공부를 하는데 있어 정원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외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복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 보다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원전을 공부해야 그 대의를 밝게 알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한다.

"공부를 하다가 중요하다 싶은 것은 따로 메모를 해서 외워야 합니다. 특히 경전공부에 있어서는 반드시 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경의 방대한 내용들을 확연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줄기를 간추려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나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구절들의 용례 등도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하는데 속도가 붙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요.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수록 외우는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 스님은 요즘 예불을 하기위해 법당으로 가는 동안 <원각경>의 대의를 간추려 적은 문장들을 암송한다. 외고 또 외우면서 그 행간 담긴 진리의 향기를 맡는 재미다. 어느 경전이든 한 번 봤다고 공부를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의 공부로 끝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공부다. 그래서 정원 스님은 자만하지 말고 본 경전을 또 보는 자세가 없이는 공부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원전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미 누군가가 번역 해 둔 것에 의지해 공부하면 그 번역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 원전을 보면서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보면 폭넓은 사고의 틀이 형성되고 거기서 '번쩍'하는 소식이 오기도 하는 것이다. 스스로 공부의 힘을 길러가는 것이다.

"서산 스님께서 '경야(敬也) 복야(伏也)'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공경진심(恭敬眞心)과 굴복무명(屈伏無明)인데, 참된 것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정신자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외우고 반복하고 함께하는 공부 방법이 어찌 강원이나 학림의 스님들께만 해당하겠는가? 학교교육의 위계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도 전통 강원의 교습법(논강)과 집중력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님께서는 어떤 경전을 좋아 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한 것이 결정적인 우문이다.

"특별히 좋아할 것이 없어요. 다 훌륭한 가르침이고 지혜의 말씀이니까요. 요즘 <원각경>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원각경>이 참 많이 와 닿습니다. <대승기신론>도 매우 권하고 싶은 가르침입니다. 거기서는 '4신'과 '5행'을 강조하는데 우선적으로 '근본을 믿으라(信根本)'고 하거든요. 일체법이 진여로 평등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불교 공부를 할 수 없고 수행도 신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근본을 믿고 불법승 삼보를 믿으라는 가르침을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시절입니다. 보조국사의 <진심직설>도 깊이 새겨 볼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의 경우 포행하면서 '제1 법회인유분'에서 '제5 여리실견분'까지를 반복해서 외웁니다."

물질이 풍족해지고 교통과 통신 수단이 첨단으로 발달한 시절, 수행자들의 공부도 진화해 가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진심(眞心)'과 '성심(誠心)'이라는 수행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할수록 경문 한 글자, 한 단어, 한 대목을 두고 몇 날을 고민하는 학인의 정신이 더욱 빛나야 할 때이기도 하다. 학인의 정신이 진심과 성심을 벗어난다면 팔만대장경이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요즘 조실스님을 도와서 운허 큰스님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방대한 자료도 놀랍지만 모든 자료들에 스며 든 큰스님의 정성이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신도에게 주는 계첩 한 장에도 반듯한 글씨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신 큰스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보이니까요."

새삼 교종본찰의 엄숙한 분위기가 주는 무언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정원 스님은 능엄학림에서 많은 강백들이 배출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7. 남하 운학 대화상

근대 영암출신 불교학자로서 김지견 박사님, 길철진 교수 등을 손꼽고 있으나 운학(雲學) 김강모(金彊模, 1934~1981) 스님이 먼저 테이프를 끊은 셈이다.

운학 스님은 조선대학을 중퇴하고 나주 다보사 지효(智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1957년 <현대문학>에 '공자의 문학관'을 발표해 주목을 끌면서 64년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66년 동국대 불교과를 졸업했다.

68년 타이 방콕에서 열린 세계불교교육자대회에 참석한 뒤, 일본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 불교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며, 73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재일홍법원(在日弘法院) 교무국장을 역임했고,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과정에서도 수학하였다.

껀찡한 키에 검정 태 안경을 끼고 깡마른 얼굴에 푸르스름한 입술을 가져 스님 보다는 학자적인 기질이 더 강했다. 1973년 동국대학교 선학과 조교수로 부임한 뒤 74년 현대문학상 평론부문 대상을 받고, 불교문화예술원 원장에 취임하면서 78년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위원이 되었다. 81년 10월까지 후학들을 양성하는 한편 불교문학연구에 주력한 스님은 저서에 <삼매(三昧)의 언어> <신라불교문학연구><향가에 나타난 불교사상>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유심안락도> <금강경오가해> <숫타니파타> <불교성경> 등이 있다.



특히 1981년 발행된 <한국의 차문화>는 우리차 부흥운동이 고조되던 시기에 '우리차 바로알기'를 기치로 쓰여진 책으로 차인들의 교본이 됐다. 이 책의 특징은 차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와 문학을 다루었다는 데 있다. 경전상의 차, 일본 등의 선다와 비교 설명하고, 신라 고려 조선시대 다인들의 다시(茶詩) 등 우리 문학과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차문화의 영향을 밝혀냈다. 또한 차의 고전인 초의 선사의 '동다송', '다신전'을 원문과 함께 해설했으며, 당나라 육우의 '다경'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젊은 나이에 산처럼 쌓인 원고를 밤새도록 처리하고, 또 종단 행정, 학교(동대) 강의, 행정업무에 까지 관여하는 와중에 격무로 1981년 48세의 세수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되었다.

필자와는 한국불교 의식을 현대화 하는데 함께 뜻을 모으자 하여 권상로 박사님과 함께 동참한 일이 있다. 이 때 번역된 것과 한글 천수경이 모두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할 때 정구업 진언(淨口業眞言)을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라고 제목까지 번역 하느냐, 아니면 번역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한참 동안 고심한 바가 있다.

특히 스님의 향가에 관한 논문은 일본불교와 문학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향가에 나타난 불교사상'과 '신라불교의 특수성' '균여의 문학적 위치'는 알기 쉬운 문학을 통해 대중불교를 일으켰던 신라 고덕(高德)스님들의 역할을 크게 살렸고, '향가와 일본가요 가사와의 관계'를 통해서는 일본 노래가 한국 향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됐다.

그래서 스님의 학문은 난해한 글 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즉흥적인 노래가 포교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평론에 있어서도 어떤 범주에 갇혀있는 이야기보다는 차 한 잔 마시며 <금강경오가해>를 읊는 자율정신으로 평론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옛말에 '천재(天才)는 요사(夭死)'라 하더니 한국의 불교문학에 씨앗을 뿌려놓고 아직 막 흙을 덮기도 전에 된서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정도로 스님의 죽음이 안타깝게 생각됐다.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자식이라 생각하면
백성들이 그 사람을 알리라
꾸물 거리는 중생들을
먹여 살려 다스리면
이 땅 어디를 버리고 가려하겠는가
나라 안이 유지 되려면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라
나라 안이 태평해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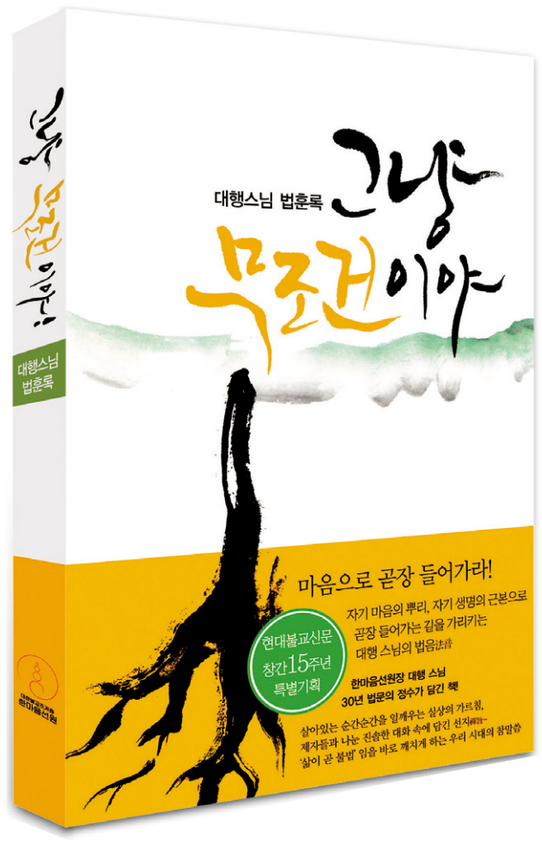
영암 출신 불교학자 첫 테이프 끊어… 불교문학연구에 주력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나타나면 스님은 충담 스님의 '안민가(安民歌)'를 높이 읊으며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하지만, 중이 중답게 살아가는 데는 세상과 중생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하였다.

문학과 철학을 통해 지성불자를 양성하며 이성적 불교를 사실적 행동에 옮기려 노력했던 스님, 현대불교에 한 막의 연극을 연출하다 가신 스님이 김운학 스님이다.

현대불교신문 창간15주년 특별기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30>

절제 · 검약 모든 미덕 포용하는 경제적 가치

자기가 얻은 '부'는 모두 자기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

대승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란 법문이 있다. 이 '불성'에 관한 훌륭한 설명이 <여래장경(如來藏經)>에 실려있다. 거기에는 번뇌가 꿀벌(蜜蜂), 불성은 꿀(蜜)에 비유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꿀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꿀벌을 내쫓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꿀벌을 죽여 버려서는 다음번에 꿀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우리는 꿀벌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꿀(불성)을 얻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얘기는 실로 좋은 사례이다. 여기서 인간의 번뇌를 경제활동, 꿀을 신앙심이라고 해보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한 인간으로서 격심한 경쟁사회 속에서 경제활동을 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인생과정에서 좀체로 마음의 안식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활동을 쉬면서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부처가 되기 위한 실천 수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보시행은 밑천이 없으면 실행이 어렵다. 그래서 다시 번뇌의 세계로 되돌아가 경쟁속의 경제활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경쟁이란 무엇인가?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기업과 가계를 생각해보자. 우선 기업의 바람직한 경쟁은 소비자의 행복에 얼마 만큼 봉사하느냐에 초점을 둔 경쟁 개념이다. 동일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동업종 내에서 타사에 지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쟁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 경쟁은 기술(품질)경쟁이어야지 단순한 가격경쟁이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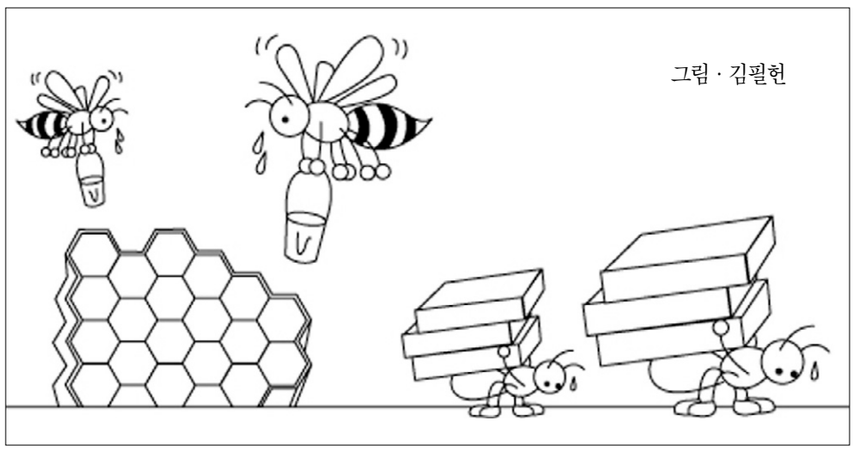
예를 들어, 대규모 '제철' 회사가 자본의 힘을 앞세워 '라면' 업계에 뛰어들어 시장가격 보다 싼 값의 라면을 만들어 시장 지배력(share)을 형성하는 행위는 배제되어야할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가계(家計)에 대해서는 전심으로 개미처럼 힘쓰고 꿀벌처럼 애써야 한다. 헛되이 남의 힘을 믿고 그 베품을 바라서는 안된다."

이것은 불교성전인 <육방예경(六方禮經)>에 쓰여있는 말이다. 이 경(經)에는 가계야말로 인간이 독립하여 사는 기본이라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인간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이 탄탄한 경제기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설파되고 있다.

가계는 노동의 대가를 기초로 해 그것을 사려 깊게 소비함으로써 개인 및 각 가정생활에 독자적 색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가계의 모습이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결정 지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구경>에는 "애써 힘쓰고 노동하여 얻은 부(富)는 자기의 성과품이라 생각하여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만 소비해서는 안된다. 그 얼마쯤은 남을 위해 이것을 나누고, 또 얼마쯤은 비축해 두고서 불시의 용도에 대비하고 국가 사회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한국 국민은 경제개발이 진전되는 동안 '스스로의 생활도 아직 충족하지 못해 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남을 위해 나눈다'든지 '사회기부' 행위보다는 자기만의 축재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태도를 취해왔다. 물론 불교에서도 생활의 간소화와 질소(質素)를 중요시한다. 절제와 검약이란 다른 모든 미덕을 포용하는 최상의 경제적 가치이다. 마치 겸양과 하심(下心)이 모든 도덕을 앞지르는 최상의 윤리적 가치이듯이 말이다. 그러나 아끼고 절약함이 지나치면 인색하고 그러한 정도가 심해지면 도리어 바른 도리를 해치고 만다.


그림 · 김필헌

불교에서는 특히 나눔의 행위 즉, '보시'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보시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돈 한 푼, 꽃 한 송이라도 나누는 것을 권하고 있다. 나눠 줄 것이 정녕 없다 할지라도 '무재(無財)의 칠시(七施)'라 하여 웃는 얼굴이나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훌륭한 보시로 삼고 있다.

석존은 오늘날 생활설계의 잣대라고 할 재(財)의 4분법을 설파했는데, 노동으로 얻은 부(수입)를 다음 네 가지로 나눌 것을 권하고 있다.

(1) 가계비(개인 및 가정의 소비)
(2) 사회적 지출(세금이나 보시)
(3) (기업 등의)운전자금
(4) 저축(불의의 재해에 대비함)

불교의 인생관으로서 보시와 함께 경제생활에 관해 저축을 중시한 점도 특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시대의 수모와 6.25한국전쟁 등 뼈아픈 고통을 겪고 '보릿고개'의 절대 빈곤을 실감하면서 경제적 행복이야 말로 인생의 행복이며, 그것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일밖에 없다고 믿은 나머지, 만모니즘에 빠져 격렬하게 살고 있다. 가계는 부동산 투기 등 갖가지 돈벌이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 축재에만 몰입해 왔다. 그 이면에는 소비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근대경제학의 사고가 있어서, 국민총지출의 크기가 국민경제의 성장을 통한 행복의 척도라는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맞벌이 취업이 증가해 아이들은 열쇠지기가 되고 있다. 확실히 옛날보다는 우리나라 가계는 풍요로워지긴 했지만 어느새 가정의 실태는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 크게 바뀌어 생각지 않은 가정파괴 등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다. 불교경제학의 입장에서 한국 가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불교경전에서 설하듯이, '얻은 부(富)는 모두 자기 것으로만 생각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소비해서는 안된다'는 법문 속에서 오늘날 가계운영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덧 한국도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평균 여명이 80세 시대로 접어 들었다. 그러나 인생은 길게 봐야 겨우 백년이요, 그 백년은 긴 것 같지만 역시 찰나(刹那)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 삶을 누리면서 생명이 있는 동안 즐겁게 사는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한 평생도 결국 찰나임을 깨닫고 보람된 삶의 정진에 힘쓰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㉚ 각주구검

2003년, 새로 맡게 된 회사의 일로 연말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새해를 맞았을 때의 일이다. 습관화된 대로, 한 해를 돌아본다고 책상 앞에 앉았다가 쓴웃음처럼 '각주구검(刻舟求劍)', 그 날의 글 제목이 떠올랐던 것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6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어서, 그 동안에 나는 4년간의 징검다리 사장 노릇을 끝으로 경영직에서 은퇴하였고, 그 후 코칭 공부에 전념하여 전문코치가 되었다. 이미 장가 들였던 큰 아들에 딸 둘 마저 시집 보내 혼사를 다 끝냈으며, 2006년 손자가 하나에서 둘로 불어났고, 2005년에 태어난 외손녀가 하나, 다음 달이면 외손자가 하나 또 태어날 차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에 썼던 글을 찾아 갑신년을 기축년으로, 을유년을 경인년으로 바꿔넣으니, 6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내용이 그럴듯하게 들어맞는다. 변한 것은 겉모양일 뿐, 마음공부에는 아직 큰 진전이 없었다는 부끄러운 말씀이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얼빠진 무사 하나가 졸다가 손에 들었던 자신의 검(劍)을 강물 속에 빠뜨렸다. 빠진 자리를 표시해 놓아 나중에 그 검을 찾을 욕심으로 주머니 칼로 뱃전에 표시를 해놓았다는 중국의 고사(故事)를 일러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 한다. 기축년(己丑年) 지나니 경인년(庚寅年) 아니냐고, 흐르는 세월의 뱃전에 주머니 칼로 금(線) 하나 그어놓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본답시고 책상머리에 앉은 내 꼴이 이 무사와 진 배 없다는 탄식이다.

허달의 불교와 코칭

뜻있는 금 하나 다시 그을 수 있기를…

불학(佛學)에 '심(心)의 찰나(刹那)'라는 말이 있다. 영어로는 'Thought-moment'라 한다는데, 본디 무상(無常)한 일체의 존재는 매 찰나마다 생주이멸(生住異滅)을 거듭한다는 뜻이니, 존재라 이름하는 바 환(幻)의 끊김과 이어짐을 설명한 것이다. 오래 전에 읽은 영어 불교입문서에는 '매 찰나 그대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Every moment you die and rebom)'라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쓰여져 있었다. 누군가의 해설을 빌리면 활동사진이 1초에 25장 화면(Frame)이 돌아감으로써 관객에게는 마치 연속하여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의 단속(斷續)이 중생에게는 연속하여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착시 현상에 준한다는 것이다. 단속(斷續)하는 환(幻)의 찰나 그 화면 사이에 금을 긋는다면 아마도 그 금은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진공일 것이니, 이로써 일순 온갖 환이 사라질 것이다.

금 긋기라면 뱃전에 어설픈 칼자국을 낼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이런 금 긋기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손지우손(損之又損), "덜어내자 덜어내자" 입으로는 6년을 별렀건만, 구두선(口頭禪)의 결과는 역시 별무신통이다.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위에 금 하나 긋고 돌아보면 저 금과 이 금 사이에서 아직도 두 가지 상념이 떠오르는 것이 보인다.

구차스러운 안도(安堵) 몇 가지, 그리고 아직도 착(着)을 내려놓지 못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석념(惜念)이다. 허구로 만들어놓은 대차대조표에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무의미한 덧셈과 뺄셈을 되풀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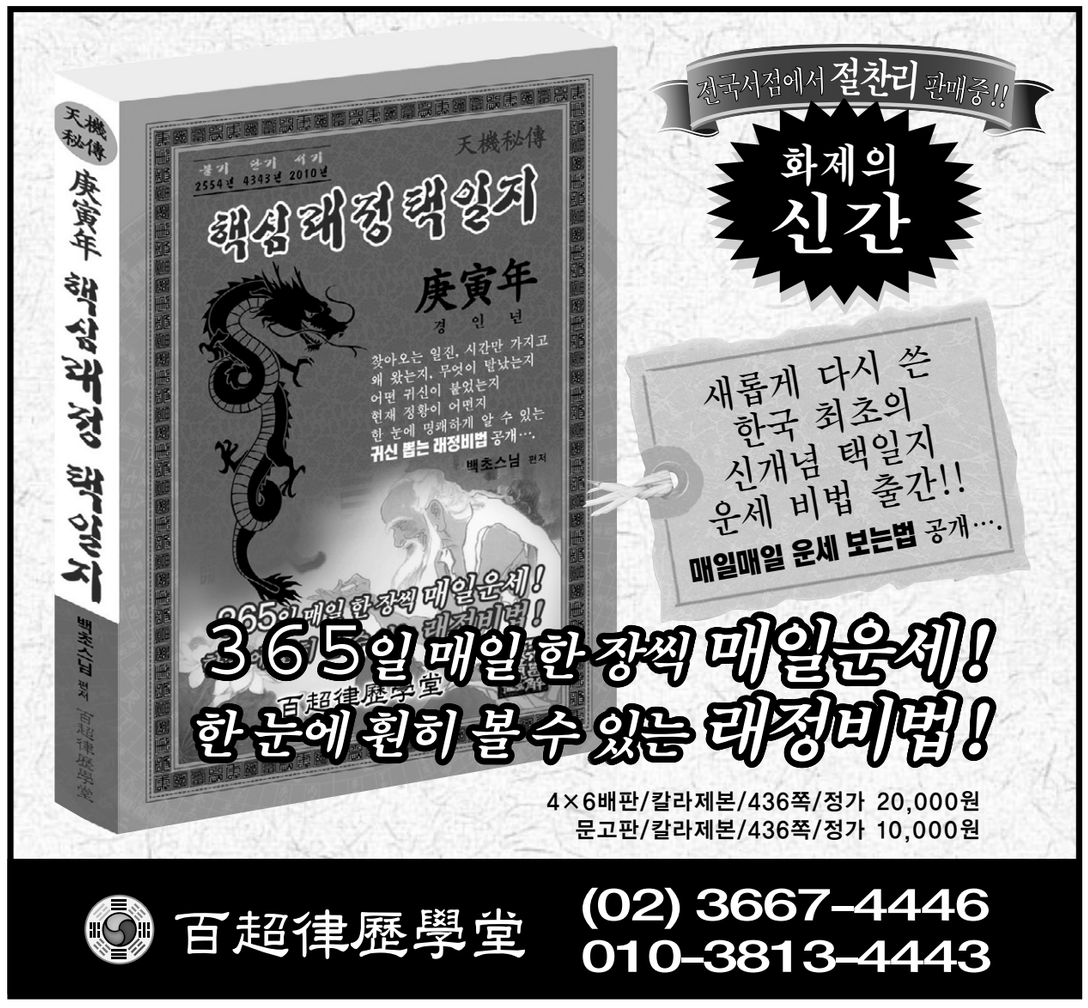
나선(螺旋) 운동의 아름다움은 한 바퀴 휘돌아와서 자신이 떠난 자리를 내려다 보는 데 있다고 한다. 한 해를 더 살고 되돌아와 경인년과 신묘년(辛卯年) 사이에 다시 뜻있는 금 하나 그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니 그것이 언제 오든, 마침내 삶과 죽음 그 '심(心)의 찰나' 프레임 사이에 금 하나 그을 때, 오늘 떠난 이 자리를 넉넉한 마음으로 내려다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각주구검' 표지 밑 거기, 시공(時空)의 강물 속에 제아무리 자맥질한다 해도, 마침내 잃어버린 검을 되찾을 수 없음을 스스로 이룬 지혜로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보란 '늘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정의를 코칭 워크숍 어느 곳에선가 인용했던 기억이 난다.

간디는 사탕을 과도하게 먹는 버릇 때문에 병든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 먼저 2주씩이나 걸려 자신의 사탕 먹는 습관을 버리고 나서, 비로소 아이를 불러 가르침을 주었다던데….

부끄러운 마음으로 금 하나 그어 다시 시작하자. 주머니 칼로 뱃전에 그은 얼빠진 표지(標識)가 되든, 보리(菩提)를 찾아 떠나는 발심의 출발선이 되든, 다 마음먹기 하나에 달린 것 아니겠는가?

■ 한국코칭센터 고문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화제의 신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365일 매일 한 장씩 매일운세!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百超律歷學堂 (02) 3667-4446 010-3813-4443

베스트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백초귀장술 上·下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조사를 확실하게 설명!
㊤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신국판/양장본/720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비법전수중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호랑이 만나러 화랑에 가볼까?

2010년 경인년은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백호의 해답게 새해부터 흰 눈들이 묵은 때를 경결(耿潔)하게 만들어 주듯 온 세상을 덮었다. 호랑이는 예부터 우리민족에게 각별한 동물로서 수호의 신으로도 불리며, 풍요와 희망을 상징했다. 그래서인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호랑이와 관련된 상품들과 이벤트 행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화계 역시 호랑이와 관련된 각종 전시와 행사들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용맹스럽고 늠름한 호랑이의 모습부터 우스꽝스럽고 해학적인 호랑이 표정까지,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다양한 호랑이 전시행사들을 즐기면서 백호의 푸른 눈처럼 빛나는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 보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서공임 작가의 作 '한 남자 가슴에 별을 품고 앉아 있스빈다' (왼쪽).
'지는 꽃 피는 꽃 나비처럼 나풀거린다' (오른쪽).

민화가 서공임 작가는 경인년을 맞아 100마리 호랑이들을 세상에 나들이 시킨다.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명품관 에비뉴엘과 롯데갤러리(02-726-4428)에서 2월 28일까지 '100마리 호랑이' 전을 연다. 서공임 작가는 전통민화 호랑이와 현대적인 호랑이 100마리를 재해석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느낌으로 작품을 연출했다. 이웃집 아저씨나 동네 할아버지 같은 친근한 한국 호랑이, 까치나 토끼와 어울려 있는 익살스러운 호랑이까지 다양한 호랑이들을 선보인다. 이송자 화백은 자신의 결혼 30주년을 맞아 '내가 만난 호랑이' 전시를 연다. 이 화백의 사랑이 듬뿍 묻어나 있는 호랑이 모습은 경견하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이송자 화백의 '내가 만난 호랑이' 전은 인사동 경인미술관(02-733-4448)에서 1월 20~26일 전시된다. 또 서울 인사동 갤러리 북스(02-737-3283)는 3월 2일까지 두 달간 '호랑이 미술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윤성지 작가의 '맹호 백태' 전을 시작으로 △조병완의 호랑이전 (1월 13~24일) △10명의 카투니스트들이 선보이는 '만화로 보이는 호랑이전' (1월 25일~2월 7일)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인 안장헌의 '왕릉의 돌호랑이 사진전' (2월 8~20일) △호랑이 민화, 민속 소품전(2월 21일~3월 2일) 등 5회 연속으로 다양한 장르의 호랑이전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신광섭, 02-3704-3152)은 3월 1일까지 '변신(變身), 신화에서 생활로' 특별전을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2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생활문화에 깃든 호랑이 모습과 상징체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망해 보는 자리이다. 신격화된 호랑이의 모습, 벽사(辟邪) 기능의 호랑이 모습, 설화속에 등장하는 호랑이 모습 등을 소개한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 054-740-7540)은 '경인년, 새해맞이 작은 전시 호랑이' 전에서 호랑이 모양 허리띠고리, 까치호랑이가 그려진 청화백자 항아리를 비롯해 호랑이무늬 청화백자 왕사발 등을 3월 21일까지 전시한다.

지금까지 호랑이를 단지 눈으로만 봐야하는 전시였다면 호랑이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됐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종천, 032-590-7026)은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호랑이의 생생한 모습을 만져볼 수 있도록 호랑이 박제표본 전시를 연다. 평소 안전상의 이유로 먼 곳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호랑이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이다. 국립생물자원관 김종천 관장은 "호랑이의 생태적인 특성과 우리 전통문화 속 호랑이의 모습을 통해 호랑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호랑이 박제표본 만져보기 전시와 더불어 호랑이 관련 자료 전시와 체험활동도 함께 제공한다. 전시 관람은 2월 28일까지이다.

니르바나 '화폐' 테마 음악회

욕망의 상징인 돈. 인간이 만들어낸 순수예술 클래식. 이 둘이 만나 하모니를 연출한다.

니르바나 솔리스트 앙상블(단장 강형진)은 2010년의 첫 기획연주로 화폐에 등장하는 작곡가들을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들려준다.

세계화폐연구소장인 배원준씨의 '화폐 콜렉션'을 모티브로 한 이번 공연은 지폐인물에 선정된 작곡가들을 테마로 선정해 음악회를 연다. 연주회에는 배원준씨의 콜렉션에 들어있는 작곡가 20여 명 중 우리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쇼팽, 모차르트, 드뷔시, 슈만, 스메타나 등 5명의 작곡가를 선정해 '렉쳐 콘서트(Lecture Concert)' 형식으로 진행한다.

니르바나 필의 강형진 단장은 이번 공연에 대해 "화폐라는 낯익은 매개체를 통해 음악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니르바나 필은 기존에도 지휘자가 작품해설을 하는 연주회를 자주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곡가들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물론, 연주자들이 해당 레퍼토리의 메인 테마, 연주기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줘 공연의 이해와 재미를 높여줄 예정이다.

강 단장은 "화폐에 등장하는 작곡가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업적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화폐에 등장했다고 해서 모두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은 아니다"라며 "돈과 인생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런 삶의 아이러니를 이번 연주회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원준씨의 화폐 콜렉션 일부가 이번 공연을 위해 공연장에 전시되며, 니르바나 솔리스트 앙상블의 '화폐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는 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세종체임버홀에서 열린다. 선율 속에서만 존재하던 음악인들을 화폐를 통해 만나는 이색적인 즐거움을 이번 연주회를 통해 느껴보자. (02)718-4599

이은정 기자

'불수'로 빚은 청화백자 展

<佛手>



서울역사박물관이 우리 유물에 표현된 식물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3월 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전시되는 '불수(佛手), 그 손에 담긴 향기로운 꿈'은 봄의 모란, 여름의 연꽃, 가을의 들꽃에 이어 불수(佛手)로 마지막 전시를 장식한다. 이번 전시에는 불수로 표현된 백자 17점이 소개되며, 이들은 모두 조선후기의 작품들로 불수문이 도안화되고 장식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자청화불수문대합'은 합(盒)의 뚜껑과 합신(盒身)의 전면이 불수로 도안화돼 있으며, 장식이 백색과 청색으로 조화를 이뤄 이색적인 멋을 낸다. 이밖에도 불수는 병, 항아리 등에도 등장해 길상적 의미로 상징된다.

불수는 운향과 귤 나무속에 속하는 상록활엽수종으로 열매 모양이 부처님 손을 닮았다 해 불수(佛手)라 불려진다. 열매치고는 다소 기괴하나 불(佛)은 복(福)을 수(手)는 수(壽)와 각각 중국식 한자어 발음이 유사해 복과 장수의 의미로 표현된다. 또 불수는 방향성 식물로 청나라의 서태후가 자금성에 자신만의 공간을 불수로 가득 채워 향수로 애용하기도 했을 정도로 향이 일품이다. 중국에서는 새해를 맞아 지내는 제사에 불수를 제수로 올리며,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식물로 여겨진다. 새롭게 새해를 맞이한 경인년에, 복과 장수를 담은 향기로운 불수를 감상하며 한해를 염원해 보자. 02-120

이은정 기자

19일까지 허유지 사경작품전 열려



사회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현대성은 전통과 현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탄생된다"고 말했다. 주목받지 못하는 전통을 끊임없이 현대와 상호조율 해야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면서 전통이라는 외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허유지 작가다. 허유지 작가(사진)는 20여 년간 서예라는 길을 걷다 몇 년 전 사경작품을 하면서 제5회 서예문화대전 사경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부처님 진리의 말씀에 집중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죠. 오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경수행에 정진하다 보면 하루가 짧기만 합니다."

허유지 작가는 "사경을 할 때는 번뇌나 망상 따위가 생길 틈이 없다"고 말한다. 경전을 조성할 때는 무엇보다 작품에만 정신을 집중해야 좋은 작품이 탄생되기 때문이다. 이런 허유지 작가의 사경작품은 1월 13~19일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에서 관람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이 가장 큰 적이라 말하셨죠. 그동안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 한 저의 사경작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청정한 연꽃으로 피어나 행복해졌을 합니다."

사경작품이 완성됐을 때에는 본인도 모르게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는 허유지 작가. 흔들리지 않는 한 결 같은 마음으로 써내려간 그의 작품을 통해 다시 한 번 올곧은 부처님 말씀을 되새겨 보자. (02)736-6347

이은정 기자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삼베훼이셜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 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소신공양으로 불교탄압에 맞선 틱광득 스님

틱광득 스님의 소신공양 재구성한 소설 '분신' 출간… 미야우치 가쓰스케 작품

"1963년 남베트남 사이공. 불교를 탄압하는 남베트남 정부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린해 오는 미국에 항의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한 승려가 있었다. 연꽃 같은 아시아의 사상이 과격하게 피어난다!"

이런 캡션과 함께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말콤 브라운(Malcom Browne)에 의해 촬영돼 '1963년 세계의 보도사진'에 선정된 이 한 장의 사진에는 격렬한 불길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스님이 있었다.

때 마침 뉴욕 슬럼가에서 주은 신문에서 우연히 본 이 장면에, 얼어붙는 충격을 받은 일본인 작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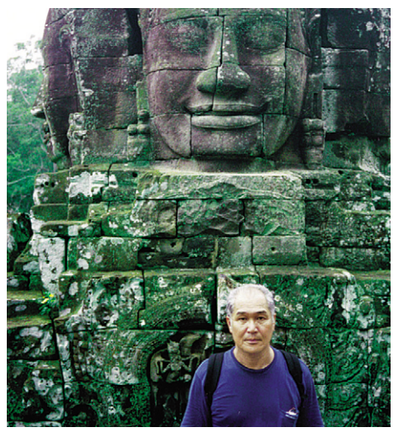
그리고 2002년, 또 다시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9 · 11테러였다. 초고층 빌딩이 불타며 푸른 하늘에서 무너져 내리는 영상을 보면서 작가의 뇌리에 다시 그 소신공양 사진이 되살아났다. 작가의 기존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절, 가슴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스님을 알기 위해 작가는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다. 그가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애타게 희구한 것은, 힘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시아의 숭고한 사상이었다.

베트남의 '영원한 심장', '부처의 환생'으로 불리는 틱광득(Thich Quang Duc, 釋廣德) 스님의 소신공양 과정을 재구성해 소설화한 <분신>(토향)이 번역(김석희) 출간됐다. 2005년 제56회 일본 '예술선장(選奬) 문부과학대신상', 제57회 '요미우리문학상'을 수상한 이 소설에서 일본의 중견작가 미야우치 가쓰스케(宮內勝典)는 틱광득 스님을 취재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1963년 소신공양을 단행한 베트남의 틱광득 스님(말콤 브라운 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취재 중인 미야우치 가쓰스케.

#진실의 힘 보여준 주인공을 찾아

미국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아프간 폭격이 시작되었다.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던 나(미야우치 가쓰스케)는 학생들과 반전(反戰)데모로 나섰다. 학생들은 진지한 눈으로 묻는다.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나 역시, 믿을 만 하다고 생각했던 사상가나 작가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우고 있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그것은 간디, 그리고 베트남에서 분신자살한 X스님이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X스님의 자취를 더듬기 위해 나는 베트남을 향했다.

X스님의 이름은 틱광득. 그 이름만 들어도 눈시울을 붉히고 두 손을 모으는 베트남인들이 있는데, 그의 흔적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지운 듯 쉽게 보이지가 않는다.

X스님이 분신을 할 당시, 열렬한 가톨릭 신자인 응오 딘 지엠 대통령과 그의 일가족이 베트남을 가톨릭교국으로 만들려고 불교를 탄압하고 있었다. 승려들의 부당체포와 고문, 그리고 학살이 이어지며, 비폭력으로 맞서 싸우는 불교도들의 희생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 때, 틱광득 스님이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분신 보도를 접한 응고 딘 지엠 대통령의 재수인 마담 뉴는 비웃었다.

"중의 바비큐라니 재미있네!"

그리고 나는 드디어 이 분신을 연출한 스님을 찾았다.

"틱광득 스님의 죽음을 개 죽음으로 만들면 안 된다. 단 한 사람의 아시아인의 정신력으로 전 세계를 떨게 만드는 것이 내 역할이다."

나는 알고 싶다. 틱광득 스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법난 극복 · 불교 중흥 발원한 원력보살

저자가 취재한 틱광득 스님의 일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틱광득 스님의 일생이 자세히 알려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님은 1897년 베트남 중부 칸 화성 반닌현 호이 캉 마을에서 태어났다. 속명은 람 반 팟(林文發). 일곱 살 때 양친의 뜻으로 출가했다. 숙부인 호안 담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구엔 반 키엣으로 개명했다. 열다섯 살 때 사미계를, 스무 살 때 비구 및 보살계를 수계했다. 법명은 티 투이, 법호는 틱광득이다. 그후 스님은 전심을 다해 불도를 닦아 닌 호아 산중에 승방을 마련해 3년간 홀로 수행했다. 그후 그는 이 산에 천록사(天祿寺)를 창건했다. 하산한 뒤에는 시주를 받으며 홀로 베트남 각지를 편력한 후 2년만에 닌 호아의 천은사(天恩寺)로 돌아갔다.

1932년 '안 난 불교회'가 설립돼 하이둑사의 장로스님이 호아불교회 지부의 도사(導師)로 초빙했다. 거기서 활동하는 동안 스님은 14곳의 절을 건립하거나 복원했다.

1943년 베트남 중부에서 남부로 내려가 사이공, 자딘, 타이닝, 바리아, 하티엔, 카이라이 등지에서 포교하며 캄보디아에 당도했다. 3년동안 프놈펜에 머물며 베트남 불교도를 교화하면서 팔리어 경전이나 테라와다(상좌부)불교를 배웠다. 이후 베트남 남부로 돌아와 사이공시 3구의 롱빈사에 주석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롱빈 스님'이라고 불렀다.

1953년 남월불교회 부이사장과 의례위원장 직에 초빙된 그는 남월불교회 최초의 본부가 있던 포크호와사 주지에도 임명됐다.

1958년 남월불교회 본부가 싸러이사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그는 직책을 사임하고 각지를 돌며 포교에 나섰다. 그는 일생동안 31개의 사원을 건립하거나 복원했다. 마지막에 주지를 맡은 사원은 후뉴앙구 구엔 훼 거리 68번지에 위치한 관세음사(觀世音寺)이다. 그 길은 뒷날 '틱광득 거리'로 개명됐다.

1963년 스님은 65세의 노령에도 불교도들의 투쟁에 적극 참여했고 단식을 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톨릭 정부의 탄압은 더욱 과격해지고 훼에서는 가슴 아픈 학살이 일어났다. 같은 해 5월 27일 통일불교회에 '소신공양 청원서'를 제출한 스님은 6월 11일, 스스로의 몸을 불살라 공양하겠다는 심원(心願)을 결행했다.

#대통령에게 종교평등정책 실행 호소

소신공양 일주일 전에 쓴 '심혈의 결심'이란 유서에서 스님은 "우리나라 불교가 고난의 때임을 보고 여래의 장자(長子)로 명명되는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 나는 불교가 멸망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이 한 몸 불살라 제불(諸佛)에 공양하고, 그리하여 불교를 지키는 공덕을 행할 수 있기를 기꺼이 청한다"고 밝혔다. 부처님의 크신 은혜로 베트남의 승려와 불교도들이 테러, 구속, 감금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안락할 것을 기도한 스님은 가톨릭 신자인 응오 딘 지엠 대통령에게 종교평등정책을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함께 발원문에 남기기도 했다.

"눈을 감고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감히 응오 딘 지엠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박애와 자비의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종교평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그리하여 영구적으로 나라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국어판 소설 제목을 <소신(燒身)>으로 하지 않고 <분신(焚身)>으로 정한 저자는 틱광득 스님을 '부처의 환생'이라고 결론 짓고, <법화경> '약왕보살품'에 묘사된 소신공양(burning service)의 공덕을 인용하는 글로 중생의 고통을 대신해 열반한 현대판 보살의 원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암흑을 깨는 횃불처럼 올바른 가르침의 백련(白蓮)은 모든 괴로움과 병, 윤회, 속박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생사의 대해를 건널 것이다."

현재 일본의 중앙일간지에 무저항주의의 상징인 간디의 일대기를 소설로 연재 중인 저자는1년간의 연재가 끝나는 5월경,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불자와 문인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분신 | 미야우치 가쓰스케 저, 김석희 역 | 토향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지혜의 검|성엄 선사 말씀, 대성 옮김|탐구사 펴냄|1만3500원

<육조단경><신심명>과 함께 선가에서 가장 사랑받는 깨침의 법문을 담은 <증도가>와 <반야심경>을 대만의 고승 성엄(聖嚴, 1930~2009) 선사가 강의한 책이 나왔다. 성엄 선사가 1982~85년 네 번에 걸쳐 주재한 선칠(禪七: 7일 단위로 계속되는 집중수행)에서 강설한 이 법어집은 당나라 때의 고승 영가(665~713) 선사의 깨달음의 노래를 통해 본래성품, 즉 불성을 발견해 삶이란 꿈에서 깨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성엄 선사는 "이 업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 순간을 명료하게 자각하면서 사는 것"이라며 "법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자각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명료히 의식하며 불법을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한다.



그대 돌아갈 곳이 있는가? | 경정 정사 지음 | 더북스 | 1만원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과 부딪치더라도 그를 수용하고 새로운 활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리, 즉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 돌아가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安住) 곳은 어떠한 장소나 사람이어도 좋다. 나아가 마음의 안식처이자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성품(本性)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진각종 교육원장 경정 정사가 쓴 <그대 돌아갈 곳이 있는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담임선생님 등으로부터 받았던 가슴 뭉클한 감동에서부터, 인도 델리대학교 유학시절의 단상 등 삶의 경험을 통해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향하며 사는 법을 일깨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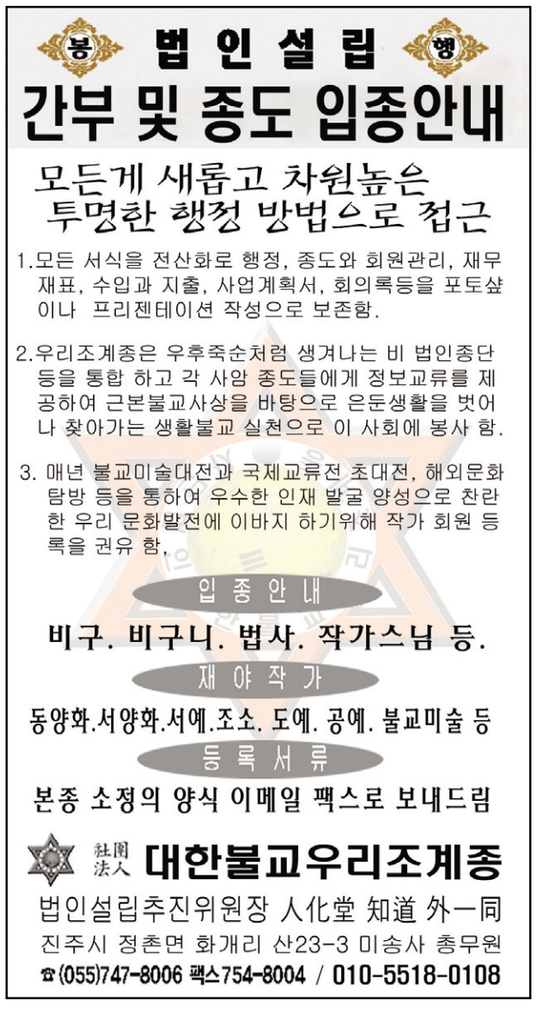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뜰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4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5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경일外	솔바람
6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7	인과경	현담	선
8	내 마음은 금부처	대행	한마음선원
9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10	금강경 이야기	김동규	금강경독송회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C766-191904.2.152:22PM페이지1(1,1)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라야 중노릇도 공부도 잘되는 법”



혜암은 해인사 부방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상좌를 많이 받아들였다. 해인사 큰스님 혹은 수좌계의 대표로 존경을 받게 되자, 행자들이 서로 은사를 삼으려고 했다. 그러나 은사를 삼으려고 해서 다 은사인연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은사인연이 있으면 행자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졌다.

대학을 다니다가 인생길을 바꾸고 싶어 출가한 지도(知道)가 그런 경우였다. 해인사 공양간에서 행자생활을 하다가 무심코 산내암자인 원당암을 찾아가게 됐고, 전생의 인연이 이어지듯 혜암과의 사제관계가 쉽게 맺어졌던 것이다.

행자생활 중에 맞이하는 초파일이었다. 아침 7시쯤이었다. 장작불에 가마솥 밥을 하고 난 뒤 행자생활을 한 지 처음으로 일주문을 벗어나 산길을 걸었다. 마음이 가는대로 걸어가자 이윽고 작은 암자가 하나 나타났다. 암자 편액을 보니 원당암이었다. 그는 법당으로 들어가 삼배를 했다. 법당 오른편에 자리한 요사가 원주채였다. 원주채 방에도 불이 켜져 있고, 토방에는 작은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었다.

그는 불쑥 원주채 방으로 들어가 노스님 혜암에게 삼배를 올렸다. 혜암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물었다.

“행자는 여기 뭣하러 왔는가.”

그는 혜암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어떤 인연에 이끌린 듯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튀어나온 말이었다.

“은사스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자 혜암이 그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말했다.

“학교는 마쳤느냐.”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1년 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가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군대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가 제대 전에는 군종병으로 있었습니다. 복학했지만 1달 동안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출가를 생각했고, 대학교 뒤에 있는 절을 찾아가 스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해인사를 추천해주었습니다.”

“왜 출가하려고 했느냐.”

“대학을 복학해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1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살다 보면 40대 50대 60대가 될 텐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이런 인생 말고 다른 인생은 없는가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인사로 와 대적광전에서 삼천배를 했습니다. 삼천배 하는 동안 한 번도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 출가했습니다.”

혜암은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 출가했다’는 그의 말을 듣고는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다. 대부분 행자들의 대답은 ‘성불하고 싶다’고 대답하는데 그의 대답은 뜻밖에 진지했던 것이다. 혜암은 바로 그에게 화두를 주었다. 행자에게 화두를 주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시심마를 줄 테니 행자생활 잘해서 나중에 나한테 계를 받아라.”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부터 있었던 자신의 근원,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것을 ‘이뭣고?’ 궁구해보라는 화두였다.

그런가 하면, 속인 신분으로 혜암을 찾아와 얘기를 나누다가 발심하여 출가한 사람도 있었다. 진각(眞覺)이 그랬다. 진각은 사회생활을 하던 중 신사복 정장 차림으로 원당암에 갔다가 염화실에서 혜암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듣고는 발심했던 것이다.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면서 세속에서는 잘살았으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출가하여 마음을 잘 닦아서 정신적으로 안정과 평온함을 누리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삶이 있다고 하자. 이 두 삶 중에서 어느 것이 보람된 인생이고 잘 살았던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출가하여 마음을 잘 닦는 것이 보람된 인생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낼 것은 없다. 일주일 후에도 생각이 변치 않는다면 그때 오거라.”

“스님, 그러겠습니다.”

진각은 집으로 돌아와 일주일을 보내면서 자신의 출가의지가 더욱더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출가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진각은 혜암과 출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원당암으로 다시 돌아온 진각에게 혜암은 행자생활의 지침을 내려주었다.

“행자생활을 하는 목적은 오로지 스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니, 다른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 스님.”

“수계도 무량한 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혜암은 원당암에서 혜암을 시봉하고 있는 지도를 불러 지시했다.

“이 사람을 큰절 행자실에 넣어라.”

결국 진각은 고된 행자생활을 마치고 수계하기 한 달 전에 원당암으로 올라왔다. 그는 혜암을 시봉하면서 운력에 나서곤 했다. 요사채를 재가선방으로 이용하면서 신도가 점점 불어나자 공사도 많아졌다. 진각은 아침공양 직후부터 일을 시작하여 별이 뜨는 캄캄한 밤에야 마치곤 했다. 처음으로 해보는 지게질은 서투르기만 했다. 어깨가 벗겨지고 몸은 늘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행자생활보다 원당암 생활이 더 고됐다. 그래서인지 일주문을 떠나는 행자들이 부러웠다.

해인사 부방장 취임 후 많은 행자들이 은사로 모시려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추대… ‘개혁종단’ 탄생에 영향

진각이 계속되는 운력을 힘들어 하자, 혜암은 해인사 위에 있는 중봉암 터로 데려가 신심 나는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내가 중봉 토굴에 살 때다. 시장 보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만 시장을 다녔지. 캄캄한 길을 다니려면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그러데 같은 길을 자주 다니게 되니 깜깜한 밤에도 익숙해져 낮처럼 다니게 돼. 마음공부라는 것도 똑같은 이치니라.”

중봉암 터에는 잡초 무더기 속에 허물어진 돌담만 남아 있었다. 혜암은 중봉암에서 정진하던 일이 떠오른 듯 진각에게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자상하게 알려주기도 했다.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깜깜한 어둠속에서 생사윤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것과 같다. 그러니 부지런히 공부하는 일 외에는 달리 중요한 것이 없다.”

혜암이 언제나 강조하는 법문의 요지는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라도 반드시 생사해탈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두타납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혜암은 산길을 탈 때도 잠시 쉬는 법이 없었다. 젊은 진각보다 더 가벼운 걸음으로 앞서 걸었다.

1994년 4월. 혜암의 나이 75세 때였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추대된 혜암은 조계종 종단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개혁종단을 탄생케 했다. 그때 혜암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누가 만드는가 하면 마음이 만들어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운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건강도 만들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종단이 병들었다고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개혁을 열 번을 하면 뭣 할 것입니까. 다만 종단이 이대로 나가서는 기필코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 이제 종단을 개혁해서 발전시켜야겠다.’라는 것이 내 소견일 뿐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만 해왔다면 개혁이라는 말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 천하를 통일해 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종단의 모습이 엉망으로 변했기 때문에 개혁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개혁이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인간 천상을 다 청정하게 맑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단 모습이 부처님 말씀과 달리 흐릿해지고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 흐릿해진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지 부처님 법을 개혁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 법은 개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된 부분을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가지고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암은 어려워진 종단을 향해서 장군죽비를 들었다. 개혁에 참여하는 젊은 스님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을 냈다. 혜암은 상좌 도각이 잠시 공부를 접고 구종법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 도각은 수천 명의 전투경찰이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에워싸고 있을 때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도각은 온몸이 망가지는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맸던 것이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겨우 생명을 연명했다. 문병 온 혜암은 도각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도각은 순간적으로 만감이 교차했다. 은사스님을 병원까지 찾게 한 자신이 못난 것 같아 한없이 죄송했다. 문득 원당암에서 혜암을 시봉하던 한 순간이 떠올랐다. 삭발하고 난 뒤 거울을 보고 있는데, 혜암이 거울을 홱 빼앗아 던지며 말했다.

“중이 무슨 거울이 필요하나. 거울을 자주 보면 아상(我相)만 높아진다. 중은 바보 병신 같아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할 정도라야 중노릇 잘하고 공부도 잘되는 법이다.”

도각은 혜암의 고구정녕한 가르침이 새삼 가슴을 치는 것 같아 눈물을 흘렸다. 병원 창밖으로 눈길을 주고 있던 혜암이 도각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위로했다.

“남 원망하지 마라. 모두 이게 너의 업보다.”

혜암의 눈가에도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도각에게 늘 ‘깜깜한 놈!’이라고 질책하던 분이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백 마디 위로의 말보다 은사 혜암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도각에게 힘을 솟구치게 했다. 그러나 도각은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훗날 그때의 구종법회를 주도하던 스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효림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남기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법종추의 구종법회가 혜암 노스님의 명철한 혜안과 법력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해진다. 나는 당시 구종법회를 이끈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혁회의를 출범시킨 제일의 공로는 혜암 해인총림 방장스님의 몫으로 역사에 기록하고자 한다. 당시 구종법회 참여대중은 모두 나의 이런 생각에 동감하리라고 생각한다.’

단식으로 맞서던 혜암은 탈진하여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으나 끝내 종단 개혁에 불을 당겼다. 경찰의 힘을 빌렸던 구 총무원장 인사들이 물러나자, 곧 범불교도대회를 열고 총무원 청사에 개혁회의 간판을 내어걸었다.

그제야 혜암은 다시 해인사로 돌아왔다. 오던 길에 봉암사로 갔다. 평생 선후배로 정진해왔던, 구 총무원장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세웠던 서암 종정을 만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 종단 문제로 잠시 견해가 달랐지만 오랜 우정에 금이 가는 것을 걱정했던 것이다.

혜암은 서암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봉암사 대중들에게 ‘산중 조실로 잘 모시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개혁회의에 참여한 젊은 스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혜암의 자비로운 마음과 배려였다.

〈계속〉


그림 · 최문정

> “남 원망하지 마라 모두 이게 너의 업보다”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대도를 배우려면
불을 이어 내듯하여
연기가 나더라도 쉬지를 말지어다.
불꽃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혜암대종사 법어 –

해인사 원당암
감원 벽산 원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C766-201904.2.152:22PM페이지1(1.1)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59 밥은 '잘 놀기- 신화백 편1

과메기가 과메기인 까닭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과 함께 한 지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너무 이른 시각에 참석한 바람에 준비된 음식을 거하게 먹고도 정식 행사까지 시간이 한참 남아있었다. 손님 접대를 위해 차려진 메뉴는 여느 출판기념회와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 남다른 메뉴 한 가지가 눈길을 끌었다. 과메기다. 비린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탓에 과메기에는 눈길조차 가지 않는데, 언니들은 별미라며 난리다.

기인 신 화백님이 나타난 건 그 무렵 즈음에서였다. 소위 '잘나가는' 그림쟁이였던 그가 붓을 팽개친 지도 수년이 지났다. 이제 그는 허름한 작업복에 손에 기름때를 묻히고 기계의 나사를 돌리는 노동자로 변신했다. 오랜만에 본 그가 "그동안 잘 놀았어"라며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세상은 잘 놀다 가면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서…"

그 '잘 노는' 방법이 궁금해 비법을 물으니 신 화백님은 대뜸 "공부 많이 해. 그런 다음에 물어봐"라고 한다.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내심 기대가 돼 예의 "공부를 언제까지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건데요?"라고 물었다.

"즐거울 때까지….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좋아. 공부가 즐거우면 그때부터 공부가 즐거움이 되는 거잖아? 그럼 즐겁겠지? 그보다 즐거운 건 없어. 그걸로 끝이야. 인생이란 게 그렇게 가더라도 공부가 즐거우면 그걸로 만족인거야. 그러면 원치 않던 게 보너스로 와. 오는지 안 오는지는 공부한 다음에 봐봐. 내 장담할 테니…."

신 화백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사이, 상위에 놓인 과메기가 벌써 네 접시 째 동이 나고 있었다.

"참 이상하네. 술이 술 같지가 않네. 취하지도 않고…."

김과 미역에 싼 과메기를 안주로 수십 접을 해치우며 홀짝홀짝 맥주잔을 비우던 미경 언니가 원인을 알 수없는 '심심한' 술맛에 공연히 트집을 잡는다. 이를 가만히 듣고 있을 신 화백님이 아닌지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어진다.

"술이 술 같지 않다는 건 나한테 뭔가 순수한 게 없어진 거야.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색깔이 바로 나오잖아. 내가 순수하면 술이든 물이든 들어가면 바로 나오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장치고 소금치고 계속 치면서도 짠맛을 몰라. 짠맛을 모르는 것도 문제고 술맛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

멀쑥해진 미경 언니가 소목 하는 신 화백님의 친구에게 "저기 선생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시네. 과메기가 참 맛있게 됐는데 잡셔보세요"라며 은근히 화제를 돌린다.



출판기념회에서 만난 언니들은 과메기는 김에 싸먹어야 제맛이라며 맥주잔을 비웠다. 인기 급상승이 된 과메기 덕분에 출판기념회는 안중에도 없고 예정에 없던 과메기가 오늘의 주인공이 됐다.

"여기 이 친구 한테 두 세 마디 들었으면 많이들은 거야. 아까 '안녕하세요' 하고 몇 가지 했잖아. 한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라 몇 사람한테 그랬어. 그걸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네. 나는 감격스럽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갈 때 '다음에 또 봅시다' 도 한 마디 해줘."

신 화백님의 입담은 여전해 어디에서나 재치발랄하다. 이른바 '모르는 거 빼면 다 아는' 그에게 과메기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니 그 유래를 설명한다.

과메기는 관목어에서 변형된 말로 '관통할 관'에 '눈목 자'를 써서 '눈을 관통해 말린 생선'의 총칭이라고 한다.

"눈을 꾀서 널었다고 해서 관목어인데, 이 관목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 과메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정어리고 뭐고 눈을 뚫어 널었으면 과메기인거지. 옛날에는 정어리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젠 귀하다보니 꽁치로 하지. 겨울에 한두 달 정도 얼렸다 녹였다 해서 원래 구정쯤 돼야 먹는데, 요즘은 냉장고가 있어 얼었다 녹았다 한 맛이 별로 없어."

'과메기는 김보다는 미역에 싸먹어야 제 맛'이라는 원실 언니의 추가 설명까지 보태져 과메기의 인기가 더욱 급상승 됐다.

출판기념회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오늘의 주인공은 예정에도 없던 과메기가 되었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불교와 무술이야기

1 불교와 무술의 원류

무술 알려면 교리공부 해야

'강해지고 싶다!' 남성이라면 누구나가 하는 생각 일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신체를 가꾸어 나가는 것 또한 삶의 일부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연재를 대하며 '웬 무술?'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불교와 무술은 밀착관계에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불교는 무술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야 함에도 말입니다.

소림무술, 선무도 등 지금도 많은 사찰에서 이를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율 상에 살생과 더불어 어떠한 상해도 남에게 입혀서는 안 되는 승려들이 무술을 수행으로 삼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필자가 단정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 불교와 무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씨앗 없이는 어떠한 식물체도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를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문헌과 전래된 방식을 통해 '아! 부처님 당시에는 이랬구나' 하고 추측 할 뿐입니다.

'무술을 이야기 하는데 왜 부처님 교리가 필요한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나온 과거는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불교는 부처님 당시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마 삭발하는 것과 그리고 근본교리 정도라고 말하고 싶군요.

이제 필자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인은 수년간 조계종 승려 생활을 하였으며, 수행자 시절 역경학을 전공하였고, 1,000일 간의 동구불출(洞口不出) 정진을 비롯한, 수많은 토굴생활과 더불어 한 때는 무술을 수행의 일환으로 삼아 '연비문' 이라는 문파무술을 전수 받았습니다. 비교적 어린나이에 출가하여 현존하는 모든 수행법을 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뜻한 바 있어 승려의 신분을 가지지 않고 근본불교학에 매진하여 그를 알리는 데 정진하고 있습니다.

근본교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불교의 변천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무술 역시 불교 변천사의 한 부분이므로 앞으로 무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며 불교적인 부분과 상통하는 것이 있다면 더불어 밝혀 볼 생각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동양의학의 발달에서도 무술을 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무술영화에서 보더라도 근대 무술고수들은 의사라는 부업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근대무술에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무술을 하다보면 기(氣)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까지는 모른다 치더라도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한의학에서 성행하고 있는 '추나 요법' 역시 무술에서 발달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술 대련 시 때리는 것만 아니라, 관절의 운동 방향을 이해하여, 그것을 꺾거나 분지르는 관절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관절을 제대로 이해하여야만 가능한 술기들이기에 이 살상력의 기술을 반대로 돌리면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재 동안 어떠한 무술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깊이가 낮더라도 기본기부터 시작을 하여도 방대합니다. 또한 글로써 무술을 배운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술은 수학같이 머리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습득을 해야 하는 육체적 노력을 수반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서점에 가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무술 책들! 젊은이라면 한번쯤은 기웃거려 보고, 구입하기도 해서 집에 와서 따라해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빈약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술 책 = 필요 없는 책'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한국인이면서 일본에서 더 유명한 최배달씨를 아시는지요? 본명은 최영의 이고, 극진가라데의 창시자입니다. 이 최배달씨가 단련에 대해 말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한 동작에 '단'은 1,000번이요, '련'은 10,000번이다." 한 동작에 만 번!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만 번 역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무술을 배워 그것을 실전에 쓰게 된다면 생각 이전에 몸이 반응을 하여야만 합니다. '나 뭐~뭐~ 해야지.' 하고 무술을 사용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 수련을 통하여 기술이 몸에 익어 생활이 되어야만 비로써 그 가치를 얻게 되는 쉽지 않은 수행입니다. 무릇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아닌가요? '큰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황현수 :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국순려의 **괄사이야기**

1 인간의 몸

인간 몸안에는 건강 능력이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인체구조를 구미 과학에서는 인간의 몸 안에는 생체항상성(Homeostasis)이 있다고 하고 동양과학에서는 정체평형(整體平衡) 또는 동태평형(動態平衡)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것을 지능(EQ)이나 감성(EQ)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건강능력(Healthcare Ability H.A)이라 말하고자 한다.

이 건강능력은 개발하면 더욱 발전 할 수 있고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면 퇴화된다. 더욱이 마흔 살이 넘으면 그 능력이 현격히 줄어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40대가 넘은 사람 중에는 20대~30대 때는 며칠씩 밤을 새워 가며 일을 해도 지칠 줄 모르고 일했는데 40대가 넘어서는 하루저녁 밤새워 일하고 나면 그 다음날 피로가 풀리지 않아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능력이 감소되는 생리적인 현상인 것이다.

건강능력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가서 과식을 했더니 체기가 있으면서 속이 불편했다. 병원에 가자니 그렇고 소화제는 습관이 될 것 같아 참기로 했다. 그러나 속은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것도 같고 불편하다.

이때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던 약 100조개의 세포를 비롯하여 조직과 기관과 계통은 체기를 해결하고자 즉시 비상상태에 진입한다.

체내 환경을 빨리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고자, 장은 소화액을 더 분비하고 연동운동을 촉진하며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은 교신작용을 더욱 활발히 하여 협조, 보완, 제어, 항진 등의 기능을 일으킴으로써 종내에는 속이 편안해지도록 만들어 낸다. 이것이 바로 건강 능력인 것이다.

영하 50도에서나 영상 40도에서도 인간의 체온은 항상 36.5도를 유지하게 만든다든지, 물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몸 안의 수분은 체중의 65%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작용 등 인체 내 건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항상성 유지의 분해, 분비, 합성 결합 등의 생체화학작용이나 물리적작용 합성작용 등의 총체들이 모두 인체의 항상성이고 건강능력인 것이다.

그런데 이 천부적 건강능력을 인간은 후천적 환경요인 때문에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과학문명의 부산물인 약물남용, 환경오염,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식생활포함) 3가지의 큰 요인이 바로 그 원인이라 하겠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건강능력은 더욱 향상되어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과학문명이 발달할수록 건강능력을 상실하는 모순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성인병, 희귀병, 난치병이란 덫에 걸려서 인간의 수명은 옛날보다 길어졌지만 아픈 사람은 더 많아졌고 더욱이 온몸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주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랫동안 인간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끝에 '인간의 몸 안에는 건강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괄사+운동+섭생+정서순화 4가지 항목의 조화를 "국순려건강능력개발법"이라 명명하였다. (02)557-1628~9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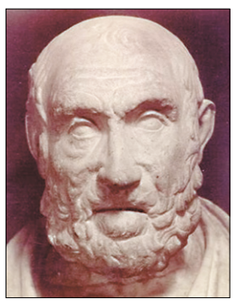
필자약력

LA불교대학 BA/MA 졸업. (사)군불교진흥회 상임이사 역임. 국립서울산업대학교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역임. 도환경조형연구소 대표역임. 현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 원장. 현 (사)국제자연치유의학연맹 회원. 현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 현 국제세계여성발명협회 회원(UN WIPO산하기구). 자비를나르는수레꾼 회원

Dr. 황의 바른 자세 · 바른 생활

1 체형교정의 중요성

바른 자세 · 맞춤체형교정 운동으로 통증 예방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요구하더라도 생명에 치명적인 약은 결코 쓰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을 쓰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진단에 의해 환자의 병을 키우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치료의 반을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어릴 적 우연히 알게 된 미국 척추신경전문의와의 만남으로 인해 학창시절부터 미국유학에 대한 동경을 가졌고,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의대를 가서 저 역시 척추신경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미국 의술이 국내 의학보다 진보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는 이 진보된 의술이 국내에 미흡한 것을 보고, 내가 배운 의술을 국내에서 펼쳐 많은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 돌아와 체형교정센터를 운영, 현재 많은 이들이 제 의술에 호응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개에게도 디스크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전무합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가장 많은 병이며, 올바르지 못한 생활 자세습관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수많은 근 · 골격계 통증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 또한 개개인의 습관에 따라 다 다르기에 그 불균형한 체형에 맞는 체형적인 원인을 치료해 줄때 그 통증치료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평상시 목, 어깨, 허리 등 부위의 크고 작은 통증으로 누구나 한번쯤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퇴행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나 갖는 만성 근육통증 및 디스크 증상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도 발생하는 비율이 대단히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사실은 위와 같은 근 · 골격계 통증의 원인에 대하여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도 뚜렷한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3~5분의 간단한 의사와의 상담 후, 경우에 따라서 x-ray사진을 놓고서(당연히 뼈에 금이 가거나, 기형적인 상태는 없으므로 대부분 정상임) 거의 똑같은 말인 '근육이 긴장하였다, 무리하셨다, 스트레스성이다.' 라는 말과 동시에 진통제 처방과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에 의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치료되리라 생각하던 통증은 도대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통증이 있으며, 왜 물리치료나 진통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지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을 매일같이 뵙습니다. 이분들은 구부정한 자세와, 척추가 휘어지고, 골반이 비틀어지는 체형적인 불균형한 증상과 동시에 한 결 같이 크고 작은 부위별 근육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본인의 처방에 의해 체형이 바르게 교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괴롭혔던 통증이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체형교정은 우리나라의 의학이 아닌 외국의 의학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의료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정통의 체계화된 의료학문으로서의 치료방법이 아닌 주먹구구식의 형태인 민간요법위주로 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 유럽 등 의료선진국의 의료상황은, 단기간의 효과를 위한 진통제나 물리치료 등의 통증치료를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과는 달리, 통증 원인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하에,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고자하는 예방의학 · 원인치료의학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효과를 위하여 화학적 약물과 화학적 기계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인체 본연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배워야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몸의 통증의 원인은 우리 인간이 모두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바른 자세 습관에 노력하는 것과, 자신의 체형에 맞는 맞춤체형교정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만성 근육통증과 디스크예방에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체형불균형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그에 맞는 교정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마도 '설마' 리즘과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리즘 아닐까요? 당신이 생명체인 이상 병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회의는 '왜? 이 사람은 초기에 왔으면 금방 고칠 것을 이지경이 되어서야 병원에 오나?' 입니다. 그러하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그 중요성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T:1544-9697)

황상보 /PnP교정센터원장

필자약력

세란 흰다리, 체형교정시스템 소장 역임. 2009 한국모델협회 체형교정 부분 공식지정. 현)POSTURE & Partners 강남점/일산점 대표원장.
USA 척추신경의대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WEST
USA 척추신경의사 (Doctor of Chiropractic)
프랑스 PODIATECH Certified FOOT Specialist 등.

불자생활정보 | 21 | 제 766호 2010년 1월 13일 수요일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실전 위주로 확실하게 비법을 개인지도 함
역학 : 귀신 떼는 명리 (통변 가능한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사성, 작명
최면 : 전생요법, 빙의, 퇴마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범음 · 범패
실전위주 학인 모집
각종 사찰행사 전문
일행정사 (서울, 경기)
010-6569-1010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만물 만능 氣 잡기
사물의 진가, 정부정책, 마음의 진위, 사업성패, 미래예측, 기풍수, 기사주, 원격투시, 내게 맞는 것 찾기, 영가상태, 만물 만능치유, 운명개척 등 수치까지 확인.
시중철학이 아닌 100% 과학
누구나 쉽고 간편한 방법. 효능은 무궁
016-606-5658

김 현산 작명 역리원
◎작명 ◎사주 ◎운명철학상담
전국 불자님 전화, 우편상담 환영
사주학 기초부터 개업까지 책임지도
기초과정 후 간명비법 전수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번지 (3층)
종로3가역 ① 번출구 직진 낙원상가 방면 미투리의상실 3층
010-9113-8545 김현산
02)741-8449 역리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212-9810

노스님 시봉하며
함께 지내실
법당보살 및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불심있는 50-60대, 경주지역 사찰
011-534-3345

부전스님
모십니다
▷학천사 총무원,부산 영남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거창)
070-8791-784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748-3004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부전 원합니다
(비구)
010-9057-5562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시간 : 새벽, 사시
부산 가야 대원사
051)891-7255,1051

기도 부전스님 구함
▷부산
011-840-4355
051)334-3009

불심과 신심이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지역 50~63세 이하
010-9269-84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협자 우대, 65세 미만
032)679-3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평군 용문면, 40~50대
010-8922-1168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칭기스칸 대학교
한국캠퍼스 한국불교승가대학 세계화교육
chinggis khaan university
• 정규과정 : 2년제, 4년제 편입학 가능 • 전문과정 : 1년제입학 종교학 (불교문화 학과)
• 강 사 진 : 석사, 박사 12명. 특강
• 과 목 : 종교학,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특 전 : 전세계 대학 편입학 인정, 학비저렴, 시간여유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강의실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불교문화대학원
학무처 :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오미자 원액차 건오미자
준고냉지
친환경단체 일원
차 중의 으뜸
017-503-3362 토굴

행자모집 합니다
참으로 정법을 배우고,
정법데로 수행 실천해
가시고 싶은 분만 오십시오
노후혜택, 교육복지혜택(학비보장)
의료복지 혜택, 연금 혜택
망우동 극락사
011-707-5552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 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
를 동시에 해탈케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소원성취 · 영험도량
잠시 한, 두달 백일
마음공부 용맹정진
소원기도 하고 싶으신분
앞일 알고 싶은 분 오세요
031)674-7188 백마사
033)441-0664 장안사

체용 사주원리 요해 무료강좌
▶강사 : 김영진 선생님 (故 이석영 선생님 제자)
▶일시 : 2010년 1월 9일 (토요일) 시작
(오후 2-5시까지)
전화 : 02)306-7988 / 010-5624-1365
수색 광복사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행자 모집 합니다
사찰운영 및 기도정진,
주지스님 시봉하시다가
주지스님 열반 후에 본인
앞으로 사찰 등기 가능함.
(세수 35-45세까지)
* 신심이 확실한 분만 전화하세요.
010-3499-3721

조계종 수번 생활광고하여도
전화만 올 뿐, 답답하여 다시내니
객관적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노승이 그만 쉬고자 비구니 4-50대
답사하여 안착운영관리 바람.
그리고 조용한 도량에 의지하고
불심있는 4-50대 공양주 연락바람.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054)653-1180
010-6353-1180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응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육임강사반 모집

본 학회에서는 현재 활동 중인 육임 강사님과, 강사를 희망하고 계신 예비 강사님들을 위하여 아래 강좌를 개설합니다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교재로 강의하고 계십니까?
육임학 정통 원전 수업으로 이론을 정립하십시오!
심사 후, 해당 지역의 한 분만에게만 교육기회가 주어집니다.

1. 교수 : 이우산
『육임입문』 · 『육임실전』 저자.
서라벌대 및 동국대(사회교육원) 교수.
2. 교재 : (당)『육임심경』, (송)『대육임필법부』, (명)『육임지남』, (명)『육임대전』, (청)『육임수언』 등, 5대 육임경전.
3. 진로 : 지역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에서 육임학 전문강사로 활동.
4. 대상 : 육임학 열공 3년 이상된 분
5. 지역 : 부산 · 경남지역, 대구 · 경북지역, 광주 · 전남지역, 전주 · 전북지역, 대전 · 충남지역, 청주 · 충북지역, 경기도 지역, 강원도지역.
7. 문의 :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010-7321-5539

단 1회 시술로 통증을 멈추는 기적의 수기요법 특별 전수

목디스크, 40견, 50견,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척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좌골신경통 등 목과 허리의 모든 병증 치유기법.
침, 뜸, 부항이나 경락마사지, 지압요법 등이 아님.
전 세계 유일한 기법으로 2009년 12월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된 특별 수기공요법 (전 세계 20개국 특허 출원중임)
20여년의 많은 임상중 단 한번의 재발도 없었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 받을 수 있는 기법으로 약간명만 면담 후 1:1 특별 전수함 (국내외 활동 가능한 분)

◇ 전수자 중에서 특별 수제자 선발 ◇

개인별 맞춤 전수 (1:1 교육 후 무료 상시 재교육)
- 전수금 : 오백만원
- 특 전 : 지부 자격부여
- 특별 수제자 특전 : 풍수, 명리, 수맥, 최면, 기공, 침, 뜸, 약리, 대체요법 등 각종 병증별 치유기법 무료 전수함.
-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대체요법사, 스님 등 종교인 환영

(사)세계대체요법학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0-8호 5층
문의 : 전화 02)529-1390 / 010-6739-6426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천사
- 법 명 : 선인 (신태호)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410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50평
- 요사 : 20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17억 (불사금 추정액 50억 이상)

- 위치 : 부산
- 법당 \ 40평
- 요사 /
- 부지 : 96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제주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1억 7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및 토 굴 안 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150평
- 인법당 : 45평
- 명당터
- 가액 : 4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3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 5천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0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및 토 굴 안 내

해운대바닷가 근처 아름다운 절
- 총부지 : 5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 바다전망, 남향, 뒤편 산자락
- 마당 넓은 절
- 가액 : 6억 5천

부산 바닷가 전망 좋은 절
- 총부지 : 370평
- 법당 (41년생), 요사(방3칸), 산신각, 용왕각
- 뒷산, 바다전망 최고, 평지, 주차장
- 도량 내 100년 된 소나무 다수
- 가액 : 3억 3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소재
- 부지 : 15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 : 60평
- 명부전 : 30평(목조,단청,닷집)
- 기타 : 산신각, 조각, 석불(8자) 석등
- 가액 : 9억 8천만원
- 특징 : 대작불사된 대가람임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약 20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70평
- 기타 : 산신각, 석탑, 석등, 연못
- 가액 : 3억 8천만원 (2억원 융자별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사찰 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전기시설 완비,
- 단독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토 굴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 총평수 : 328평
- 임법당, 삼존불, 바깥에 지장보살석불, 산신석불, 산신각, 문수전, 창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660-538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금강공원 입구
- 평수: 75평(시설완벽)
- 3층 건물인데 엘레베이터有
- 시설비: 1억 5천 투자 됐는데 급해서 3500만에 정리 급 양도 (전세 및 달세 별도 있음)

010-2828-1951

단독건물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최중심지(지하철역근)
- 건물(3개층) 및 주차장 옥상
- 포교, 교육, 총무원 적지
- 시설(법당, 종무소, 황토방 등 최고)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4천만원(조절가)

010-6780-627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개정동
- 평수: 135평(3층, 4층, 5층)
- 3층 : 방 5개, 화장실
- 4층: 방 3개, 공양간 및 화장실
- 5층 : 대법당,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0-2599-602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거리 (죽전지하철역2분거리)
- 평수: 약 42평(2층)
- 구조: 법당 약 20평(삼존불 모셔있음)
- 방2개, 주방 겸 거실, 단독 남, 녀화장실 (약 22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35-7370

사찰 · 실버타운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2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20평,요사채25평,부지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
- 부지: 1,2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35평, 공양실 20평
- 전체 기와 단청
- 가액: 5억 5천만원

010-5793-4800

포 교 원 안 내

- 10년된 포교원
- 원불 300불 모셔진 안정된 곳
- 바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3723-0777
02)386-9939

명 당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 (약 80%사용가)
-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명당가 평당 3만,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함

010-732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역앞 동성로 (지하철 1분거리)
- 4층 약 30평(정원있음)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700만원
- 상담 포교 최적

010-2446-2626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25평, 이층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 보살) 신중, 산신
- 가액: 전세 8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488-8204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읍내
- 평수 : 약 800평
- 법당(55평), 요사채 : 50평 산신각 8평, 주차장 넓음
- 삼존불 모셔있음
- 가액: 전세 4,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조정가능)

031)764-0180
010-2747-979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3억

011-9888-1563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토지: 1000평
- 건물 1층 40평, 2층 20평
- 조경과 잔디밭 너무 좋음
- 집앞에 강물이 흐르고 앞 뒤에는 소나무 숲이 있음
- 완벽한 집, 그림 같은 집
- 가액: 4억 5천만원

011-9071-77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빌라 주택 밀집 지역
- 시장입구
- 법당 40평, 방2, 공양간, 화장실
- 삼불, 후불탱화는 인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 가액:보증금5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주지 건강상 급 양도

011-544-97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 안산 상업지역
- 평수 50평(현 법회중)
- 5층건물 중 2층
- 옥상 텃밭 30평
- 법당 단청, 최고급 인테리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8954-803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행림면 안양리 510번지(무척산아래)
- 법당 27평, 산신각 4평,
- 요사채 방 3,
- 화장실, 목욕탕, 공양간
- 총평수: 220평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포함)

070-8809-3800
010-8327-38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북면
- 평수 : 약 14,000평 중 2000(대지)
- 시설 : 현재 법당 가건물 요사채, 화장실, 전기시설, 전화, 건축허가필
- 맑고 깨끗하고 조용함
- 가액: 4억 5천 (절충가)

010-3918-03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구미 북산 사거리
- 평수 60평
- 현 법회중
- 3층 건물 중 2층
- 주차 시설 양호
- 가액: 보증금 포함 집기일체 몽땅 6천만원

054)972-9872
010-6208-5555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4억 2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포함)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보증금 5천만,월 40만원 (조정가능,전세가능)
- 23년째 운영중

010-2785-9522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김해 시내 시장부근
- 4층 건물 중 3층 약 50평
- 삼존불, 신중,지장,산신불 각단탱화 일체
- 상담실 및 거실, 방2,
- 보증금 300만원, 월38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 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비품 및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335-03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현재 법회 기도중
- 서부 정류장 지하철 5분거리
- 2층 건물 중 2층 70평
- 주차장 시설 완비
- 제반 시설및 모든 집기일체
- 스님 공찰임명 관계로 급 양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시설비 절충

017-501-243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가액 조정 안됨)

011-816-9104
011-815-9104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요지
- 신축건물 4층, 실평수 52평
- 시설 A급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2,500만원 경기도 이전 관계로 (급)안내함

010-8786-0872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강남 논현동 지하철 7호선 논현역 1분거리
- 교통 최적지
- 4층건물 중 2층
- 약 35평
- 방2, 공양간,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9401-4058
011-662-780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태화동 소재
- 평수 45평
- 시설 완벽
- 총가액: 3천 700만원

011-542-0982
010-6278-6508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시 동읍 월잠리
- 대지 200평, 건평 80평
- 가액: 전세 5천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주지 건강상 급 안내

011-5040-758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 평수 : 430평, 건평 50평
- 대웅전, 미타전, 산신각, 용왕각
- 방4, 공양간, 화장실2, 창고
- 주차장 확보 , 차량진입가능
- 가액: 6천 5백만원

010-9870-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평수 : 40평
- 요사: 120평
- 부지: 62평
- 가액: 17억 (지하철 1분)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법당 23평(불사중)
- 요사채 33평(완공)
- 산신각 창고

원하시는 금액에 양도함

010-3553-7897

대형포교원(전세및양도)

- 위치 : 부천신도시 고속터미널 부근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 220평. 14층 중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 문양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1년 지하철개통, 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 임대 2억 5천(양도가능) 시설비 절충가능(융자포함 양도가능)

018-293-7075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처음 시작하는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불자 가족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법당 방 1, 큰방2, 작은방 1,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 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사찰 전자제품 포함, 조경완벽)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접충가능),(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정남향 별장식 토굴

- 위치 : 경남 마산 (내서에서 승용차로 신호준수 15~20분내, 함안가야 10분, 마산진동 10분거리)
- 대지 436㎡, 소규모 채소밭, 과일밭, 죽림, 산
- 건물: 임법당대1, 방4개, 주방식당2, 해우소겸 욕실세탁소2, 다용도실 ,창고1, 통나무휴게실1, 옥외해우소1, 기타시설완비, 자연석괴석, 정원화단, 표고버섯 24거루식재, 주차장, 온실, 밭 200평사용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 발전전망: 마산내서에서 여항국도5호선 터널개설 2011년 본격추진

055)583-1418
011-578-1413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사찰양식,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 요사채3, 방 3, ● 2층 공양간
- 산신각, 독성(용왕단)
- 대지 50평에 약 100평사용
- 가액: 4억 ● 주차장 확보 (주인직)

017-516-0773 (주지스님)
010-3550-6771 (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2채, 방4개, 큰 창고
- 주차시설 완비, 관상용 양어장
- 맑고 깨끗한 약수가 있는곳
- 현재 관광지 목적으로 인도 살림욕을 공사하고 있음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참숯가마(급)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 평수 1208평 ● 건물 : 대지 392평
- 시설: 참 숯가마 7개, 폐수처리장(1억 3천 가설비 들었음)
- 지하수 350m이상에서 매일 100톤의양
- 식당 90평, 목욕탕 95평, ● 기본숙소 방 5개, 120명수용가능
- 가액: 현 시세 22억을 18억 (모든시설포함) 급 양도, 절충가능,
- 현재 영업중이며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9735-3477
010-9418-59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대지 300평,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9평, 주지실 별도
- 요사 24평, 요사채 아파트식구조
- 조경 되어있고, 법당 시설 완벽,대형버스 주차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은행융자 5천만원 가능)

010-4193-3366

토굴전세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 평수 340평, 와가 25평
- 방 3, 요사채 30평, 주방1, 방2, 창고1, 실내화장실 1, 실외화장실2, ● 심야전기보일러, 산 지하수
- 마당 넓음, 산 밑에 독채,조용함
- 전세: 2천 8백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7670-0679

“건강한 사람은 몸을 섬기지 않고 잘 쓴다”

강 사 : 배영순 영남대 국사학과 교수
일 시 : 2010년 1월 5일
주 제 : ‘건강은 체계다’
장 소 : 장충동 우리함께회관 만해NGO센터
주 최 : 참여불교재가연대

여기 건강을 의학적 차원을 넘어 인문학적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

요즘 건강이라면 몸부터 생각한다. 몸을 사리고, 조심하고 아낀다. 몸에 좋은 것이라면 서로 가지려고 혈안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몸을 챙기는 사람들이 되려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질 때가 있다. 삶과 무관한 건강의 추구는 건강관 자체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다. 배영순 교수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질병의 인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공동대표 김동건)가 경인년 첫 리더스 포럼에서 배영순 교수를 초청,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몸이 아픈가 사람이 아픈가

보통 사람들은 내가 몸을 아프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몸이 아파서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 생활이나 삶은 이상이 없는데 몸만 아프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플 때는 이미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플 수밖에 없는 인과가 있고 그 원인력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잘못 썼든 마음을 잘못 썼든 그 결과로 아픈 것입니다. 건강함도 내 탓이고 아픈 것도 내 탓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지 않고 몸만 보는 것은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사람의 성향이나 습관, 마음상태 등을 보지 않고 몸만 보기 때문에 근본적 치유방법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병의 인과를 무시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올바른 처방이 나오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반성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을지언정 그것을 반성하고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작용이 있는 인간은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픈만큼 성숙해 진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성스러운 신호입니다. 문제는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질병의 인과를 받아들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치유하면서 인간인 성숙해집니다. ‘아픈만큼 성숙해 진다’는 것,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가령 소화불량의 경우 소화제를 먹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정작 ‘소화불량’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사실 위장장애가 생기고 소화불량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소화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단순한 음식물의 소화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소화능력, 사회적 관계의 소화능력, 일의 소화능력, 새로운 것의 소화능력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위장장애 현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위장기능이 저하되면 인간관계 자체도 저하 됩니다. ‘신경성 위장병’이란 것이 그런 것의 일부입니다. 인간과계에서 편협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비위(脾胃)가 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음식도 지나치게 가려서 먹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치게 예민하고 사람을 많이 가리죠. 반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인간관계에 충실하고 두루 원만한 사람들은 비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위장이 나쁘고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균형을 먼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화에 편한 음식만 찾고 위장에 좋은 것만 찾는다면, 점점 더 예민해 지고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음 과식으로 인해 소화불량이 오는 것, 과음 과식을 하게 되는 생활상, 정신적 요인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약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약물에 의존하면 할수록, 자신의 자생력, 자기 치유력은 줄어듭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근본적 원인은 은폐되고 정신과 육체를 더욱 분열시키죠. 약에 의존하면 할수록 몸이 말해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세계와도 단절됩니다. 무얼 잘못해서 병에 걸렸는지를 묻지 않고, 병이 들고 낫는 인과를 무시하는 겁니다.

#인과를 수용할 때 치유력이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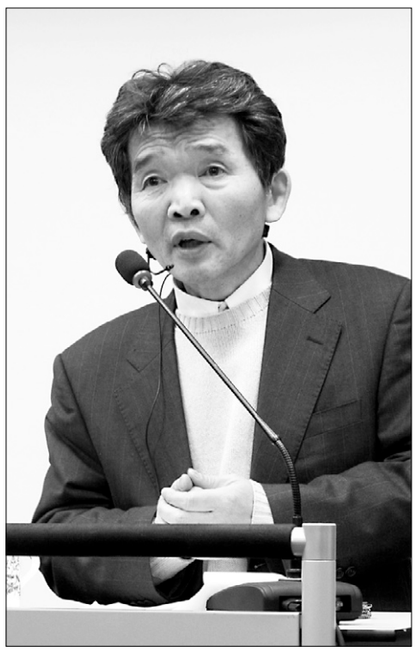
병이 드는 경로가 있으면 나을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인과를 외면한 채 병이 낫길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간혹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병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애절하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다보면,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죽일 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살아야할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살려달라는 구원의 기도에서 ‘참회의 기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병들게 만든 원인과 병이 걸리는 인과를 직시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순간을 참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병이 낫는 것이죠. 요컨대 병의 인과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자생력과 자기치유력이 작동하면서 병으로부터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인과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자생력과 치유력은 작동합니다.

또, 해체적인 건강관은 사람들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기치유력을 제거하면서 병원에 의지하게 만들고 종속시킵니다. 예를 들어 사교육은 스스로 사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지만 사실 자생력을 무너뜨리고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병을 가져왔습니다. 병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면 할수록 몸이 주는 경고 무시하는 것
마음을 잘 쓰면 아집 · 얼룩진 관계에서 탈출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서는 “병이 들면 자신의 마음을 책망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마음’이란 ‘사람다움’을 뜻한다.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다. 사진은 강의를 경청하는 재가연대 및 리더스 클럽 회원들.



배영순 교수는 강의를 통해 질병의 인과를 인정할때 우리 몸의 치유력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건강은 신체 · 정신 · 사회적 안녕의 상태

건강의 사전적 정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 ‘몸에 탈이 없이 튼튼한 것 또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말하는 건강개념은 단순히 질병이나 결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체의 세포 수는 수십 조에 이르고 그 종류만도 수백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12경락 365혈,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상호작용 할 때 건강한 것입니다. 인체는 고도의 유기체적 질서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만을 놓고 본다면 오장육부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장육부가 상호 연관적 체계로 작동하고 있을 때, 유기체적인 통일을 이룰 때 건강한 것입니다. 체계가 무너지면 인체는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건강은 체계입니다. 체계를 떠나서 건강을 말할 수 없어요. 체계로부터 일탈할 때, ‘탈이 나는 것’입니다. 안녕(well-being)은 체계 속에 있을 때 성립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습니다. 즉 삶의 방식에 달린 것입니다.

교단에 서는 사람들의 경우,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영양식을 하고 보약을 먹고 그렇게 자기 몸 관리에 철저하면서도 수업준비는 게을리 하고 학생들 가르치는데는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들이 과연 건강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열심히 예습하고 또 교단에 서면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몸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할까요? 정말 건강한 사람들, 건강해야할 사람들은 후자입니다. 몸을 잊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몸 걱정을 않고 살 사람들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관계속에서 몸을 연소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 병을 고친다

정말 아파본 사람들은 결국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관계지형을 일그러지게 한 자신의 욕심에 대한 반성을 의미합니다. 그때 관계적 합리성이 회복되면서 자기 치유력이 작동한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옛말에 진정한 의사는 약으로서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서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고쳐서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순도는 관계적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관계를 자기중심적으로 가져갈수록 그만큼 욕심을 부리는 정도가 심하며 관계는 꼬일 것입니다.

반면, 관계설정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일수록 그리고 상호 등가적일수록 마음의 순도는 높아집니다. 마음은 공평무사(公平無私)하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불교에서 ‘마음’을 말하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관계적 합리성 속에서 ‘나’라는 것이 완전 연소될 수 있을 때 무아(無我)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편적 상호연관의 질서체계속에 녹아들어 갔을 때 마음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은 얼룩진 관계들로부터 그리고 아집(我執)의 중력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성질’을 고쳐라, ‘심뽀를 바로 하라’는 소리도 이 말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은 관념적 유희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명확한 자기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병든 생활방식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2009년 겨울
전남 나주 심향사
어린이 및 가족 템플스테이
“靑蓮飛天 –초록연꽃 하늘날다”

기 간	모집인원	대 상
2009년 12월 29일(화) ~ 2010년 1월 1일(금)	20명	초등 3~6학년
2009년 12월 31일(목) ~ 2010년 1월 1일(금)	30명	일반 및 가족
2010년 1월 24일(일) ~ 2010년 1월 30일(토)	20명	초등 3~6학년
2010년 2월 6일(토) ~ 2010년 2월 7일(일)	20명	다문화 아동

■ 문의 061) 334-5420 / 팩스 061) 334-2887
■ 홈페이지 : http://www.simhyangsa.or.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대호동 825 대한불교 조계종 심향사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94번지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⑳ 누각아집도

한 잔의 차 속에 평등사회 이상 담아

18세기 말에 이르면 이전까지 양반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학계와 문예계에서 중인(中人)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중인은 위항인(委巷人)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계층으로 사대부와 평민의 중간계급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양반가의 서얼 출신이나 영락한 양반의 후손 등으로 고급관료나 양반은 될 수 없었고 다만 의관이나 역관, 화원 및 규장각 서리 등 하급관리직에만 출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 중국과의 문물교류가 활성화되고 상품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전문직에 종사했던 이들의 역할도 새롭게 부각됐다. 이들은 문인사대부들, 그 중에서도 북학파 문사들과 교유해 상위문화를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시사(詩社)나 모임을 결성해 중인계층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조선후기 정조의 치세 동안 활동했던 궁중화원 이인문(李寅文, 1745~1821) 역시 신분상으로 중인에 속했지만, 독자적인 화경으로 문인화에 일가를 이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는 그가 76세 되던 해에 제작한 작품으로 그림 안에 담긴 산세와 수목의 표현에서 원숙한 경지에 이른 노대가의 필치를 엿볼 수 있다.



이인문 '누각아집도', 1820년, 지본수묵담채, 86.6x57.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의 돈대 위로는 그림의 주제인 누각이 한 채 보이는데 그 안으로는 몇 명의 문사들이 묘사돼 있다.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한가로이 시를 읊조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옛 성인과 도인의 풍모를 닮았는데 이들 모두는 실제로 이인문과 교유했던 중인문사들이다. 그림의 우측여백에 이인문이 쓴 화제에는 이날 함께한 인물들과 정경이 묘사돼있다.

"(전략) 책상에 의지해 축을 펴는 이는 도인(道人, 이인문)이오, 손에 그림 종이를 잡고 물끄러미 보는 이가 수월(水月, 임희지)이오, 거문고를 놓아두고 난간에 기댄 이는 주경(周卿, 김영면)이오, 걸상에 걸터앉아 길게 읊조리는 이가 영수(穎叟, 서영수)이니 이 네 사람은 가히 죽림칠현(竹林七賢)에 대적할 만하구나. (후략)"

때는 맑고 푸른 계절인 초여름, 네 명의 중인문사들은 청아한 절경 속 누각에 모여 풍류의 한때를 즐겼다. 이들 모두는 중인시사에 참여한 인물로 임희지(林熙之, 1765~?)는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일원이었으며 이인문은 당시 시회에 참석한 이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다. 특히 임희지는 중국어 역관으로 활동하면서 그림실력까지 뛰어나 그가 그린 대와 난 그림이 문인화가인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작품과 비교되기도 했다.

한편 숨을 내쉴 때마다 난향이 일었다는 김영면(金永冕, 18세기말~19세기초) 역시 '서원시사(西園詩社)'의 일원으로 활동했는데 거문고 실력이 뛰어나서 인지 그림에서도 그의 곁에 거문고가 놓여있다. 또한 시를 읊조리고 있는 서영수(徐穎叟, 18세기말~19세기초)는 규장각의 관리로 봉직했던 인물이다. 때문에 이들은 비록 중인의 신분이었지만 중국의 위진시대를 대표하는 은자들의 모임을 표방할 정도로 자신들의 문화적 역량을 자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탈속적인 모임에는 차가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누각의 왼편으로 제량호(提梁壺)가 얹혀진 화로와 찻물을 다리는 다동(茶童)이 보이고, 화면의 반대쪽으로는 다호(茶壺)에 물을 담아 돌아오는 시동도 표현돼 있다. 당시에는 이처럼 중인시회에 차가 빈번히 등장할 정도로 차 문화가 확산됐다.

중인문사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신분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키웠고,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모임을 결성해 평등사회의 이상을 꿈꾸었으며 저술과 그림을 통해 그들의 삶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 속에서 마시는 한 잔의 차는 어떤 의미였을까. 문득 그림 한편에 위치한 고송 한 그루에 시선이 간다. 솔향과 어우러져 생동하는 차의 기운이 초월적 이상을 꿈꿨던 중인문사와도 훌륭히 조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⑰ 천자암에서 가져 온 것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 영결식을 취재하고 다음 날 순천 천자암을 찾았다. 차를 놓고 가파른 길을 조금 걸어야 했다. 전 날 내린 눈 때문에 길은 좋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설경이 이유 없이 마음을 설레게 했다.

염화실에 활안 스님이 계셨다. 쌍향수(雙香樹)를 찍으러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스님은 대뜸 "쌍향수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고 물으셨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지만 여법한 거량을 할 수가 없었다. 스님이 소리 없이 웃으시더니 쌍향수는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으니 잘 가지고 가라고 하셨다.

염화실을 나와 스님이 얼마든지 가져가라 하신 쌍향수를 바라보았다. 다음에 와서 가져가기로 하고 사진만 찍어왔다.

詩가 있는 도량

▪ 겨울밤

밤눈이 봉창을 두드리던 그런 밤이었지.
눈썹 질은 어미는 호롱불 아래서 해진
양말을 꿰매고 있었고
우리들은 무명 솜이불 속에서
머리만 내밀고 초롱초롱한 눈매로
아비가 들려주던 무서운 옛날이야기를 들었지.
늑대가 '오시랑 캥캥' 울어대고
호랑이가 '어흥!' 하고 덤벼들면
이불 속으로 깊숙이 자맥질했는데
드넓은 잠의 바다 속을 퉁당거리다가
가만히 기슭으로 머리를 들이밀때
헛간에서 닭들이 소란을 피우기도 했지.
아비는 족제비가 들었다며 램프 심지를 키웠고
우리들은 문밖 세상이 무섭다며
이불 속으로 숨어들어 가슴만 모아 쥐고 있었지.
그날 이불 속에서도 밤하늘 별들이 반짝이고
밤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지.

–최기종, 시집 <만다라화>에서

옛 판화의 세계

오달 스님이 원한을 씻다
오달세원(悟達洗寃)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오달 국사가 무릎에 생긴 사람얼굴의 종기로 고통을 받다가 팽주 다룡산 밑의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 샘에서 가락가존자의 인도로 인면창을 씻어내는 장면을 판각한 장면이다.

오달 국사는 중국 당나라 때의 지현 법사로 속성은 진 씨이며, 삼학을 꿰뚫고 많은 이적을 보여 사람들은 스님을 진보살이라 불렀다. 지현 스님은 14세에 열반경 강의를 했을 정도로 중국불교사상의 손꼽히는 한 분이다.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지현 스님이 당나라의 국사가 돼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을 무렵, 무릎 위에 사람의 얼굴을 한 종기가 생겨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됐다. 이름난 의원들 모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러다 문득 예전에 문둥병 걸린 스님의 말이 생각나 촉나라의 다룡산으로가 바위 밑 샘물에서 인면창을 씻으려 했다. 그러자 인명창이 큰소리로 말했다.

'잠깐 멈추시오! 나는 한나라 때 원앙이었던 당신 때문에 허리를 자르는 형을 받아 죽은 조착이오. 얼마나 원통했던지 여러 생을 앙갚음을 하려 했으나 10생 동안 고승이 돼 계율을 잘 지키므로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당신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분에 넘치게 사치하고, 명예를 탐하는 마음이 생겨 이 기회를 틈타 인면창으로 생겨나 당신을 해하려 한 것이오. 그런데 지금 가락가존자가 삼매의 물로 나를 씻어주시니 이 뒤로부터 당신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겠소.'"

오달 국사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은 성인의 법력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음을 거듭 통감하고 자비수참법을 지어 아침저녁으로 외우고 예배했다. 이 사실은 천하에 퍼졌으며 성인의 삼매수로 오랜 원한을 씻어냈다 해서 자비수참(慈悲水懺)이라 이름했다.

오달 국사의 인면창 설화를 통해 우리는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더욱 생각난다. 우리 삶에서도 무엇이든 잘 풀릴 때가 더 위험하고 함정이 많은 법이다.

올 해도 호시우행(虎視牛行)하라는 말씀처럼 판단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행동은 소처럼 신중하게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오달세원(悟達洗寃) 편. 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본원 불교 의식대학 제 5기
학인모집 안내문

1. 교육기간 : 1년
2. 모 집 일 : 2010년 3월 3일까지
3. 수업일시 : 2010년 3월 5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6시~
4. 교육내용 :
   기초판 – 도량성, 종성, 기도의식, 조석예불
   천도의식 49재
   각단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중급판 – 거불, 복청계, 천수바라, 요잠바라
   도량계, 다게작법
5. 입교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는 출가자 및 재가 불자
6. 교육장소 : 종로구 평창동 대승불교본원종. 교육원
7. 강 사 진 : 만혁스님
8. 접수 및 문의 전화 : 02)391-4376

사단법인 대한불교본원종본원불교의식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 FAX 02)379-2746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보현사신협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0년 1월 16일 – 1월 22일 [6박 7일]	우또다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1월 16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월 22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방한쇼울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한방(韓方)치료로
당뇨. 혈압. 비만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당뇨약 복용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맞춤 한방치료로
상담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1127-중-6353호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문 없는 문으로 그냥 넘어설 줄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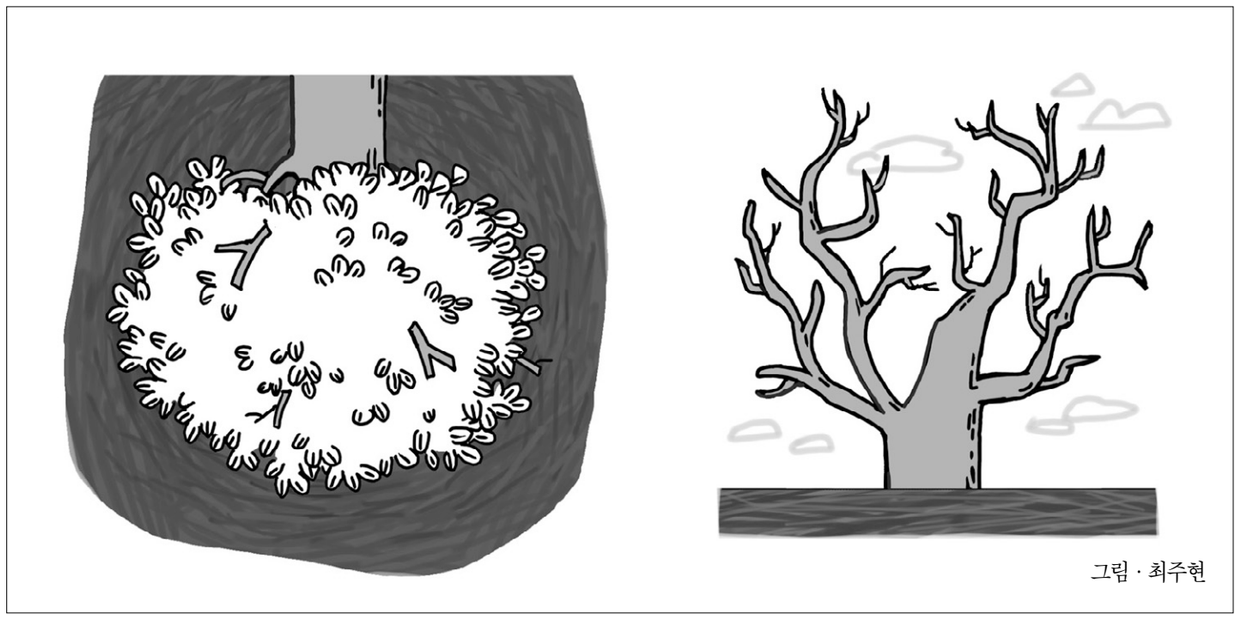
지금 현대 사람들이 때로는 이걸 물질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몸도 물질이지만 그것도 뼈를 다른 걸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무릎도 끼고 발목도 끼고, 팔꿈치도 끼고 그렇게들 만들어놨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끼고 또 빼고, 또 끼고 빼고 이러다 보면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자체 내에서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굴리세요. 마음, 이 마음으로써 모든 게 절대적으로 응용이 되니깐요. 이 몸도 그렇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바깥에서 오는 거든, 용도에 따라서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모든 문제들, 모든 게 이게 절대적으로 응용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여기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내 꼴이 이게 뭐라고 (장삼 자락을 잡아 보이시고) 이걸 보고 절을 하겠습니까? 생각들 해보시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나 이거를 보지 않고 자기가 위급하니깐 그냥 땅바닥이고 어디고 아랑곳없이 그냥 절을 한 게 나한테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패처럼 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부처님 한테 한 거죠. 이게 부처 뒤에 숨어 있는 그 부처님 거기에까지 통신이 되게끔 했단 얘깁니다. 안하무인으로 뭐 땅바닥이든지 진땅이든지 비가 오든지, 그거 아랑곳할 것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네들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볼 때 '나한테 절을 해서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해요. 왜냐? 내 위패가 없다면, 하하, 나라는 위패가 없다면 부처님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앞잡이로서, 하하하, 심부름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하니까 직통 부처님께서, 뒤에 숨어 있는 부처님은 바로 그거를 아시고서 '얘, 정말 가긍하구나! 정말 지극하구나!' 뭐 지극하게 빌고 기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참, 그 도리를 진정코 믿고 알고 있구나!' 이래서 그저 나름대로 소신껏 그렇게 자기 마음먹고 한 대로 돼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진정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그렇게 굴리지 않고도 진정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됩니까? 이 마음의 발전이라는 것이 없으면 첩단을 넘을 수 있는 부처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를 앉아서 다 본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니라. 그리고 다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이게 다 안다 하더라도, 타심통으로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다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다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숙명통, 즉 말하자면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도 도가 아니니라. 그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딱 내가 쥐고서 이 누진(漏盡)으로 벗어나야만이 그것이 바로 도니라.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보이고, 무슨 무슨 부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랬다고 보이고 뭐 이런다고 해서 아이고, 고게 아쉬워서 그냥 야단들을 하고 그게 도인 줄 알고 야단들을 하는데 천만에! 그거는 감사하게 놓기만 하면 돼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는구나!' 하고 거기다 참 놓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여주는 것도 공부니까. 들리게 하는 것도 공부고 모두가 공부일 뿐이지, 수행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도는 아니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열적으로 자기를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냥 오만 신경을 다 써가지곤 그냥 그렇게 찾는다고 앉아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앉아가지곤 온통 야단을 하지 마시고요, 또 책을 그냥 몇 시간씩 보고 그냥 온통 정신을 다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요, 편리하게 내가 보고 싶을 때에 보고, 보기 싫을 때 놓고, 또 시간이 나서 앉고 싶을 때 앉고 앉기 싫으면 그냥 일어나고. 생활 자체가 그대로, 행주좌와(行住坐臥) 그대로 그게 참선이에요. 행선이라든가, 와선이라든가, 입선이라든가, 좌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그대로. 이름이 각각 있다고 해서 각각 이렇게 해야만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사람은 앉았다 서고 섰다 앉고 하는 것이 그대로, 행주좌와 그대로가 참선이다 이겁니다. 한 뿌리가 한 나무를, 헤아릴 수 없는 잎새가 달린 한 나무를 살리고 있듯이, 하여튼 궁금한 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스님, 제가 얼마 전에 고모님 댁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찾아뵙는 건데요, 그 집이 굉장히 초라하고 그랬었는데 집 안 귀퉁이에 조그만 단지가 있었습니다. 옆에 쌀도 있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서 고모님한테 여쭈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신 시어머님을 갖다가 모시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섬뜩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고모님은 오랫동안 불자로서 부처님을 믿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고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모님은 그냥 제 이야기를 흘려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고모님을 위해서 마음을 내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큰스님: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느 집 시어머니가 상자에다 옷을 해서 놓고 항아리를 해놓고 쌀을 놓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거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집으로 어떤 색시가 시집을 갔더래요. 그런데 그 색시는 이 공부를 하는 색시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기에, "그러면 모든 걸 주인공에다 맡겨놔라. 그것은 그냥 물건일 뿐이다. 마음에 맡기면 물건일 뿐이니, 시어머니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치우지 말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깃장을 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고 너만 알고 한마음으로 모든 거를 넣어서, 모든 걸 넣게 되면 천도가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선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보면 먼지를 털기 위해서 거기까지도 막 치고 털고 이러니까 시어머니는 껌벅 죽는 거죠. 그거 모셔놓은 데다가 함부로 그렇게 먼지를 털고 그러느냐고요. 그러니깐 그 며느리가 있다 하는 소리가 "어머님, 이것도 먼지가 앉으면 아니 되니깐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드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자도 먼지가 있으면 상자가 더럽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말도 안 하시고 쓱 삐져서 들어가시더니 그날 저녁에 꿈을 꾸어가지고는 그 이튿날 "야, 참 이상스런 꿈을 꿨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하니까 "아, 그 상자 속에서 글쎄 전부 그냥 나가더라." 하하하. "상자 속에서 전부 나가서 구름을 타고 가는데 아이, 그 상자는 그냥 비었지 뭐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휴, 정말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이라고 "아유, 그런 꿈을 꿨는데 정말 저 상자는 비었더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휴, 그러면 어머님 꿈이 그냥 맞겠네요. 그러니깐 그거는 그냥 태워버리는 게 좋겠지요." 하니깐 "그래라, 비었더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하하.

질문자1(남):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설법하시는 중에 이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심성과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계속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과학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학이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다 해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스님께서 심성과학을 말씀하시니,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연구를 해가면서 어떻게 그 심성과학을 해나갈 수 있을지요.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당신의 누진(漏盡)에 있는 녹음된 그 전체의 한 개체 없는 개체를 발견해야, 지금 현재의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통신이 되고 상봉을 해야 이거는 그런 심성과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개체를 딱 집어서 고정되게 있는 거를 지금 물질과학에서는 말을 하죠, 요걸 조금도 틀리지 않게. 그런데 심성과학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게 우주라면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그냥 자유예요, 자유! 자유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서 잘될 거라면 이리로 틀고, 또 이리로 틀어서 안될 거라면 저리 틀어버리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적이 들어온다 하면 적을 알리고 적이 안 들어온다 하면 꺼지고, 또 적이 이쪽으로 왔다 하면 이쪽으로 기계가 돌아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요것이 과학이다, 요것이 틀림없고, 요거는 작고 요거는 크고, 둘레는 어떻고 이런 건 심성과학이 못된다 이런 거지. 이 심성은 체가 없어서 사방이 툭 터졌어, 그냥. 문 없는 문이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을 찾아서 공부하려면

☞26면으로 계속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謹賀新年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야나불교문화원)

희 장 (이사장) 수암(법혜)

<산하기관 및 부설단체>
대구사원주지연합회신도회
마하야나불교대학
수성구청소년수련관
(2009년 3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3년마다 평가-
달서구청소년수련관
(2009년 우수기관 선정)
마하야나불교합창단
수성구지역자활센터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수상)
공립은아어린이집
(2009년 서구청장 표창)
달서구청소년지원센터

대구 남구 물베기 1길 9(대명동) 불교대구회관
T. 053-629-9500 / www.dgbulgyo.com
e-mail : maha9500@naver.com

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종단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대구교구

교구원장 백운고봉
부 원 장 도정
교구종회의장 만성 중앙종회의원 도정
중앙종회의원 지공 총무국장 무경
규정국장 무상 사회국장 법광
감 사 무상심

법성. 혜일. 진송. 법인. 지현. 무법. 명신. 지월
용암. 경덕. 지용. 성수. 혜주. 석월. 무상. 금용
혜정. 석원. 효연. 법지. 자광. 고성. 정암. 자행
보리심. 보명화. 대법화. 묘법심

입종안내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 종무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439 달마선원
전화 053)986-7134 / 팩스 053)986-7135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정예하 법정
부종정예하 성월
장로원장 득봉
총무원장 혜상
종회의장 도일
교육원장 법운
포교원장 금담
호법원장 청담
복지원장 덕산
비구니원장 해광
경북교구원장 혜광
경남교구원장 경공
대구교구원장 종범
총무부장 금오
교무부장 혜인
사서실장 구산

■ 총무원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산 428번지 봉황사
전 화 : 054) 632 -2799 핸드폰 : 011-228-7813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 FAX 053)983-1698

경인년 청소년포교! 선두에서 뛰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사장 종광
중교장 김영현 고교장 양근식
법인사무국장 일릉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85 (지산동 800)
TEL 053)764-0807

buddhanews.com

나를 생산시켜서 이끌어가는 나의 선장을 믿으세요

☞25면에서 계속

공부 영 못 해. 문 없는 문으로 그냥 넘어설 줄 알아야 그게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려면 지금 물질과학으로 모든 거 하고 가는 동시에, 이 도리를 전체 머리끝 하나도 버리는 게 없이 다 몽땅, 그 뿌리에만 모두 붙어 있다. '내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진짜로 믿고 거기에다 자꾸 그 입력을 하는 것이 좋아. 앞서의 입력은 자꾸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물도 고여 있는 물은 썩지만 자꾸 새 물이 들어가는 물은 썩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2(남): 스님, 만나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신도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 신도 중에서, 대부분이 보살입니다. 보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처사 신도하고 보살 신도가 한 가정에서 서로 살림살이를 해가면서, 보살님은 열심히 한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사님이 오히려 그 공부에 방해가 되고 또 이 한마음 공부로 인해가지고 가정에서 문제까지 생기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항상 이 전깃줄이 서로 가설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선 부단히 가설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거부를 하는 이런 기막힌 현실을 제가 보고 이걸 좀 큰스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다스리고 지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큰스님: 그걸요, 그러니깐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순리적으로, 어떠한 막는 개체가 있을 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데에 큰 돌이 있어서 곧장 갈 수가 없다 할 땐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내가 선원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런다면 나오지 않고도 생활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까, 그대로 그렇게 놓고 공부하시면서 '그 사람도 역시 나와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마음이 밝아지게끔, 지혜가 생기게끔 하는 것도 바로 너뿐이야.' 하고 그것도 놓아가면서 부드럽게 해주면서 부드러운 행동을 해주면서 그 상대방 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이 처음에 볼 땐 자기같이 다니지 않고, 그러니깐 마음에 안도감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다보면 자연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어딘가가 앞서의 그런 거를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자연적으로 한마음으로서 공부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야지 '왜 못 나가게 하느냐?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공부를 당신은 안 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똑같습니다.

질문자2(남): 그래서 제가 같이 열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보니깐 열차칸에서 서로 둘이 싸우고 또 전철 타고 오면서 전철칸에서 또 싸우더라고요. 그래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가니까 그때는 안 싸우는데….

큰스님: 아니, 같이 나오시기는 하는데요?

질문자2(남): 오늘 제가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난 아주 안 나오시면서 그런다고. 아이, 나오시면서 그런 거는, 하하하. 지금 안 믿어 봤자야, 안 믿어 봤자 자기를 무시하는 거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왜 여러분이 다 자신이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러죠? '자신'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알려드리기 쉽게 말을 하자면 '자'는 지금 현재의 자기고, '신'은 자기의 그 원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불심이, 그 불(佛)이 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자신!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자가 어딨습니까? 자기 신이 자기 '부(父)'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에 살 때 살던 자기,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합니까?

대성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생산시켜서 이끌어가는 나의 선장을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이야.

그래서 생명의 근본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내는 것과 몸이 움죽거리는 것과 모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게끔 움죽거리니까 그냥 전체를 한데 묶어서 주인공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부터 알아야 이 우주의 근본 섭리가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이랬잖아. 그러니 바로 '자'는 '신'에게 놔라. '자신'이라고 한다면 자는 신에게 모든 거를 맡기고 믿고 종으로 알아라. 자기 몸뚱이는 종으로 알아라, 이런 거야. 그 왜냐? 지금 이치를 생각을 한대도 몸뚱이 속에 많은 중생들 생명들이 들어있는데 이 컵에 물 한 컵을 당신이 목이 마르다 할 때 마신다 해도 당신이 먹는 게 아니야. 당신이 달라는 게 아니야, 또. 당신 속에 있는 생명들이 바로 그 물을 달라고 목마르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채고선 바로 물을 먹어주는 거지. 그러니나죠? 꽃 심으면 꽃 이파리가 나죠. 그래서 애당초에 지수화풍이 그것이 한데 합쳐서 비비고 돌아갈 때, 암흑세계에서 그게 돌아갈 때 그 불이 원기가 생겨가지고 생명이 생긴 거니까 그렇게 최초에 생긴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이렇게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종자가 생겨서 자기의 그 사는 방식대로 풀려서 그게 진화돼서 자꾸 오는데, 종자를 심어서 바로 종자가 뿌리가 되고 그 뿌리에서 또 이파리가 생기고, 그 이파리 속에 또 종자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 종자가 어디 갑니까? 그냥 종자대로죠.

그래서 종자를 변경을 시키려니까 무가 너무, 이걸 하나로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가 너무 공다리만 나오니까 무가 알이 적어. 그래서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그 무를 갖다 뽑아내지를 않고 그냥 그 이파리만 자르고선 전부 겨로다가 덮어 놨더란 말입니다. 덮어놔가지고 그 이듬해 싹이 나서 씨가 난 거를 받아서 한 해를 묵혀가지고 씨를 받아서 심으니까, 공다리가 나지 않고 배기무우로 그냥 알만 굵게 나오고 이 공다리가 나오지 않는 종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거와 같이 사람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로이 바꾸고 새로이 종자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종자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네? 우리 마음으로써, 이 물질로써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마음으로써 바꾸어서 물질로 그렇게 바꾸어서 나오게끔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갑니까?

> 한바다에 구정물과 새 물을 넣어도 그냥 한바다가 돼버리지
> 구정물 따로 새 물 따로 두드러지지 않듯이
> 악도 놓고 선도 놔라 그러는 겁니다

질문자3(남): 저는 이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남이 당신은 "선은 뭐고 악이 뭐냐?"고 물어온다면 선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상대와 내가 동시에 좋은 거고 또 내가 괴롭고 손해가 보더라도 상대가 좋은 거면 그걸 선이라고 보고, 악은 그와 반대로 상대와 내가 나쁘고 내가 좋고 이득이 되더라도 상대가 나쁘면 그건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분별심이 없어졌어요. 지금 누가 나보고 당신은 선이 뭐고 악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비추어서 큰스님께서 선도 놓고 악도 놓으라고 그랬는데 뭘 놓으라고 그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아주 간략하게 말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믿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응용해서 얘기하죠. '자(子)'는 '주(主)'에게 모든 거를 놔라 이런 겁니다. 주님은 바로 주처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주님이 있지 주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불가에서 불성이다 부처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평소에 말을 할 때 중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 출현을 안 했더라면 무효지, '주'가 어딨는지 부처님이 어딨는지도 모를 거야. 그렇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세상도 알았고 상까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이지 제각기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야. 같이 더불어 주(主)란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자는 주에게 놔야지 않아! 맡겨놔야지.

다 놔라 그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기에 불을 켜려면 이쪽 줄과 이쪽 줄을 양면, 이게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라 할지라도 이 양면을 다 한데 붙여놓으면 (양 주먹을 서로 붙여 보이시고) 한 줄이 돼버려야 불이 들어올 수 있지? 응.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놓고 선도 놔라 그러는 건, 한데 합치면 그냥 한바다에 구정물과 새 물을 넣어도 그냥 한바다가 돼버리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거야. 더러운 물 따로 두드러지고 새 물 따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거야.

질문자4(남): 저는 그 태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태몽을 꾸면 뭐 소를 가졌다느니, 뭐 사람을 안아 왔다느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부모의 성품을 닮는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전생의 성품이나, 자기의 그 부모의 성품이 양면에서 어떻게 해서 닮을 수가 있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아니, 허허허. 무씨 심으면 무 이파리가

질문자4(남): 태몽에 대해서요. 개를 선물로 받는 태몽을 꾸었다면 그 개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개를 받게 되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

큰스님: 예를 들어서 지역 지역이 있듯이 물에서 생명체가 공부를 해서 인간으로 환생을 한다면, 즉 말하자면 물에서 사는 것이 보이는 그 태몽으로, 물에서 나와서 보이는 이치가 있고요, 꿈에. 또 산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는 즉 산에서 보이고요. 그거는 어떠한 물체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뱀으로 보였다 하면 뱀으로 보지 말고 용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죽거리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그걸 용으로 보였다고 해서, 그거는 글자 없는 표시인데. 옛날에 글자 모르는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통기를 하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관을 그려놓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듯이, 꿈에 보이는 거는 좀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꿈 그대로 보고는 힘듭니다. 그대로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나빠질 수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큰 용을 봤다 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에 그 아주 활력이 대단하게, 크게 활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용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이 꿈에 여의주를 물었다 이럴 때는, 본래의 그 사람이 살 때 많은 공을 닦아서 그 공덕을 받아서 그 공덕 안에 여의주를 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이 움죽거릴 수 있다. 자유스럽게 무(無)의 세계나 유(有)의 세계를 마음대로 마음으로 넘나들면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름이 빛날 수 있다 이런 거를 표시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큰 배를 얻었다, 먹는 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 평소에 살 때 어떠한 깨침도 주지 않고, 뭐 원한도 사지 않고, 뭐 동물들에게도 원한을 사지 않고 아주 온순하게 이 세상을 닦은 그러한 뜻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보는 것도, 공자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공자님 어머니가 6년을 좋은 아들을 달라고 빌었을 때 6년을 다녀도 영 태기가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너무나 그 기간이 길어서 아주 그냥 지쳤죠. 그래서 그 해에는 안 가고 있었는데 꿈에서 하신 말씀이 "얘야,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영령을 영령들이 들어오는 대로 아무리 골라도 그런 좋은 영령들을 고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골라놨으니까 빨리 오너라." 이래서 7년 되던 해에 거길 갔단 말입니다. 갔다 와 가지곤 바로 태기가 있어서 낳은 그분이 공자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태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을 오직 그렇게 비우면서도 그 형상도 좋게 나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태교의 이치, 성격도 모든 것을 다 이롭게 또는 지혜롭게 물리가 터진 그러한 마음을 태교를 위해서 자꾸자꾸 먹게끔, 거기다가 맡겨놓으면 그게 다 같이 한마음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신을 할 텐데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 아들이고 딸이고 낳기만 하면 수가 아니다. 좋은 영령들을 갖다가 인연을 삼아야지 그렇게 좋은 영령이 아니라면 항상 부딪치고 싸우고 그렇게 되니깐 좋은 영령으로 그 인연을 맺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소리예요. 꿈을 어떻게 꿨든지 그거는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위 법문은 1995년 1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종 정 **이동광**
부종정 **이정송**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최만재** 종회부의장 **기혜성. 김운산**

교육원장 이남은 포교원장 정일광 호계원장 김혜각 감찰원장 김혜암
문화원장 백만우 선 원 장 황혜광 상벌위원장 이만오 선거관리위원장 조고담

총무부장 **김지산** 재무부장 **이지혜** 사회부장 **윤대암** 호법부장 **박정덕**
조직부장 **이지우** 교무부장 **이해오** 감찰부장 **김일봉** 포교부장 **박지혁**
포교기획부장 **전신오** 문화관리부장 **문보현** 문화부장 **박보광** 호계부장 **박지광**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 서울(북)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 서울(남)제3교구종무원장 김범능
경기(성남)종무원장 정법연 / 경기(서부)종무원장 김혜암 / 대전종무원장 윤법전
충청종무원장 김법현 / 경북종무원장 정일광 / 울산교구종무원장 백만우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 경남중부교구종무원장 박심공 / 부산종무원장 최만재
강원제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 강원제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 광주, 전남종무원장 김현산
제주종무원장 김청해 / 전북종무원장 이기종

■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전화 031)592-8891 / 팩스 031)592-8892

본지 764호(1월1일자) A11면에 게재된 '대한불교총화종' 축하 광고 임원명단에서
'조사부장 이원일, 교육부장 최일광'은 이미 탈종하신 스님으로서 총화종 종도가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원로의장 **만월** 원로위원 **도명 오성 진관 각성**
종회의장 **덕산**

포교원장 **무제** 행정원장 **청명** 대외협력원장 **지운** 복지원장 **혜득**
기획원장 **도도** 특임원장 **무심** 무술원장 **풍운** 의전원장 **혜도**
총무원부원장 **정호** 총무원부원장 **명진** 교육원부원장 **무변** 문화원부원장 **혜인**

서울종무원장 **무비** 경기종무원장 **도법** 대구종무원장 **성련** 강원종무원장 **삼광**
충청종무원장 **정화** 전남종무원장 **문정**

규정부장 **도천** 사회부장 **홍일** 공보부장 **보혜** 복지부장 **행적**
기록부장 **정연** 행사부장 **대도** 의전부장 **도원** 포교부장 **천약**

이외 종도일동

법사 **법안,무계** 사무국장 **문광** 고문 **양태창(KNB방송사장)**
자문위원 **추당(화가) 구한경 권종현 손은주 만송(기자)**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2동 1928-13 (1층) 전화 (直) 0502-666-5000 / 팩스 053) 655-3222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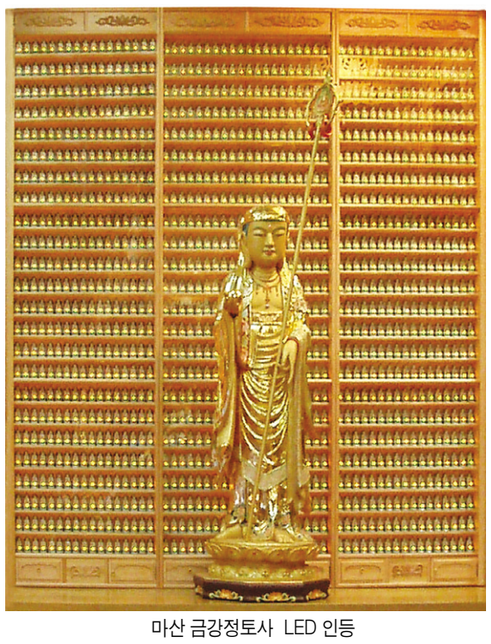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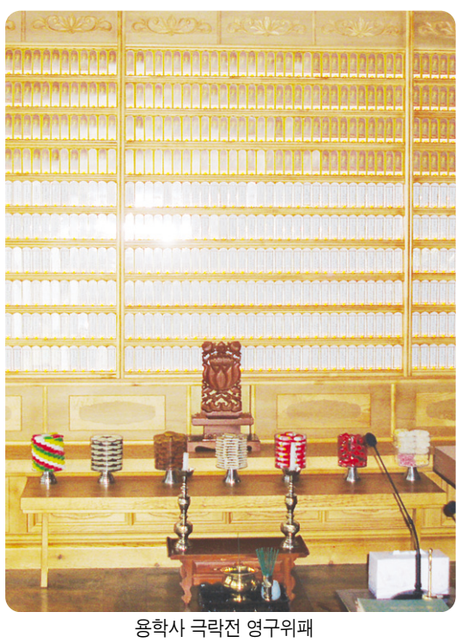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